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우리 사회에서 최근 “축제 사태” 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축제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도에 449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기능, 예술적 기능, 오락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을 갖는다. 최근의 지역축제의 활성화는 이러한 전통적 기능 이외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즉,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개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구성원간의 동질감과 유대감 증진, 주민참여 촉진,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도로, 숙박시설, 지역 환경정비 등)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문화산업진흥이라는 국가정책이 동시에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축제에 대한 연구 동향은 주로 지역축제와 지역 이미지 향상, 지역축제 참여자의 만족도,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과 분석 등으로 정리된다.

한편, 청소년분야에서도 최근에 축제가 풍성하게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개최되던 학교축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청소년축제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발표할 기회 제공을 중요한 청소년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며, 국가 청소년정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청소년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세계청소년문화축제(4회) 한강청소년동아리축제(2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4회), 여수세계청소년축제(4회) 등이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축제로는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우끼자’(우리들 끼의 자리)(2회), 김제시 청소년문화축전, 성북지역 청소년 스스로 문화제 ‘난리긋’ 강북지역의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대전시의 ‘청소년들의 문화한마당’ 등 다양한 지역단위의 축제가 기획·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많은 청소년축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천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축제바로세우기’, 안중청소년문화의집의 ‘Youth Production’, 울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거리카페’, 거창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거리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축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와는 기본취지나 운영상의 특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지역축제가 축제 본연의 기능보다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는 지역사회 경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된다면, 청소년축제는 청소년사업 또는 청소년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자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년축제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규모 행사로 치러지는 다양한 축제 행사가 과연 청소년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벤트 기업에 의한 대규모 기획축제로 운영되는 청소년축제의 의미에 대한 반성이다. 반면에 소규모이지만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축제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청소년보다는 성인 중심의 기획과 운영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단순한 출연자로서 공연에 참가하거나 지나친 경쟁심을 조장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활동의 적극적 표현양식으로서 청소년축제가 그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단순한 축제의 관객이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축제의 기획·운영·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지도자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축제기획단 운영 등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축제가 양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에 비추어 청소년축제를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평가하는 과정을 지원할 매뉴얼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소년축제의 의미를 갖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문화적 특성에 고려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욕구의 적극적 표현양식으로서 청소년축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에 바탕을 두고 청소년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축제의 특성 및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영역별, 참여주체별 실천방안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청소년축제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고찰

- 축제, 지역축제, 청소년축제 등 관련 개념과 의미를 분석
- 청소년축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특히 청소년 문화활동으로서의 청소년축제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
- 국내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나타난 청소년축제 관련 사항을 분석하여 제시
- 효과적인 청소년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

(2) 지역사회의 청소년축제 실태분석과 문제점 도출

-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축제의 사례조사, 면접조사 및 현지관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재 운영되는 청소년축제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청소년축제의 운영방식, 청소년참여방식, 참여자에 의한 축제의 평가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

(3)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청소년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주체들의 실천방안과 정책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청소년축제 및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문헌조사 및 분석

- 축제관련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 축제, 지역축제, 청소년축제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
 - 청소년축제의 운영상의 특성에 관한 자료 분석
- 국내외 청소년축제의 운영사례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분석
 - 영국 및 일본 등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인터넷 및 현지 전문가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
 - 국내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2) 사례조사: 국내 청소년축제 및 외국 청소년축제 사례 분석

- 청소년축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국내에서 개최된 청소년축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 국내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주된 분석대상으로 서울시 강북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이 7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강북청소년축제 秋樂” 과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청소년문화의 집의 “Youth Production” 을 설정하고자 한다. 사례의 선정은 자문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 국내사례는 청소년축제의 기획 및 진행,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참여관찰이나 지도자 및 참여청소년과의 면접조사를 실시
 - 면접내용은 청소년축제의 운영방식, 사업기간, 소요예산, 축제의 성과 및 문제점, 시사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외국의 사례는 인터넷과 현지 전문가에 의한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사례 분석

(3) 연구협의회(자문회의) 운영: 전문가 및 현장지도자와의
지속적인 자문과 협의

○ 청소년축제의 기획 및 진행과 관련된 현장전문가들로 연구협
의회 구성·운영

- 전문가 및 지도자 7명 내외로 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
- 지속적인 연구협의회의 모임을 통하여 연구추진 및 연구내용
등에 관한 자문

II. 이론적 배경

1. 축제의 개념 및 기능
2. 문화론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축제

II. 이론적 배경

1. 축제의 개념 및 기능

1) 축제의 개념과 의의

축제란 어원상에서 어떤 일의 성사를 빌고 하례하는 축일(祝日)과 신령에게 정성을 드리는 제일(祭日)이 합쳐진 단어로서, 그 속에서 축일이 갖는 오락성과 제일이 갖는 종교성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축제는 이러한 종교적인 신성함과 놀이가 갖는 연회적 특성이 노래와 춤, 거기에 곁들인 술과 가락이 융합되어 민속축제로서 그 모양을 갖추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축제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 중에 축제와 관련된 요소가 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결정한다고 믿는 절대자를 상정하고 그를 신격화한 후에 그에 대한 숭배와 함께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전은 물론, 앞으로의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축제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기원의 의미가 줄어들고 놀이적 요소가 강화됨에 따라 점차 이벤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섭(1988: 5)은 축제는 성스러운 종교적 의식에서 출발한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로 종교적 신성함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유희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 전통적인 축제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축제도 분명히 축(祝)과 제(際)가 어우러진 종합적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축제의 기본적인 형태는 즐거움으로 대변되는 잔치라고 할 수

있다. 김선평(1997)은 어떤 집단의 문화적·사회적 동질성을 밝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놀이이며, 그 놀이의 가장 높은 형식은 축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축제는 여흥·놀이·난장판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며 떠들썩한 놀이판이라는 뜻에서 굿과 합성어를 이루어 굿잔치 또는 굿놀이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또한 이상일(1988)은 축제는 민중들의 놀이 공간이며 탈일상의 공간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중들은 축제를 통해서 노동의 현실에서 벗어나 재생산을 위한 ‘풀이’의 카타르시스를 맞본다. 축제의 공간은 신성한 곳이며, 동시에 ‘난장의 판’이다. 이들은 이 공간에서 가장 신성한 행위를 하며 가장 난잡하게 놀아 젖힌다. 이 날만은 양반을 마음껏 희롱할 수 있고 백주 대낮에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다. 머리통이 깨져도 뭐라 할 수 없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판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배계층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이날만큼은 민중의 날이다.

한편, 인간의 존재를 ‘축제하는 인간(Homo festivus)’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축제는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사회적 욕구의 표현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시생활을 하는 미개인으로 부터 선진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현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어떤 주제를 찾아 즐기고 축제를 벌이려는 본성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상황이나 주제를 축제의 분위기로 연출하려는 욕구는 단기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뿐만 아니라 장례식·혼례예식·성년식 등 인간생활에 있어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다양한 내용으로 그 폭이 넓어진다.

한편, 축제를 여가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여가를 단순히 일에 부수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 여가를 휴식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원기의 회복을 도모하는 기능 정도로 정의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여가 시간의 향유는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인간의 창조적 소질이 꽃피는 것은 실상 여가에서이며 여가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축제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전 시대에 비해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그 성격이 강해지고 있으며, 현대인은 노동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여가중심적 사고로 그 생활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축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표 II-1> 축제의 개념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

학자	축제의 정의
이상일	사회성과 역사성을 띠고 현장을 통해 살아있는 놀이로 발전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의식공동체로 성립
호이징하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
하비콕스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가정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축제의 감성적 욕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문화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
헬무트 쿤	여가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축제의 본질
게츠	공공적이며 테마를 가진 의식
바흐젠	축제는 인간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조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인 휴식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더욱 피상적 해석이며, 축제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항상 함축적이고 독자적인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축제의 성격과 의의

축제는 단순한 놀이나 의례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조현호(2004)는 축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고의적 과잉성, 긍정성, 대국성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고의적 과잉성은 축제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 지나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도덕률이나 금기에서 잠시 동안 벗어나는 행동도 허용되며, 사회적 제약요소인 신분이나 사회계층 및 빈부의 차이도 이 기간 동안에는 크게 의의를 갖지 못해서 완전히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해진다.

둘째, 긍정성은 축제를 통하여 삶을 긍정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모두 성취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데, 이는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과 축제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소원성취를 빌고자 신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셋째, 대국성(對局性)은 축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여러 활동과 함께 일상의 틀을 유지한다. 금기가 해제되고 종교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에서 해방되지만 삶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전제로 한 한계의 이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상룡(2003: 65)의 지적처럼 본래 축제의 성격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소통의 연로를 열어주고 대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세계를 비취 주는 거울이며, 우리의 영혼이 잊어버린 제자리를 찾아 낯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열정의 샘(泉)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 성격도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변화와 함께 종래 축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인 정치적 성격과 제의적 성격은 변질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중 정치적 성격은 각 정당들에게로, 제의적 성격은 해당 종교 세력들에게로 편입되어 버렸고, 대단위 스포츠 행사나 유흥적 성격을 지닌 쇼처럼 대중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행사나, 쾌락적이거나 탐미적 성격의 축제 형식들만이 축제란 이름으로 행세를 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표 II-2> 축제의 다양한 의미

구 분	의 미
일탈의 수단	· eccentricity: (복장, 행동) 별남, 괴짜 · escapade: 엉뚱한 짓, 멋대로 함, 장난, 도피 · excursion: 일탈, 소풍, 벗어남
즐거움 추구	· enjoyment: 쾌락, 즐거움 · epicure: 미식주의(식도락), 쾌락주의 · elicitation: 갈채, 웃음의 분출(유도)
에너지 상승	· elation: 의기양양 · elasticity: 쾌활, 경쾌 · elan: 열의, 약진
흥분과 자극	· ecstasy: 무아경 · elevation: 들뜸 · enchantment: 매혹적임 · eroticism: 성적흥분 · exclamation: 감탄
완전한 발산	· effusion: 발산 · exhaustion: 소모, 배출 · excess: 부절제, 과도
교육의 수단	· education: 교육적 효과
평등의 추구	· egalitarianism: 평등주의
예식의 참여	· exercises: 의식, 예식
장식의 수단	· emblazonment: 문장장식, 깃발
총체적 조화	· ensemble: 앙상블

이태희(2003: 23)는 축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
 되, 평소 절제되고 규범과 도덕에 의해 통제 받던 삶의 양식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벤트를 활용하게 되는 동기
 도 축제경험의 중요한 동기라고 지적하면서, 축제가 갖는 의의를
 <표 II-2>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II-3> 축제와 일상생활의 차이

구분	축제	일상생활
시간적 범위	· 비지속성 · 단기적 자극	· 지속성 · 반복적
사회성	· 집결 · 집합 · 대규모 접촉 · 결속 · 유인력	· 개별적 삶의 영위 · 분산 · 독립 · 고독
주제	· 일탈 · 다양성의 표현 · 자유 · 흥미 · 선택의 즐거움 · 지역성의 강조	· 규범, 도덕 · 의무 · 생존 · 강요된 주제 · 주제의 실종
자극의 정도	· 고(高)자극 · 강한 에너지의 발산	· 저(低)자극 · 절제 · 회피
주체	· 조직화된 사고 · 기획의 중요성 · 명확한 개최 목표	· 각개인 · 임의적 판단 · 불확실
대상	· 공간초월 다양함 · 불특정 다수, 대규모 · 흥미집단의 형성	· 공간적 한계(직장, 가정) · 소규모 · 무의미 및 계산적 만남

축제참가와 관광이나 여행이 일맥상통하는 공통점 중의 하나
 는 반복되는 일상생활로부터의 일탈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축제는 결국 방문객이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혹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축제 참가의 동기와 축제에 대해 갖는 욕구를 부드럽게 충족시켜 주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이상일(1988: 189)은 축제에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강렬한 동기가 존재하며, 일상생활에서 탈출함으로서 축제는 일종의 독특한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축제에는 항상 무엇인가 동기가 있다. 그러한 동기가 되는 사건을 축하하는 곳에, 바꾸어 말하면 그런 종류의 사건이 생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통찰할 수 있게 하는데 축제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축제의 기능

축제가 한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의 모든 것을 포괄한 산물이라면 지역사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장주근(1982: 30-33)은 축제의 현대적 기능을 원초적 제의성의 보존, 향토민의 일체감, 전통문화의 보존, 경제적 의의 그리고 관광적 의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대적 제의성은 지역마다 특정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 형식에서 고대 제의의 원초적인 뿌리를 아직 간직하고 있다고 보며, 축제마다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평소의 물질을 추구하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공동의 장에 모여 축원하면서 즐긴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일체감을 엿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김명자(1992: 233-255)는 세시풍속을 한국적 축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축제의 기능으로 종교적 기능, 윤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예술적 기능, 생산적 기능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기능은 축제의 유희성을 단순한 오락으로 보기보다는 축제의 참여자를 현실상황으로부터 잠시 이탈하

여 긴장을 이완시켜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축제의 참여자는 정신적인 욕구충족을 경험하게 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을 때 생산을 위한 의욕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생산적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론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축제

1) 현대사회와 축제

풍요로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삶속에서 축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또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학교공부와 관련된 학업활동의 틀에서 표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축제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고영석(2003)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아울러 청소년단체 등의 주도 아래 상당수의 축제가 기획되고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들이 가지는 특징들로는 먼저, 류정아(2003: 23-30)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축제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의 분류에 기초하여 현대사회의 축제의 특성과 청소년축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① 축제의 상징성과 유사종교성

축제는 생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대단히 파괴적이고,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축제가 현실의 사회생활에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러한 축제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단순한 시간보내거나 여흥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 해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삶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요소로 세속화, 탈종교화, 도시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축제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성성은 그 실제적 공감대와 중요성이 거의 상실되어 이제는 축제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명목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성스러운 영역이 점차 세속적인 영역 속으로 편입되어 가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일상적인 삶을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성스러운 영역은 그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리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세속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은 분명하다. 즉, 축제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성스러운 영역은 일상적 삶의 세속적인 부분의 존재가치를 더욱더 부각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연회하는 많은 축제들에서는 상징적인 성스러움과 상징적인 세속성이 의도적으로 구분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② 축제와 문화정체성 :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

엄청난 정보의 홍수속에서 거대한 과학문명에 짓눌리고 딱딱한 언명 또는 이데올로기가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로운 상상력보다 더 우세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동경한다. 특히, 축제가 가지는 상징성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일상적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해방구, 즉

유토피아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다.

유토피아적 상황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축제만큼 좋은 것은 없다. 물론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그것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신도 없다. 그러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과정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희열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축제속에서 유토피아를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본적인 토대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정체성을 확인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축제와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현재의 삶을 존재하게 하는 과거 삶의 인식, 즉 전통성의 확인을 통해서 삶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그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자신의 삶의 존재 의미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축제가 바로 이러한 과정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축제를 통한 여가 향유와 실천

인터넷이 구현해 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에의 몰입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개인화 또는 원자화 경향은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개인적 생활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자의 삶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증폭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축제적, 문화적 특징을 전통사회의 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통축제의 경우 그 주체가 지역공동체인데 반해 현대사회의 축제는 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인 것이 차이점이며, 축제의 목적에 있어서는 전통축제의 경우 공동체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며 동시에 공동체의 협동과 결속을 다지는데 있는데 반해, 현대사회의 축제는 전통문화계승, 문화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의 내용의 면에서는 전통축제는 제례행사, 민속놀이, 굿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현대사회의 축제는 제례행사와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 미인대회,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과 같은 극히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의 조달의 측면에 있어서는 전통축제는 구성원의 공동부조에 의하나, 현대축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기업의 협찬금, 상품판매수입 등에서 경비를 조달한다.

<표 II-4> 전통축제와 현대축제의 비교

구분	전통축제	현대축제
축제의 주체	지역공동체집단	자치단체, 사회단체
축제의 개최목적	공동체의 안정과 풍요 공동체의 협동과 결속	전통문화계승,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창출
축제의 구성	제례행사, 민속놀이, 굿판 등	제례행사, 민속놀이, 미인대회,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축제개최지역	지리적으로 폐쇄된 농어촌 지역	개방된 도시화·산업화지역
축제의 참여율	매우 높다	참여동기 유발이 어렵다
경비조달방법	구성원의 공동부조	정부, 자치단체예산, 기업협찬금, 상품판매수입 등

출처 : 이세섭(1998: 14).

2) 청소년문화의 특징과 청소년축제

청소년문화란 청소년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된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들의 언어, 습관, 가치관, 종교 등을 들 수 있다. 김신일(1993: 9-11)은 한국사회의 청소년문화의 성격으로 미숙한 문화, 비행문화, 하위문화, 대항문화 그리고 청소년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최원기 외(2001: 14-16)는 청소년문화의 특징을 기성세대의 문화적 특징과 그들만의 창조적 특징을 혼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 보다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문화가 가진 성격과 특성들은 청소년축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제는 공유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그 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무대이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유도하는 장이다. 또한, 짧은 시간내에 지역의 이미지와 실태를 표현하는 무대인 축제가 청소년축제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일까? 축제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억압된 인간의 감정과 행동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간 본연의 위치를 발견토록 해 주며, 사회비판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회적·종교적 목적의 활용수단이 되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지역간·국가간 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대사회의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즉, 지역적 정체성의 부재, 축제 참여자들과 관객들의 의식과 태도의 문제, 진행방법, 재원조달의 문제 등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원

기 외(2001: 22)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축제에는 청소년만을 위한 축제는 없으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전통적 축제에는 청소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축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노래, 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아리 발표회 정도의 축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신일(1993: 12-13)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에 상업주의가 부정적인 형태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들 또한 일상생활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여겨진다.

3) 지역사회와 청소년축제

지역사회(地域社會)란 영어의 ‘Community’로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on’ 과 공동자치제를 의미하는 ‘Communal’ 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소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지닌 Communication의 의미를 담고 있기 도 하다.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1차적 집단특성을 지역사회의 본질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현대에 들어와서 이익집단으로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역동성이 강화되어가고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정지웅 외 2000; 9).

한편, 위의 정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지역사회를 지리적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역사회는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자연 지리적 특성보다는 지역적 생활 그 자체가 지역사회의 핵심적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란 사람

들이 단순히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 연대를 가지고 사회적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생활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Cook은 지역사회의 개념을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정지웅 외 2000; 13-14에서 재인용).

① 인구의 집합체로서 어느 정도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인구의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한적이며 인접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성립된다.

③ 역사적 유산의 공유로서 공통의 경험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다. 이러한 역사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기본적 봉사기관의 소유기능으로서 학교, 은행, 교회, 시장 등은 지역사회의 봉사기관이다.

⑤ 공동생활양식에의 참여로서 지역적 단결로서 “우리의식”을 가지게 하는 사회이다.

⑥ 통일성의 의식이라는 지역사회의 정신으로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통일된 정신을 가진다.

⑦ 협동생활의 가능성을 지닌 상호협동사회이다.

즉, 지역사회의 기본요소로서 한정된 지리적 영역의 공동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 기관, 위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합된 행동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며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아울러 자연 지리적 특성보다는 지역적 생활 그 자체가 지역사회의 핵심부분이 된다. 지역사회란 사람들이 단순히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 이상으로 연대를 갖고 사회적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생활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의 개념, 특성들과 청소년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지역사회는 청소년문화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양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행동, 태도, 가치관, 기회 등에 많은 영향을 주며, 아울러 청소년의 발달은 핵가족이나 확대가족, 또래집단, 학교 등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지는 의미는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을 위한 원천적 거점이며, 청소년들의 관습과 태도, 가치의식을 길러주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 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기관, 단체, 시설들의 노력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념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정의로서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 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다. 반면에, 넓은 의미로는 전통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전반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임재해(1991)는 마을단위로 행해지는 민속을 바탕으로 한 축제를 지역의 축제로 정의하고 있다.

임재해(2000: 227-230)는 지역축제의 성격을 생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성격을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살리는 ‘문화축제’의 성격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대동축제’으로서 성격, 기존 질서의 모순을 풍자하는 민중의 신명풀이로서 진보적

‘변혁축제’의 성격, 참여하는 사람들이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터득하는 ‘체험축제’의 성격을 들고 있다. 또한,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축제’의 성격을 들면서, 이러한 홍보축제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철학과 삶의 뜻이 축제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Ⅲ. 국내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성공사례 분석

1. 대도시 밀착형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성공사례 분석
2. 중소도시 밀착형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성공사례 분석

Ⅲ. 국내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성공사례 분석*

1. 대도시 밀착형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성공사례 분석

- 품**의 “서울 강북청소년문화축제” -

1) 강북청소년문화축제의 발상 및 제안 배경***

(1)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문제의식

1996년 품은 여가시간의 활용에 대한 시대적 관심에 반해 지역청소년의 문화환경의 열악함과 지역시설,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활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문제점과 성과,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① 강북구 내에서의 청소년 문화(여가)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첫째, 문화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홍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 국내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사례분석은 대도시밀착형 청소년축제의 성공사례로 서울시 강북구의 강북청소년문화축제를, 중소도시밀착형 청소년축제의 성공사례로 평택시 안중읍 청소년문화의 집의 서부지역청소년축제를 선정하였다. 성공사례의 선정은 자문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 서울시 강북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을 주로 실시하는 단체이며, 1997년부터 강북청소년문화축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 강북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한 내용분석은 품의 청소년축제 기획 및 진행담당자의 원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내용의 서술 또한 기획 및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다.

넷째, 강북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다섯째, 가족과 학교측의 이해부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② 강북구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활동을 위한 실천방향 및 제언

위에서 제시된 강북지역 청소년 문화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올바른 청소년 여가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실천방향과 대안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강북구 내의 청소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 가정, 구청, 청소년단체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강북구 내에 청소년 전용시설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강북지역 청소년 문화활동의 문제점

1996년 강북구 청소년여가활동조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실천방향을 바탕으로 1998년 품은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조사를 실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 인해 지역문화운동을 위한 실천적 배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① 열악한 지역사회 청소년복지환경

강북, 도봉 지역은 낮은 재정자립도,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유역 등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소비문화만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유흥문화에 물들기 쉬운 강북지역의 열악한 청소년복지환경은 개인적인 이 유보다는 사회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¹⁾

또한 강북, 도봉구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표 III -1> 에서 각각 25위와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자립도의 열악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북, 도봉구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들과 비교(특히 1군)해서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열악한 문화환경과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 문화 욕구

2000년 강북구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문화축제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48.6%가 청소년들이 가진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9.9%가 문화축제 개최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청소년 문화축제의 참여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62.3%가 진행주체나 도우미의 형태, 또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관

1) 강북구의 경우, 60~70년대 도심 철거민이 집단이주로 정착하면서, 미아 1, 2, 6, 7동과 수유 1동에는 영세상가와 저소득 불량노후주택이, 번 2, 3동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아 3, 4동과 수유 3동은 각각 미아역과 수유전철역 주변으로 매우 변화하며 유흥업소와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생활소득수준이 높은 주민이 거주하는 등 지역주민간의 생활편차가 심하다.

람만 하기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축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을 단순히 관람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참여자로 인식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다.

<표 III-1>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세입	외부의존세입				의존도 (%)	재정자립도 (%)
		소계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1군	강 남	251,957	9336	65	9271	-	3.17
	중	138,727	5307	65	5242	-	3.83
	서 초	138,225	9377	65	9312	-	6.78
	송 파	159,761	25655	16837	8818	-	16.06
	영등포	118,746	24629	12305	12324	-	20.74
2군	종 로	123,511	35051	22695	12356	-	28.38
	강 서	132,695	57451	46136	11315	-	43.30
	용 산	112,495	52355	42890	9465	-	46.54
	마 포	137,552	64786	54850	9936	-	47.10
	구 로	110,159	57206	50103	7103	-	51.93
3군	강 동	112,525	58528	47021	9507	2000	52.01
	양 천	118,829	62385	50275	12110	-	52.50
	성 북	136,593	72635	61500	11135	-	53.18
	동대문	125,145	67049	57759	9290	-	53.58
	종 각	120,271	65061	55957	9104	-	54.10
	성 동	131,601	71492	54417	17075	-	54.32
	광 진	107,243	59362	46991	12371	-	55.35
	노 원	139,720	77601	62087	15514	-	55.54
	서대문	120,293	67256	54966	12290	-	55.91
	동 직	108,714	63164	55100	8064	-	58.10
4군	금 천	94,908	56465	50363	6102	-	59.49
	관 악	123,093	75196	64127	11069	-	61.09
	은 평	110,017	68259	58824	9435	-	62.04
	도 불	97,834	61835	53,285	8550	-	63.20
	강 북	110,472	72731	60090	12641	-	65.84

자료 : 서울통계연보 1998,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연구」, p. 27에서 재인용.
 주 : 자치구의 1997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1군 80%이상, 2군 50-80%미만, 3군 40-50%미만, 4군 40%미만으로 구분함.

2) 청소년 문화활동의 실천적 배경

(1) 지역사회 청소년운동 추진을 위한 준비

①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운동 추진을 위한 기초모임

1998년 5월, 이전까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사업에 주력하던 품은 지역사회 청소년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공동망구성과 청소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모임을 구성하였다.

	내 용	참 가 자
1, 2차 모임	* 강북구 청소년 운동을 위한 문제의식 공유 / 기초추진방향, 문제의식 등을 위한 세미나	품 지도자 / 한신대, 서울여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3차 모임	* 기초조사 및 준비를 위한 자원지도자 조직	"

② 기초조사 실시

세 차례에 걸친 기초모임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지도자와 자원지도자를 조직한 후, 강북구 내 기초조사를 2개월간 실시하였다.

	내 용	참가자
4차 모임	* 강북구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조사 - 청소년현황, 문화환경, 교육환경 등에 대한 기초 조사 - 시민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복지관 등 공동망 형성과 참여유도를 위한 방문 및 전화 면담 -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 담당계장 및 직원과 추진방 향에 대한 의견공유	품 소속 지도자 및 자원지도자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함께 나누는 이야기 마당”

지역사회 청소년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 교사 그리고 구청 담당자를 섭외하고 문제의식 공유와 정보 교환, 사업추진을 위한 1차 모임을 실시하였다.

일시 / 장소	* 일시 : 98년 9월 19일(토) * 장소 : 강북구청 3층 기획상황실
내 용	- 참가자 소개 및 참가 단체 소개 - 단체 및 개인별 활동내용 소개 및 문제의식 공유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운동을 위한 토의 - 정리의 시간
참가한 사람	* 단체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 행정기관 /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담당 계원 * 학교 / 신일중학교 교사 * 기타 자원지도자 / 대학생 자원지도자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축제 제안

1998년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당시 북부열린시민회)에서 강북, 도봉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품(당시 품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과 햇살청소년회에 청소년문화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시민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청소년문화제의 한계와 청소년에 집중하는 사업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청소년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침 품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운동 추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한편, 노래패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햇살에서는 구체적인 지역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제안은 풀리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세 단체에 무언가 해보자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며, 여기에 전교조 강북지회가 함께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강북청소년문화축제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구상되기 시작했다.

① 거리축제 제안 당시의 청소년문화제 추진의도

가. 2년 동안 북부열린시민회에서 주최한 청소년문화제는 아이들이 공연을 관람만 하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문화생성의 주체자로서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나. 기존의 청소년축제는 가수, 성악가, 풍물공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 의한 행사는 아니었다.

다. 지역주민들인 부녀, 아동, 유아, 노인 등이 주로 참여하며 청소년의 참여는 일부 제한적이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라. 책잔치 한마당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는 높았다. 그러므로 이 행사와 함께 어우러질 청소년 문화제 또한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마. 책잔치 한마당과 병행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청소년 문화제는 3개의 지역단체가 모여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 지지 그리고 연계를 통하여 강북구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다.

② 거리축제 제안 당시의 청소년 문화제 방향

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청소년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자!

나. 강북구 수유동의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키자!

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주체적, 자주적인 강북구청소년문화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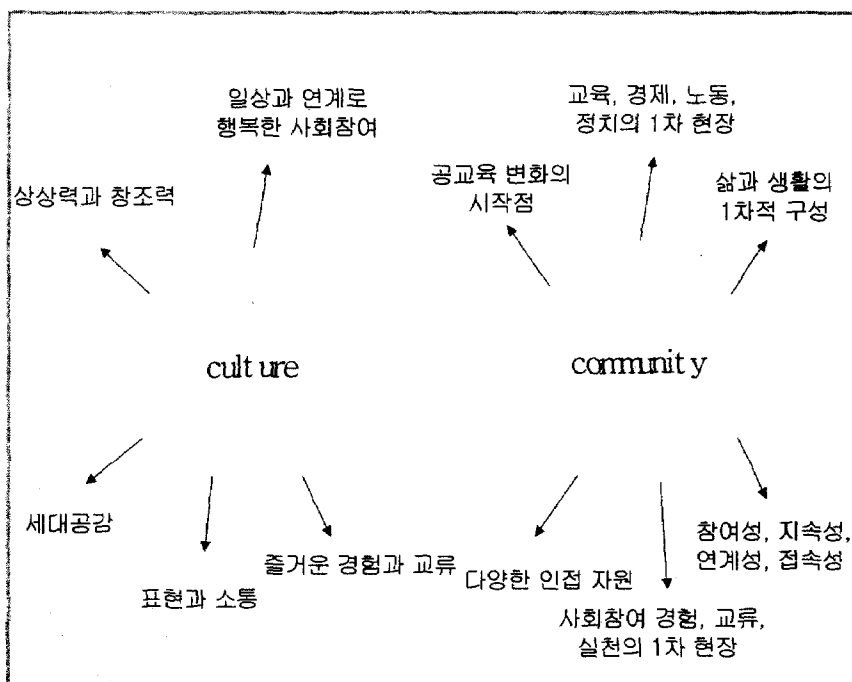
라.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하여 공감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연합하여 단체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충족하면서 강북구 청소년단체연합조직을 만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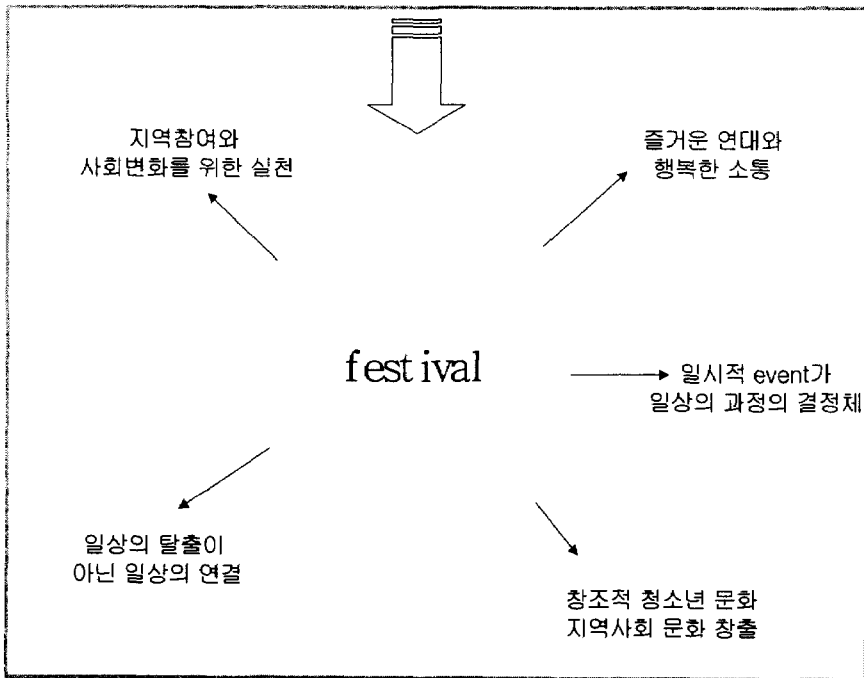
3)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성장과정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秋樂)”의 1회부터 7회까지의 진행

과정을 성과, 발전 과제 제안, 조직구성으로 구분하여 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중요한 지점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즐거운 자율참여와 행복한 세대 공감, 아름다운 지역사회공동체 만들기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청소년문화축제의 기본 전개 모델로 그 제안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Ⅲ-1>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개념도





1회 청소년거리축제

주요 성과

- 강북구 최초 거리 축제 시도
- 강북지역 문화충격
- 청소년문화활동의 동기화
- 지역단체들의 최초 공동사업 진행 시도
- 추진 단체별 특성을 인정하고 조율을 통해 공동사업에 대한 가능성 확인
- 99년 축제에 대한 구청의 재정지원금 획득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기초적 기반 마련

발전 과제 제안

- 참여, 전시마당 운영 외 청소년들의 참여 폭의 확대
- 지역 공동사업으로서 적극적 참여를 위해 지역 단체들의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이해가 필요

조직 구성

< 추진위원회 >

- 북부열린시민회
- 햇살 청소년회
- 품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

< 후원 >

- 강북구청, 기타 지역 내 단체 및 기관

2회 강북구 청소년거리축제

‘밀레니엄, 우리가 만드는 축제’

주요 성과

- 자치 단체의 참여 및 재정 지원
- 재정확보, 자원봉사단구성 등 진행상의 발전
- 단체간의 이해의 폭을 넓힘
- 축제 구성 내용과 참여 폭을 확대 및 다양화

발전 과제 제안

- 공동사업으로서 단체간의 협성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 필요
- 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
- 지역 내 인지도 확보 필요

조직 구성

< 추진위원회 >

-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 햇살 청소년회
- 품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 - 전교조

< 후원 >

- 강북구청, 기타 지역 내 단체 및 기관

3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강북청소년거리축제 ‘너나노니’

- 너를 위한 나를 위한 내가 위한 내가 위한

주요 성과

- 백화점식의 똑같은 축제를 벗어나 정보와 주제를 담은 새로운 방향의 청소년 축제 시도
- 지역단체들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로 축제 규모와 참여 범위의 확대
- 지역단체들의 원활한 역할 나눔과 수행
- 청소년 축제 기획단 구성

발전 과제 제안

- 특성있는 지역축제로서 지역 단체들의 단순 참여와 역할 수행을 넘어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근본적 고민의 확대가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고정화된 축제를 변화시켜도 필요
- 청소년들의 자발적참여를 통해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축제 마련
- 청소년 축제 기획단의 주체적 과정참여 계획이 필요
- 체계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가 필요

조직 구성

-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 전교조북부지회
-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 도봉시민회

< 후원 >

- 강북구청, 기타 지역 내 단체 및 기관

4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 樂’

주요 성과

- 자치단체 외 공모를 통해 재정 확대 확보
- 지역 사회자원의 발굴 및 활동 공유
- 청소년문화포럼 실시를 통한 청소년문화활동 사례 공유와 장기적 발전 방향 모색
- 청소년기획단의 실질적인 기획 활동을 위한 활동을 마련
- 청소년축제를 기획하는 기획단으로서 정체성 확보
- 청소년축제로서 지역 학교, 청소년동아리와의 연결망 형성
- 청소년,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역청소년 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인지도 상승

발전 과제 제안

- 축제 주제와 틀 변화에 대한 지속적 고민의 장 마련
- 질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 조직 운영 체계 마련 (동아리, 자원봉사, 추진위원회, 청소년 기획단)
- 청소년기획단 체계 정비 및 기획교육의 강화

조직 구성

<추진위원회 주관단체>

- 일린사회복지시민회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풍정소년문화공동체 - 변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참여단체>

- 강북청소년수련관 - 녹색살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 돌산청소년센터'판' - 사이버삼당실 청소년세계

<청소년>

- 청소년축제기획단'노을자'

5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 樂’ - EXIT

주요 성과

- 지역축제로의 확장을 위한 공동의 합의지점 도출
-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지역 청소년 축제 이미지에 대한 각인
- 일상 탈출을 위한 축제가 아닌 주제를 통한 일상의 축제로 고민 시작
- 단체 실무자간의 신뢰관계 형성
- 지역사회 청소년 거리문화축제 모델로 제시
- 타 지역 축제 모델로 적용

발전 과제 제안

- 지역축제로서 지역단체들의 가을 행사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참가동아리, 자원봉사자 체계적 운영계획 마련 필요
- 지역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 선정
- 마당날 주제에 맞는 독창적 마당 구성 필요
- 추진위 단체차원의 축제의 필요성 공감 노력

조직 구성

<추진위원회 주관단체>

- 일린사회복지시민회 - 변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풍정소년문화공동체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강북청소년수련관 - 돌산청소년센터'판'
- 녹색살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 변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사이버삼당실 청소년세계

<후원>

- 서울시 - 아이들과 미래 - 강북구

- 청소년축제기획단'노을자'

6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 樂'

“불만있습니다!”

주요 성과

- 실질적인 지역축제로의 확장을 위해 지역단체 사업과의 연결 시도
- 기획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축제기획 참가 기회 확대
- 참가동아리 대표자 모임 체계 마련을 통한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네트워크의 활성화 도모
- 일상의 활동을 위한 축제가 아닌 다양한 일상의 주제를 담은 issue의 장으로 자리 매김 Ex) 청소년 인권, 학교인권에 대한 주장
- 축제 기획 자치동아리로서 교육, 활동과정의 체계적 기틀을 마련
- 청소년문화기획아카데미 개최를 통한 교류 및 사례 공유 계기
- 강북지역사회 관련 11단체가 지역협의회의 구성 계획 제시

발전 과제 제안

- 축제 규모와 참여 단위의 확대로 축제 기획단의 자치기획활동의 적정 수위 조절 필요
- 지역축제와 청소년축제로서의 확장을 위한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노력 필요
- 지속적인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정기적 모임 '지역복지협의회(가)' 구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 필요

조직 구성

<추진위원회 주관단체>

- 열린사회북부시민회
-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 녹색살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아동복지센터 '둥근나라'
- 청소년문화공동체
- 돌산청소년센터 '판'
- 청소년과 사람사랑

<후원>

- 서울시
- 강북구
- 다음세대
-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 참가동아리 대표자 기획모임
- 기획자원봉사자 모임

7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 樂'

‘겉멋든 세상에 추락 바이러츠’

주요 성과

- 청소년축제 + 지역통합축제로 확대
- 축제기획단의 청년단위 구성 'old boy' (인적자원의 확대)
- 지역참여단체 강북지역복지협의회 창립
- 지역단체 공동사업 실시 지역 공동의 사업추진 가능성 확인
- 축제기획단 지역축제로서 '추락'의 확대 필요성 인식
- 참가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의 축제 기획과정 참여 확대

발전 과제 제안

- 청소년과 지역단체(사회)와의 대등한 파트너쉽과 소통을 위한 접점 찾기
- 외형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를 위한 고민
-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제별 축제 고민

조직 구성

<추진위원회 주관단체>

- 열린사회북부시민회
-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 녹색살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아동복지센터 '둥근나라'
- 청소년문화공동체
- 돌산청소년센터 '판'
- 청소년과 사람사랑

<후원>

- 서울시
- 강북구
- 다음세대
- 북부경찰서
- 강북구 각 동사무소
- 지역상가협의회
- 교통봉사대
-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 참가동아리 대표자 기획모임
- 기획자원봉사자 모임

이상과 같이 7년간의 강북청소년문화축제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은 타자의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4) 축제 단위별 성장 및 발전 과정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통한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단위가 연대 및 협력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든든한 지역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이다. 추락의 기획과정에는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지역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의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청소년 문화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자원봉사자, 참가동아리 기획모임을 구성하여 그 모임을 확대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이런 활동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예산과 운영방식도 여러 단위의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단위이다. 아래에 추락의 단위별 발전과정과 성과 및 발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1) 지역네트워크의 성장과정

1998년 1회 축제부터 2000년 지역 복지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2003년부터 강북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성북교육청과 학교와의 연계, 2004년 강북지역복지협의회 발족까지의 매회 참가단체, 주요성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998년 제1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참가단체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햇살청소년회, 품청소년문화공동체
주요성과	/ 축제를 제안한 지역단체 3곳으로 네트워크를 시작 / 강북구청의 장소후원

'98
청소년
거리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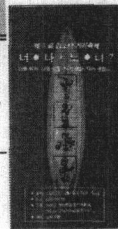
첫 번째 축제 시도를 통해 강북구의 재정지원과 지역기관들의 관심을 얻어 내며 지역내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1999년 제2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참가단체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햇살청소년회, 전교조북부지회, 강북구청, 품청소년문화공동체
주요성과	/ 98년 축제를 계기로 축제의 취지와 방향에 동참하는 단체 확대 / 강북구청에서 행사비 중 일부의 재정적 지원과 장소 후원



2회에 걸친 축제를 통해 지역 단체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는 늘었지만 각 기관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0년 제3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참가단체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도봉시민회, 번2단지복지관,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전교조북부지회, 품청소년문화공동체, 강북구청
주요성과	/ 자발적인 지역단체(복지관)의 참여증가



지역복지관들의 참여는 축제의 규모와 내용이 안정적으로 확장 될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네트워크 기관들이 각자 자신들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전체로 통합되지 못하면서 축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년에 비해 지역내의 인지도 역시 떨어지면서 지역의 특징적인 축제로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1년 제4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樂'	
참가단체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번2단지복지관,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품청소년문화공동체,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사이버상담실 청소년 세계, 들산아동청소년센터 '판',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청
주요성과	/ 실질적, 지속적 지역네트워크 구성하기 위한 지역조사 실시,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체 발굴 및 축제를 통한 연계 /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장기적인 지역복지연대모임 발전방향 제시



3년의 네트워크 구축 과정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축제의 상과 추진위원회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복지협의체로서의 장기적 상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 기초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 설득과정을 거쳐 네트워크를 확대하게 되었다.

2002년 제5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樂' - EXIT	
참가단체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청소년과 사람사랑, 들산아동청소년센터 '판',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청, 품청소년문화공동체, 강북구청
주요성과	/ 지역사회네트워크에 대한 공동의 마인드 및 지역청소년 전반에 대한 시각형성을 위한 정기모임 실시 / 축제추진위원회 체계 및 역할 정비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한 역할 나눔이 있어야 했다. 정기적인 추진위 모임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축제 중심의 역할 공유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3년 제6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불만있습니다”	
참가단체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번2단지종합복지관,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품청소년문화공동체,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청소년과 사람사랑, 아동복지센터 ‘둥근나라’, 돌산아동청소년센터 ‘판’,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청
주요성과	/ 실질적인 지역축제로의 확장을 위한 지역 단체 사업과의 연계 /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과 학교연계시도



정기적 모임의 어려움으로 축제 중심의 모임을 구성에 합의하고, 지역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단체별 사업을 풀어낼 수 있는 실질적 연계가 필요했다. 축제 내용 가운데 지역장터라는 코너를 마련하게 되면서 지역네트워크 단체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공동사업의 마인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강북구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해 지역단체사업들이 학교와 연계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교육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단체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면 지역단체 간 사업을 공유하며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2004년 제7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걸뚫든 세상에 추락바이러스’	
참가단체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돌산아동청소년문화센터‘판’, 아동복지센터‘둥근나라’, 번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청소년과 사람사랑, 품청소년문화공동체, 성북교육청, 강북구청, 지역 학교 5곳
주요성과	/ 6년간의 축제추진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복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강북지역복지협의회를 발족 / 축제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공동논의 공동 사업 추진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계로 진행지역과 교육청, 학교와 네트워크 확대



지역단체들의 사업과 축제연계는 축제 참여마당에 다양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세대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일상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뿐만 아니라 단체사업간의 일상적 사업연계와 공유,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7년간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은 청소년축제에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형성을 위한 작업이었다. 아울러 축제의 내용도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화제성을 지니며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축제를 일상화된 형태로 이해되도록 지역기관간의 신뢰와 안정적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일상적인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는데 큰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청소년 참여의 성장과정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성장은 지극히 기본적인 조건이다. 추락은 축제청소년기획단 노을자를 중심으로 지역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의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더 많은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활동 기회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축제참가동아리 대표자 기획모임과 기획자원봉사모임을 구성하였다. 그 모임들의 제안배경과 성과 및 발전과제들을 아래 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①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제안배경부터 청소년의 주체적 기획, 진행, 평가 과정 참여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 하지만 과정상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문화활동 경험의 부재와 기획이라

는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기에 그 발전과정과 발전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표 III-2> 청소년축제기획단 축제 참여에 대한 성장과정

년 도	활동 내용	성과 및 발전과제
1998	/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자들이 축제 전 과정 기획, 진행	/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 확대 필요
1999	/ 축제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단으로 구성	/ 청소년들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
2000	/ 축제추진위 기관의 청소년들을 모집을 통한 기획단 구성 /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그 과정에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과정	/ 기획단 운영을 위한 체계적 계획마련이 필요
2001	/ 품을 중심으로 강북지역 청소년 기획단 모집 및 활동 틀 마련 - 기획교육 (문화행사 기획을 위한 기초교육) - 축제 모니터 - 축제기획과 진행, 평가 - 외부 문화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 추진위 단체 소속의 동아리가 아닌 강북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기획단으로써의 성격과 활동의 틀을 마련 / 청소년축제기획단으로서 체계적 기획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2002	/ 다양한 경험을 통한 주체적 시각과 자치적 기획단으로서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활동 체계 및 교육과정 마련 - 기획교육 · 축제기본교육 [청소년문화축제란?] · 기획단 팀별교육 [참여, 전시, 문화제, 홍보, 영상] - 축제모니터링 - 축제기획과 진행 및 평가 - 동아리 대표자 모임 기획, 진행, 평가 - 외부 문화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 주제가 있는 청소년문화 축제로서의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청소년들의 참여기회의 확대 필요

년도	활동 내용	성과 및 발전과제
2003	/ 다양한 기획교육을 통한 기획단의 기획 능력 향상과 자치동아리로서의 자치적인 운영틀 구성을 위한 활동 계획 마련 - 기획교육 · 축제 기본교육 [청소년문화축제란?] · 기획단 팀별교육 [참여, 전시, 문화제, 홍보, 영상] - 청소년문화기획아카데미 과정 참여 - 축제모니터링 - 동아리 대표자 모임 기획, 진행, 평가 - 기획자원봉사자 모임 기획, 진행, 평가 - 축제기획과 진행 및 평가 - 외부 문화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 축제추진위와의 축제 논의 과정 마련 / 참가동아리 모임과 기획 자원봉사자 모임 구성으로 축제 기획과정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 자치동아리로서 청소년축제기획단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과 목표수위 조절이 필요 / 축제의 장기적 지역축제로서의 성장 방향에 대한 이해와 합의과정이 필요
2004	/ 지역축제로의 시각 확대와 자치적 축제 기획을 위한 기획교육과정 확대 마련 - 기획교육 · 축제 기본교육 [지역사회알기][청소년문화축제란?] · 기획단 팀별교육 [참여, 전시, 문화제, 홍보, 영상] - 전문기획교육 [청소년축제 기획에서 평가까지] - 청소년문화기획아카데미 과정 참여 - 축제모니터링 - 동아리 대표자 모임 기획, 진행, 평가 - 기획자원봉사자 모임 기획, 진행, 평가 - 축제기획과 진행 및 평가 - 외부 문화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축제의 지역적 필요성 인식, 지역축제로서 확대 고민 시작 / 청년단위(노을자 선배)의 기획단이 구성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됨 / 기획자원봉사자, 참가동아리 기획모임을 통한 지역 청소년문화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 지속적인 연계계기 마련 고민 필요

② 참가동아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의 공유와 제안의 자리로써 참가동아리대표자 기획모임을 구성하였다.

<표 III-3> 청소년 참가동아리 축제 참여 성장과정

년도	활동 내용	참가동아리 수
1998 - 2000	/ 각 학교 CA, 동아리 중심 연계 - 전시마당, 문화제마당 참여	약 10여개팀



2001	/ 청소년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참여의 기회 마련 - 참가동아리 대표자모임 구성 - 동아리 순회촬영, 교사모임, 동아리 방문 - 교사모임	20팀
------	--	-----



2002	/ 참가동아리 대표자 모임을 통해 청소년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합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 활동 제안을 시도 - 참가동아리 대표자모임 - 동아리 순회촬영, 교사모임, 동아리 방문 - 교사모임	30팀
------	--	-----



2003	/ 주제가 있는 축제로 성장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가 담긴 기획과정의 동아리 참여 기회 확대 - 참가동아리 대표자모임 5회 실시 : 축제 주제 선정, 평가 과정 참여 - 동아리 순회촬영, 동아리 방문 : 동아리 합동문화활동 시도	35팀
------	--	-----



2004	/ 지역청소년문화네트워크 형성 계기마련 - 참가동아리 전체오리엔테이션 - 참가동아리 대표자 모임 : 축제 주제 선정, 주제표현 기획 및 추락 당일 공연 진행, 참가동아리 연합공연 기획, 추락 평가 - 동아리 순회촬영, 동아리 방문	47팀
------	--	-----

2001년 이후 3년간 진행된 동아리대표자 기획모임은 적극적인 의견 제시의 기회이며, 동아리간의 정보와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발전 과정과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참가동아리 기획모임은 동아리들이 단순 공연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새로운 공연방식들의 시도를 통해 주체적 문화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③ 자원봉사자

축제 과정에 많은 부분 청소년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표 III-4> 기획자원봉사자 축제 참여성장 과정

년도	활동 내용	자원봉사자 수
1998 - 2002	/ 축제 진행을 도울 당일 자원봉사자 모집 / 축제 당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짐	매년 약 80명



2003	/ 지역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당일 자원봉사가 아닌 축제 기획과정에 참여할 기획자원봉사자 영역 마련 - 주제 선정 - 참여마당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 - 사전 축제 홍보활동 - 참여마당, 전시마당 준비과정 참여	100명 / 당일 자원봉사자 : 80명 / 기획자원봉사자 : 20명
------	--	---



2004	/ 축제 전 과정 및 참여마당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 주제 선정 - 참여마당 프로그램 아이템 및 기획회의 - 사전 축제 홍보활동 - 참여마당 준비 및 진행 참여	80명 / 당일 자원봉사자 : 75명 / 기획자원봉사자 : 5명
------	--	---

단순한 보조자적 역할이 아니라 즐거운 자치적 참여의 기회이며, 축제 기획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자원봉사자를 구성하게 되었다.

기획자원봉사자는 동아리활동과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축제준비과정에 참가하고 싶거나,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에게 축제기획과정에 대한 참여와 새로운 문화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주제에 담고자 마련된 모임이다. 축제 참여마당 프로그램기획과 주제선정, 당일 참여·전시의 담당자로 활동하게 된다. 축제 당일 자원봉사자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축제당일 참여와 전시, 거리홍보 프로그램들의 당일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원봉사자의 수적 확대보다 역할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3) 축제의 구성 및 내용의 확대

7년간 축제의 과정을 통하여 획일화되어가고 고정화되어 가는 많은 축제들 사이에서 지역적이며 지속적인 청소년문화활동의 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의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제1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길놀이		/강북·노원지역 학교 CA반과 동 아리와 연계하여 전시, 공연마당 구 성
고사식	축제의 성황리에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기원	
발대식	청소년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여마당	난장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마당	
선포식	행사가 열리는 수유역일대의 거리를 청소년의 거리로 선포	
우리마당	각 학교 CA반, 동아리 연계 공연	
축하마당	인디록 밴드	
뒷마당	뒤풀이 마당	

제2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밀레니엄, 우리가 만드는 축제'		
1부	길놀이	
	고사식	축제의 성황리에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
	발대식	청소년자원봉사자 발대식
2부	참여마당	난장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마당
	전래놀이 마당	새끼꼬기, 제기차기 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마당
	전시마당	지역 학교 CA반과 동아리 연계 전시물에 주제를 정해 전시작품을 통해 주제를 전달 하도록 함.
3부	선포식	행사가 열리는 수유역일대의 거리를 청소년의 거리로 선포
	문화제	각 학교 CA반, 동아리 연계 공연
	축하마당	인디록 밴드
	뒷마당	뒤풀이 마당

제3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너·나·노니' 너를 위한, 나를 위한, 너가 위한, 내가 위한...		
길놀이		/ 건강한 자원봉사 활동을 주제로 건강한 자원봉사활동 문화정착과 자원봉사 거리개발, 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대안마련을 위한 축제내용 구성
단심줄꼬기	축제 무사고 기원	
자전거행진	건강한 자원봉사 활동 정착을 위한 캠페인	
풍물잔치	풍물패들의 대동판 만들기 /학교별 공연	
참여마당	걸개그림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 요리경연대회 /전래놀이	
전시마당	장애 청소년 작품전시마당 /자원봉사 관련 부스 /청소년벼룩 시장	
길거리 농구대회	토너먼트 경기	
어우러짐 마당	문화제 알리는 합성	
문화제	선포식 /공연마당 /배움마당: 수화, 율동 /축하공연	
달는 마당	대동의 장	

지역사회의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보이며 청소년과의 소통의 장으로 주제를 담기위해 시도하였다.

제4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樂'		
길놀이		/ 청소년들의 축제 기획과정 참여 확대 - 청소년 기획단의 기획활동을 통한 참여마당 프로그램 마련
풍물잔치	대동판, 풍물 팀별 공연	
참여마당	난장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마당	
전시마당	강북, 도봉지역 중고등학교 동아리 전시공연	
농구대회	토너먼트 경기	
문화제	/ 선포식 / 공연마당 / 축하공연	
대동놀이	뒷풀이 마당	

축제기획단의 참여를 통해 참여마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였다.

제5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秋樂 ‘EXIT’		
길놀이		/ 지역단체 자체 가을 축제와 연계 -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선포식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 선포의 자리	
1부 문화제	청소년 동아리들의 거리문화공연	
참여마당	참여프로그램 /먹거리 녹색 재활용센터“재활용축제”	
전시마당	강북, 도봉지역 중·고등학교 동아리	
2부 문화제	영상, 락, 무용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무대공연	

지역단체들의 사업과 축제 연계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며 참여, 전시마당의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었다.

제6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불만있습니다’		
길놀이		/ 지역단체 자체사업과 연계, 지역장터 한마당 구성 / 다양한 세대 참여의 폭 확대 / 주제관련 참여, 전시마당 마련
선포식		
1부 문화제	청소년 동아리들의 거리문화공연	
참여마당	/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참여 프로그램 진행 -교과서만들기,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등	
전시마당	강북, 도봉지역 청소년 동아리	
지역장터 한마당	/ 지역단체 연계 프로그램 -장터, 바자회, 먹거리 마당 등	
2부 문화제	주제 표현 공연	

지역축제로의 확대와 이슈가 있는 지역청소년문화축제로서 많은 의미를 프로그램에 담고자 하였고, 지역추진위원회 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축제 안에 지역마당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7회 강북청소년거리축제 '걸멋든 세상에 추락바이러스'		
길놀이		/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선포식		
1부 문화제	/ 청소년 동아리들의 거리문화공연 - 풍물, 밴드, 댄스의 3개 무대 동시공연	- 청소년동아리 뿐만 아니라 아동, 어르신까지 공연 참여의 폭 확대 - 지역마당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된 마당구성 / 주제표현을 위한 기획공연 - 풍물, 댄스, 밴드 등의 연합 공연, 주제표현 퍼포먼스
참여마당	/ 주제관련 참여 프로그램 / 지역단체의 자체사업 연계 - “놀이터 책잔치 글마당”, “대안생리대 만들기” 등	
전시마당	/ 주제표현 작품 전시	
2부 문화제	/ 걸멋든 세상에 추락바이러스 기획공연 - 풍물연합, 밴드·댄스 등 연합공연 / 대동놀이	

지역마당과 청소년마당의 경계를 없애고 지역단체들의 사업과 연계하여 축제과정에 주체적 참여와 지역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

(4) 지원주체 및 예산의 확대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부분이 예산과 지원주체이다. 예산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협의체처럼 정확한 주관단체가 없을 경우 예산 확보와 관리의 어려움은 축제의 성장과정에도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축제 주관단체의 예산 확보와 관리 역할 비중이 매우 크다. 관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지역문화축제로서의 가능성과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놓

처선 안 되는 자원이다. 추락의 예산의 확대와 그 과정을 제시하였다.

<표 III-5> 축제지원주체 및 예산 확대과정

년도	지 원 주 체	예 산
1998	/ 축제 주체단체 공동 자부담	1,200,000
1999	/ 축제 주체단체 일부 공동 자부담 - 성북교육청 - 강북구청	5,000,000
2000	/ 축제 주체단체 일부 공동 자부담 - 강북구청	7,000,000
2001	/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지원비 확보 - 강북구 - 서울시 자치행정부 - 아이들과 미래 - 시민회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조사용역	25,000,000
2002	- 강북구 - 서울시 자치행정부 - 아이들과 미래	30,500,000
2003	/ 기획단의 자체 프로포절 제출로 활동비 확보 - 강북구 - 서울시 자치행정부 - 다음세대재단	39,490,000
2004	- 강북구 - 서울시 자치행정부 -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금 - 다음세대재단	37,000,000

5) 제7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분석

- ‘추락’ [겉멋든 세상에 추락바이러스] -

제7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는 7년간 강북청소년문화축제의 외

형적 성장과 단위별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축제이며, 더 이상 외형적 성장이 아닌 일상의 지역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계기를 준 축제이기에 제7회 강북청소년 문화축제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1) 축제의 목적과 목표

①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과 지역축제의 통합 및 확장을 통한 지역문화복지공동체 형성기반의 마련

하위목표 1. 6년간의 지역 청소년문화축제를 통해 형성된 축제추진위를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의 기반으로 지역단체협의체로 발전.

하위목표 2. 지역 내 문화복지단체들이 자체행사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여 개별 단체들이 보다 주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문화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되며, 중복된 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

하위목표 3.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축제를 통해 세대간의 통합과 문화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

② 청소년축제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주체적 문화활동 활성화

하위목표 1. 청소년문화축제 기획단의 내실있는 문화자치활동과 주체적인 지역문화행사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의 주체로 양성.

하위목표 2. 축제에 참가하는 참가동아리, 자원봉사자들의 축제기획 참여와 지역문화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화활동의 기회제공, 청소년문화활성화의 기틀마련.

하위목표 3. 지역 내 축제기획동아리, 참가동아리, 자원봉사자들의 교류를 통해 청소년 문화활동 네트워크 기반 마련.

(2) 사업 추진 방향



(3) 2004년 축제진행계획

세 부 사 업		추진시기 (월단위)	주 요 추 진 내 용
축제 추진위원회 (지역복지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6월 - 10월	- 지역단체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에 대한 특강·토론 -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역할과 필요성 에 대한 강의·토론 - 지역사회문화축제 만들기를 위한 특강
	지역축제 준비과정	6월 - 8월	- 강북청소년문화축제와 지역단체의 가을 축제 및 문 화활동 지원사업의 연결을 위한 논의 - 축제의미·내용 공유 및 역할 분담
	축제 참여	9월	-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樂
	평가회	10월	- 축제 평가 및 제언 -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성화 를 위한 사업적 연계 논의
축제 청소년 기획단 '노을자'	축제기획 및 진행	6월 - 9월 (9월 18)	-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기획 / 진행
	축제 평가회	9월 -10월	- 동아리, 자원봉사자 평가모임 준비 - 평가 및 설문지를 조합한 축제 평가
	문화기획 교육	5월 - 8월	- 축제모니터와 평가교육 -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축제기획단으로서 대표성 부여를 위한 교육 - 기본 기획 교육 (기획의 의미부터 기획서 작성법까지 기획전반에 대 한 개념정리 / 실습) - 축제 진행준비팀별 역할 구분과 교육 - 팀별 심화교육
	축제 모니터링 활동	5월 - 6월	- 지역축제 / 청소년문화축제 2가지 예정
	자원봉사 활동	5월 10월 - 11월	- 지역 문화행사 staff 활동 (어린이날 행사) - 서울시 청소년 연극축제 staff 활동
	기타활동	5월	- 기획단 인증 및 발대식
		6월 - 8월	- 축제 참가동아리 대표자모임 및 자원봉사자 모임 기획 및 진행
		11월 - 12월	- 문화활동 : 공연관람, 문화행사 참여 등
		2005년 1월	- 청소년겨울캠프 참여
		5월	- 기획단 M·T 및 단합 대회

세부사업		추진시기 (월단위)	주요추진내용
축제 참가동아리	동아리 모집	6월	- 지역 청소년문화활동 동아리 모집
	청소년문화활동 동아리지원	7월 - 9월	- 축제에 참가하는 지역청소년문화활동 동아리에 지원금 지급 - 유사동아리간 활동 연결
	동아리 순회 및 대표자 모임	7월 - 8월	- 동아리 순회방문(기획단이 진행) : 동아리와 축제 진행에 관한 논의 동아리활동 영상 담기 - 대표자 모임 : 동아리 대표자들과 축제 주제와 축제 기획에 대한 논의
	축제 참가	9월 18일	-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樂 참가
	평가회	9월 - 10월	- 축제 평가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모집	6월 - 7월	- 축제에 참가할 청소년,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임	7월 - 8월	- 축제 내용과 방향성 공유 - 축제 기획과정에 부분적 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기획교육 - 축제 당일 자원봉사자 역할 분담
	축제 기획과정 참여	7월 - 9월	- 축제준비과정에 부분적 기획참여 (마당별, 코너별로 가능한 부분에 참여)
	축제 참가	9월 18일	-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樂 참가
	평가회	9월 - 10월	- 평가회 참가 및 설문평가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樂'		9월	- 지역청소년문화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확대 한다. - 문화활동들(축제, 문화활동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축제들을 통합하고 지역의 문화활성화를 도모한다.

(4) 축제진행과정

① 축제추진위원회

축제 추진위는 지역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모임으로 지역청소년문화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축제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해주며, 축제의 방향을 함께 잡아가는 실질적 지역 네트워크의 구성 단위이다.

가.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모임	내용
1차 모임 3월	/ 강북복지협의회 발족식 - 지역단체 및 강북구청 11개 단체 참여
2차 모임 6월	/ 강북복지협의회 워크숍 - 단체 실무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 단체별 사업 공유 및 사업 계획공유 - 강북 지역사회 현 상황과 협의회 방향성 잡기

나. 축제 준비과정

모임	내용
5차 회의 9월 1일	/ 단체별 축제 진행과정 공유 - 단체별 협조 요청 사항 공유 및 점검 / 협의회 공동 팸플릿 제작 계획 및 협조사항 공지 - 역할 나눔과 제작 계획 / 강북복지협의회 '나눔장터' 진행과정 공유 - 운영 역할 나눔, 당일 진행 계획 수립 / 축제 홍보에 대한 협조사항 공지
6차 회의 9월 10일	/ 단체별 축제 진행과정 공유 및 협조 요청 사항 공유 점검 / 지역단체 팸플릿 제작 진행상황 공유
7차 회의 9월 14일	/ 행사당일 콘터를 바탕으로 당일 진행 과정 점검 - 물품, 참가동아리, 문화마켓 운영 등 세부적 점검

② 청소년기획단 및 동아리, 자원봉사자

추락 청소년축제기획단을 중심으로 축제 전반적인 기획, 진행,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 지역청소년축제로 더 많은 청소년의 목소리와 생각을 담고자 참가동아리대표자 기획모임과 기획자원봉사자를 모집, 지역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 기회의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 청소년기획단 모집 및 구성

시 기	내 용
모 집 3월	/ 지역에 거주·재학 중인 예비 中3, 高2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와 청소년 기관, 시설에 모집 홍보 / 방문면접 후 선발 / 12명의 청소년 기획단 구성
발대식 & M·T 5월	/ 기획단 인증서 수여 및 책임감부여를 위한 발대식 / 노을자 소속감주기, 연간 활동계획공유 및 새내기 노을자 환영식

나. 기획교육 및 기획준비과정

시 기	내 용
기획교육 6월-7월	/ 축제기획단으로서 기획단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역사회 축제, 축제기획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총 4회 실시
축제 모니터링 5월-7월	/ 다양한 이슈가 있는 축제 모니터링을 통해 축제 현장감을 익히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축제에 담아내고, 청소년 문화생산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축제 모니터링 6회 실시 [안티미스코리아,홍대프리마켓,평택평화축제,프린지페스티벌,인권영화제,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
축제 참가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 모집 6월-7월	/ 강북·도봉지역 학교, 시설, 기관을 대상으로 축제 참가동아리 및 청소년기획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 청소년동아리 47팀, 기획자원봉사자 10명 모집

다. 축제 세부기획과정

참가동아리와 기획자원봉사자와의 기획모임 진행을 통해 축제의 주제와 기획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 노을자는 기획모임 참가자들이 주제선정과 축제와 관련된 의견을

많이 제안 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영상, 파워포인트 등)을 통해 기획과정 참여를 돕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축제 기획서 작성 및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일곱 번째 추락은 40여개 동아리들이 모집되었고 효과적인 동아리 대표자 모임을 위해 분야별(댄스, 풍물, 밴드 등)로 팀을 나누어 기획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시 기	내 용
참가동아리 · 기획자원봉사자 기획모임 7-8월	/ 축제의 주제 및 축제 마당 구성 결정 / 주제표현, 공연연합 등 동아리별 의견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기회를 마련 / 축제의 전 과정에 대한 의견공유 및 축제 공동기획 / 동아리 활동 지원금 지급
축제기획단 기획모임 7-9월	/ 참가동아리 · 기획자원봉사자 기획모임 기획 및 진행 : 주제정하기, 축제 마당별, 전체 틀 구성 / 동아리 · 기획자원봉사자 기획모임을 바탕으로 팀별 기획 : 홍보, 영상, 전서, 참여, 문화제 / 축제 전체 세부진행 기획 회의 / 장소답사
축제 준비과정	/ 축제 홍보 -인터넷, 언론(잡지, 신문, 방송국), 거리홍보 / 축제 당일 청소년,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역할 계획, 오리엔테이션 / 추락 물품 구입 및 제작

라. 축제 당일 및 평가

매년 설문지를 통한 평가과정을 가졌었지만 일곱 번째 추락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청소년기획단과 참가동아리, 자원봉사자와 평가모임을 통해 축제 진행과정부터 전반적인 문제점과 제안을 나누는 토론식 평가모임을 가졌다.

<표 III-6> 당일 전체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3:50 ~ 14:20	길놀이 및 축제 선포식	/ 축제에 참가하는 동아리들이 수유역 주변을 돌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진행 / 축제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일곱 번째 강북청소년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림
14:00 ~ 18:00 14:00 ~ 18:00	1부 문화제	/ 축제의 낮 거리공연 진행. 3개의 무대 (구파파이스 앞 골목, 닭갈비, 구청 분수대 방면 거리) 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3개의 무대공연이 동시에 진행 / A무대(닭갈비골목) : 밴드,댄스 / B무대(지오단오골목) : 풍물, 댄스 / C무대(구청공영주차장 골목) : 밴드
	참여마당	/ 전체 마당은 청소년의 목소리라는 부제를 바탕으로 진행 / 참여 프로그램들은 기획자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아이템들로 구성 진행 / 지역마당의 구분을 없애고, 축제 곳곳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축제마당에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 진행 / 중앙 :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대안샐리대만들기'놀이터 책잔치, 강북청소년수련관'난나'먹거리,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먹거리' / A zone : 버퍼링99%, 우리가 그림 추락,번3단지'악물오'남용 캠페인' / B zone : 칠판을 공격하라, want you?, 멋대로 써봐, 우리가 그림 추락, 스타만들기, 추락바이러스에 감염시키기, 돌산아동청소년문화센터 판'진전한 우리 먹거리', 강북청소년수련관'난나'나눔가게,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심리상담, 강북복지협의회'나눔장터' / C zone : 뭐라고 지껄이는거야, 내가 골목대장, made in 바이러스, 우리가 그림 추락, 쉽티, mission을 수행하라,
	전시마당	/ 지역 동아리 전시작품 전시 등 - 수유중학교'동인', 성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성암만화그리기반''코스프레반', 성암여자중학교'빛그림', 번2단지 종합복지관'행복한 학교지킴이' / 액자형 전시 기본틀을 깨고 슬라이드와 조형물을 통해 공간과 시각적 전시를 진행
17:00 ~ 21:30	2부 문화제	/ 공연마당 / 강북구청 앞마당에 설치된 무대에서 저녁 무대공연을 진행 / 지역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각자 소속된 동아리를 벗어나거나, 동아리 간의 공동작업을 통한 연합 공연이 진행 / 축제의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해 낼 수 있도록, 공연방식도 일방향이 아니라 가능한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참여프로그램과 함께 진행 - 불협화음, 영파워, 가사따라하기, 안무따라하기 풍물 켜
	행사장 정리	/ 행사장 전체 철수 및 정리

시 기	내 용
강북청소년문화축제 ‘秋樂’ 9월 18일	/ 일곱 번째 강북청소년 문화축제 『 걸땀든 세상에 추락바이러스 』 - 1부 문화제 : 말 많은 바이러스 마이크 대주기 - 참여마당 : 추락 바이러스 해집고 다니기! - 전시마당 : 추락 바이러스 눈 도장 찍기 - 2부 문화제 : 요절복통 추락 바이러스! 약 읊~따!
평가모임	/ 10월 8일 : 축제추진위원회실무자 평가모임 / 10월 16일 : 축제 기획단 평가모임 / 11월 13일 : 참가동아리·기획자원봉사자 평가모임

(5) 축제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축제에 대한 평가는 축제를 구성하는 주체들 추진위원회,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축제참가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각 평가토론을 통해 이루어졌고, 평가토론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축제참가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는 청소년참가자로 묶어 평가내용을 제안하였다.

① 추진위원회

제7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에는 강북지역복지협의회 참여단체 10개 중 7개 단체가 각 단체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참여·전시마당에 참여하였다. 축제과정에 각 단체별 사업연계 과정과 역할에 대한 평가, 앞으로 단체들의 사업 방향과 지역협의체로서 지속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안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가. 문제점 및 제안

㉠ 주관단체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업무

지역단체별 훈련된 실무자들이 축제당일 축제에 참여했음에도 자기 기관 부스 설치 및 진행에만 집중 배치되면서 주관단체와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관단체에게만 과도한 업무량이 집중되게 되었다. 각 지역단체의 사업 특성과 강점을 살려 축제 진행과정부터 주관단체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집중되는 주관단체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밴드동아리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밴드들의 기획모임, 축제준비, 축제당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축제의 부분들을 지역단체들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지역단체들에게는 자체사업이 지역단위의 문화활동으로 확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관단체에게는 과다한 업무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지역단체들과 청소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과정이 없었다.

지역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동아리나 청소년문화 활동사업들이 강북청소년문화축제와 연계되면서 활발한 지역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러한 활발한 활동들이 축제 준비과정에만 일어나거나 축제기획모임, 동아리 지원금 지급 등이 축제 참여 청소년들끼리만 소통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체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동아리가 서로 교류하지 못하거나 공동문화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강북지역복지협의회에 연계되어 있는 10개 단체외에 더 다양한 지역단체의 발굴과 연계노력이 필요

지역사회의 문화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공부방 등 지역에 더 많은 단체들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다

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의 지역사회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의 지역네트워크와 축제추진위 참여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장애인문화공연팀의 참여 등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나. 성과 및 시사점

㉠ 지역축제로서의 가능성 확인

지역단체들의 자체사업인 놀이터 책잔치, 대안생리대 만들기, 거리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축제와 연계되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였고, 지역사회 문화축제로 확대되어 지역사회 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확대와 축제에 참여하고 역할을 공유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의지 확인

지역 내에서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축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역단체실무자들이 각 기관의 청소년사업과 축제가 연계되어 연단위의 청소년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 또 이러한 의지들은 강북지역 복지협의체가 발족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에 가능했다.

㉢ 협의체를 통해 일상적 축제로서의 자원마련

지역사회에 있어 청소년사업이 가져야 할 공동의 방향을 끌어내고 지원해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강북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② 청소년 참가자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축제기획과 진행에 참여한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기획자원봉사자, 참가동아리 대표자들이 각각 평가토론의 자리를 가졌고, 축제진행의 흐름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기획단 모집부터 기획모임, 축제 당일 진행까지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축제 프로그램별에 대한 내용평가와 기획단과 올드보이, 추진위원회, 품과의 역할에 대한 평가로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가 직접 평가, 정리한 내용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이기 때문에 시사점은 제시되지 않았고, 총평을 통해 전반적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축제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모집 및 발대식

기획단 모집부터 모든 과정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어 기획을 처음 경험하는 노을자에겐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모집단계부터 총 6개월 정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3월에서는 6월초까지 기획교육과 축제 모니터링을 통해 추락과 기획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기획교육과 축제 모니터링은 바로바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 기획교육 및 축제 모니터링

기획이 무엇인지, 축제가 무엇인지, 기획단과 추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 기획교육이후 실제 6칸 기획서 작성 등의 실습이 축제 기획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선배들이 영상을 보고 설명한 6회까지의 추락과정은 추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추락의 역사성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올해 축제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진행계획을 함께 세운다면 새내기 노

올자가 부담감을 줄이고 더 쉽게 축제 기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발전하는 축제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㉟ 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 모집 및 기획모임

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 모집 선정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어 모집시기가 늦어졌다. 분명한 선정기준과 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 기획모임 운영 계획 및 노을자 내부의 역할 나눔이 필요하다. 또, 동아리 모집 기준을 통해 밴드 등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참여 동아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획일화된 모집 홍보방법(학교공문, 카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집대상을 정한 후 전략적 모집이 필요하다. 올해는 모집대상자가 많은 문화의 집에 직접 비디오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들고 찾아가 모집 및 홍보한 방법이 좋았다.

기획모임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분야별(댄스, 풍물, 밴드 등) 기획과정을 가지면서 참여자간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기획회의의 횟수를 좀 줄이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참가자 오리엔테이션과 기획모임 준비를 통해 노을자 모임기획 및 역할분담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참가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들에게도 문화기획교육과 축제모니터링 등의 추락외에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지역동아리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경험은 지역문화활성화와 새로운 축제 시도에 문화적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축제 홍보

노을자 내부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체계적 홍

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제가 있는 축제로서 주제전달을 위한 홍보는 홍보팀이 아닌 기획단 전체가 함께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추락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을자만으로 축제홍보가 어렵다. 노을자선배와 실무자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크게 언론사, 인터넷, 거리홍보로 나누어 역할 수행이 되면 좋겠다.

다. 축제 프로그램별 평가 및 제언

㉠ 길놀이, 선포식, 문화제 마당

길놀이와 선포식에 추락 주제가 잘 전달되지 못했다. 피켓이라는 확실적인 전달방법외에 다른 방식의 주제 전달 노력이 필요하다. 장르별(풍물, 댄스, 밴드) 3개의 무대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무대공연을 연출할 수 있었던 반면, 무대가 3개 동시 진행이 참여자들에게 복잡하고 어수선한 느낌을 주었다.

기획모임을 통해 함께 기획했지만, 동아리들이 약속을 어기면서 축제 진행과 전체 흐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분명히 함께 만든 과정이지만, 동아리들의 약속엄수와 책임감이 절실히 강조되고 대비책이 필요하다.

㉡ 참여·전시마당

축제의 프로그램이 단순 나열식이었다. 축제 안에 정말 우리가 의도 했던 주제들이 전달되지 못했다. 주제와 주제표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액자식 작품전시에서 사진 슬라이드 상영 등의 다양한 방식의 전시 시도가 좋았다. 제2부 문화제에서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기획연출과 연합공연 시도는 좋았지만 주제가 너무 진부하고 의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자들의 호응과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 또, 주제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연하는 동아리들에겐 부담이 되기도 했다.

라. 축제참가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추진위원회

축제기획단 ‘노을자’와의 만남이 필요하다. 지역축제로 확대되기 위해선 추진위와의 직접적인 기획논의가 필요하다.

㉡ 올드보이(노을자 선배)

노을자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청년단위의 인적 자원이 확보되었다. 노을자가 하기 어려운 2부 기획과 노을자를 대신 기획모임 추진행을 맡아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전 올드보이의 역할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과정에 참여, 2부 문화제를 기획하면서 노을자에게 역할을 빼앗기는 인상을 주었고 기획과정에 주도적인 의견 제안으로 노을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기획단 내부에서 올드보이와 노을자, 실무자와의 정확한 역할 규정과 역할 나눔이 필요하다. 올드보이는 노을자가 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보조적 역할을하고 실무자, 노을자, 올드보이가 함께 논의하여 축제에 새로운 기획영역을 확대하여 진행함으로써, 역할 갈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품청소년문화공동체(주관단체)

기획과정에 노을자, 올드보이, 추진위원회 세 단위가 파트너쉽을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지역단체와 기획단, 올드보이, 실무자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③ 축제 주관단체(품청소년문화공동체)의 자체평가

각 단위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과제,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가. 문제점 및 제언

㉠ 기획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 무리한 외형적 확대의 시도가 있었다. 확대된 규모에 맞는 세부적인 준비와 계획, 정리가 부족하였다. 외형적 규모의 확장보다 지역청소년의 문화활성화와 세대교감 그리고 문화활동의 일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문화활동의 기회들(공연, 참여, 전시 등의 문화활동)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진행되는 정형화된 축제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축제 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

㉡ 축제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였다. 기존 축제 구청담당자가 구청과의 많은 행정적인 부분을 알아서 처리해 주고 있었는데 새 담당자가 오면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다. 예년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던 행사장 섭외, 물품협조, 교통통제 요청 등의 행정적 지원이 축제 일주일을 앞두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예년과 같다는 안일한 생각이 사전에 이런 변수들을 대비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 성과 및 시사점

㉢ 축제가 오래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청년단위인 올드보이와 축제기획단 노을자, 실무자 간의 축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기대치의 차이 등으로 기획단 내부 갈등이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역할들을 정의하고 소통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참가자들이 단순히 바라보고 관람하는 정도였던 문화제마당이 청소년기획단 ‘노을자’와 올드보이(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선배들)의 문화제 기획연출을 통해 참여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율동따라하기, 가사따라하기 등의 새로운 공연방식을 시도하였고 이런 공연내용을 통해 참가자들이 축제의 주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제를 기획하고자 하였다. 또, 참가동아리들에게 연합팀 공연이나 풍물과 밴드 잼 등의 다양한 방식의 문화활동을 제안하고 시도함으로써 참가동아리들에게 새로운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㉟ 기획모임을 통해 축제를 이해하고 기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기획모임을 통해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서로 친해지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㊱ 강북지역복지협의회의 발족과 청소년축제기획모임(청소년 동아리, 기획자원봉사자), 올드보이(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선배들)의 축제기획과정 참여를 통해 축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㊱ 지역단체들의 자체 청소년사업과 축제가 연계되면서 약물오남용, 대안생리대 만들기, 나눔가게 등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축제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지역단체들에게는 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활동 기회가 확대되었고 지역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통해 더 적극적인 지역문화축제 참여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청소년문화축제는 지역문화운동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가지게 되었다.

6) 7년간의 축제작업에 대한 평가

7년간의 축제에 대한 작업을 통해 지역단체 추진위와 기획단, 자원봉사자, 참가동아리들의 안정적인 축제 준비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다양한 시도들과 제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하루에 이루어지는 축제의 틀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주제와 장소, 시기에 지역사회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단체들의 사업과 자원들을 연계하여, 축제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문화활성화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제가 종래의 문화제, 참여마당, 전시마당 등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다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다양한 문화활동의 시도들이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청소년기획단뿐만 아니라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와 그 외 사람들이 문화기획워크숍, 축제모니터링 등의 문화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일상적으로 마련되어 보다 확대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상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체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단체 청소년사업의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회 중심의 자원지원과 사업공유,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강북지역에서의 축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몇 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면서 근본적인 지역사회 문화환경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지역단체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치참여를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한 매개체로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청소년축제를 통한 청소년문화의 활성화는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장 기본적이며, 청소년

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단체들 역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각자 다른 단체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라는 막연하고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체별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체들의 상황들을 고려한 한계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단체 대표자 모임이 구성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 역시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추락 동아리 기획모임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비로소 서로 다른 동아리와 청소년들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아리들이 주제표현을 할 줄 모르고, 기획과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상적인 문화적 자극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지속적인 계기를 마련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자원을 중심으로 문화적 제안과 자극이 필요하다.

2. 중소도시 밀착형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성공사례 분석*

-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서부지역청소년축제” -

2003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는(축제 제작팀, YOUTH PRODUCTION이 제작) 청소년축제 활동 사례를 중소도시 밀착형 청소년축제의 한 유형으로 설

* 이 부분은 평택 YMCA 안중청소년문화의집 간사인 박사라가 집필한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기본적으로 내용의 서술은 청소년축제의 담당 간사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하여 회의 보고서, 활동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축제의 담당 지도자가 축제를 제작하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농촌 및 중소도시형 청소년축제의 모델 설정을 위한 착안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YOUTH PRODUCTION에 관한 일반적 개요



YOUTH PRODUCTION은 평택 YMCA 안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모임에 기초한 청소년축제 제작팀이다. 청소년축제를 제작하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전문교육을 제공 받은 후 서부지역 청소년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1) 지역적 특성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은 평택시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권역에 속한다. 도농 복합도시지만 지역 면적의 대부분이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주택형태는 아파트와 개인주택이 혼합되어 있다.

1987년 7월1일 평택군 안중출장소 개설을 시작으로 1989년 4월 1일 안중면으로 승격된 이후 2002년 11월 5일 안중읍으로 승격되었다. 2003년 10월 8일 행정리 46개로 이루어져 있다. 안중읍의 면적은 28.69km²(시 전체의 6.4%)이다. 지역주민의 수(2003년

11월 29일 기준)는 23,458명(남 11,870명, 여 11,588명)으로 그 중 청소년(9-24세)은 4,778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안중읍에는 초등학교 2개교(재학생 2,410명), 중학교 3개교(883명), 고등학교 2개교(1,019명)가 있으며, 복지시설은 19개소(경로당 16개, 복지회관 2개, 문예회관 1개)가 있다.

그동안 안중읍에는 전통적인 지역축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 스스로 제작한 축제가 개최된 바도 없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나 시설은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유일한 곳이며,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안에 동아리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대부분 CA활동으로 동아리를 대신하는 학교가 많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 YOUTH PRODUCTION의 목적 및 의도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해결 방안에서 벗어나 청소년축제에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기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력, 활동력을 축제 제작과정을 통해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나 활동을 결성, 유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문화 창조의 주체로 양성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지역사회 축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환경으로는 청소년 자신과 가정, 학교, 또

래집단은 물론 지역사회도 포함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행동, 태도, 가치관, 기회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평택 안중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경험 등을 지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3) 축제의 추진 배경 및 경과

YOUTH PRODUCTION은 노래 친목 모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 끼리를 찾던 중, 문화를 즐길만한 기회가 적은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래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지역축제를 만들게 되었다. 처음부터 축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작은 공연을 만들어 보려고 시작했는데 점차 목표가 커지면서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3년 5월 YOUTH PRODUCTION이라는 청소년축제 제작팀을 구성하여 2003년 9월에는 평택 안중지역 최초로 청소년들 스스로 제작한 ‘평택 서부지역 청소년축제 ‘STEP BY STEP’ 이 ‘우리들의 화려한 데뷔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4년에는 ‘STAGE 2 START!’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택 서부지역 청소년평화축제 STEP BY STEP’ 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림 III-2> YOUTH PRODUCTION의 향후 발전 계획

2003	청소년 참여 단계	: 성인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를 창조하는 YOUTH PRODUCTION 정착
	지역사회	: 안중 지역의 청소년축제 문화 개척
2004	청소년 참여 단계	: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를 창조하는 YOUTH PRODUCTION 개발
	지역사회	: 안중 지역의 청소년축제 문화 정착
2005	청소년 참여 단계	: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 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를 창조하는 YOUTH PRODUCTION 발전
	지역사회	: 안중 지역의 청소년축제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끔

2003년 처음 청소년들과 축제를 제작해 가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축제와 관련된 전문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 축제를 제작함에 있어 성인이 행사의 기획 및 준비를 주도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의견은 부수적으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는 청소년들의 자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성 연습, 3분 스피치 훈련, 회의·토론 방법 교육 등이 선행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축제 제작을 함에 있어 어른 즉, 지도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축제를 제작할 수 있었다.

2) YOUTH PRODUCTION의 구성 및 운영 방식

(1) YOUTH PRODUCTION의 구성

안중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 형태로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YOUTH PRODUCTION 1기는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팀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또 다른 형태의 참여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벌였다.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 학교 동아리 담당, 학생주임 선생님들과의 간담회였고, 그 이후 학생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YOUTH PRODUCTION을 소개하고 홍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1기 청소년축제기획단은 팀원 모집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게시하였고 홍보 후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총 25명의 중·고등학생이 팀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면접을 통한 참여자 모집이다. 1기 활동이후 2004년 2월 2기 모집 방법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축제 진행 후 지역사회 내에 팀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YOUTH PRODUCTION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청소년들 스스로 면접기준 및 면접을 위한 평가지를 제작하고 YOUTH PRODUCTION 1기 임원들로 구성된 면접자를 선발하였다. 면접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열성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YOUTH PRODUCTION 2기가 구성되었다. 1기와 마찬가지로 총 25명의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었다.

(2) YOUTH PRODUCTION의 운영 방식

① YOUTH PRODUCTION의 자치활동

YOUTH PRODUCTION은 총감독(대표 청소년)이 주축이 되

어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03년부터 점차 지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2004년에는 지도자의 개입이 거의 없었다.

YOUTH PRODUCTION 2기의 경우 지도자와 임원이 회의를 한 후 활동계획 및 일정을 작성하고, 활동 계획에 따른 각 팀별 역할을 정하여 총감독의 진행 아래 전체회의가 진행되었고, 지도자에게 회의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생각의 차이를 보일 경우 청소년들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청소년들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도자가 개입하여 도움을 주었다. 모든 활동은 팀원들이 정한 회칙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② 다른 기관과의 연계

타 기관에서 개최한 축제들을 모니터링 해보고,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과 미팅을 가져 YOUTH PRODUCTION팀들이 축제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③ 재정적 지원

축제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관광부와 평택시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안중청소년문화의집내에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재정을 맡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3) 청소년지도자의 개입 및 지원

(1) YOUTH PRODUCTION에 대한 지도자의 개입

청소년지도자는 팀원들끼리 친해 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

며,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팀원 전원에게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항상 확인하며, 청소년들이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주었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언을 해주되 의사 결정권은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자의 말과 행동을 팀원들이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유도하며, 지도자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팀원들에게 자립심을 키워 주어 조직내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2) 예산, 장비, 공간, 교육 등의 지원

① 예산

예산은 크게 강사료, 축제 진행비, 장비 및 기자재 대여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는데(자세한 내용은 <표 III-7>을 참조), 이러한 예산은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의 자립심 향상의 측면에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만 현 단계의 지역사회 특성상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청소년들 스스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조달방법에 관하여 기관내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 문화관광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YOUTH PRODUCTION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② 축제에 관한 전문교육

축제 기획 및 진행을 위하여 전문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청소년들이 축제를 진행함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III-7> 교부신청서상의 청소년축제 예산안

(단위 : 원)

항목	금액	전체예산대비 비율(%)
인건비(강사료 등)	1,400,000	7.8
인쇄비(보고서, 자료집 등)	2,780,000	15.4
장비 대여비(음향, 조명, 무대세트 등)	4,240,000	23.6
숙박비(워크숍 숙박비)	900,000	5.0
진행비	1,500,000	8.3
식비(행사준비요원 및 참가자 식대, 교류회 식대 등)	1,950,000	10.8
교통비	2,250,000	12.5
활동지원비	1,600,000	8.9
홍보비(포스터, 초청장 등)	1,380,000	7.7
전체예산	18,000,000	100.0%

③ 시설장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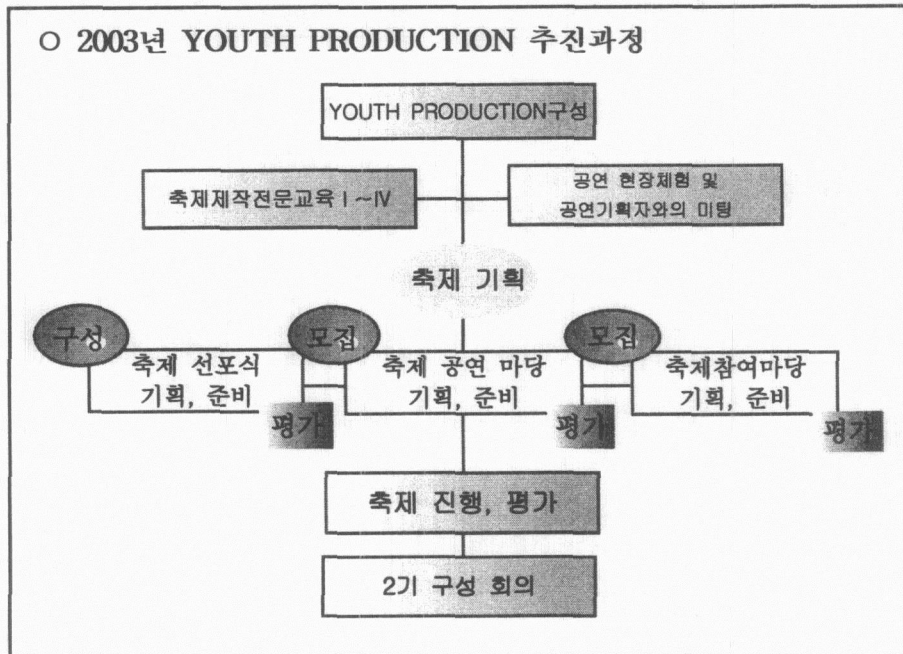
축제기획단이 필요한 공간들을 제약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특히 YOUTH PRODUCTION만의 전용 공간을 제공하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무대 및 조명, 음향시설, 부스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대여하여 사용하였다.

(3) 청소년들의 요구 파악 및 대응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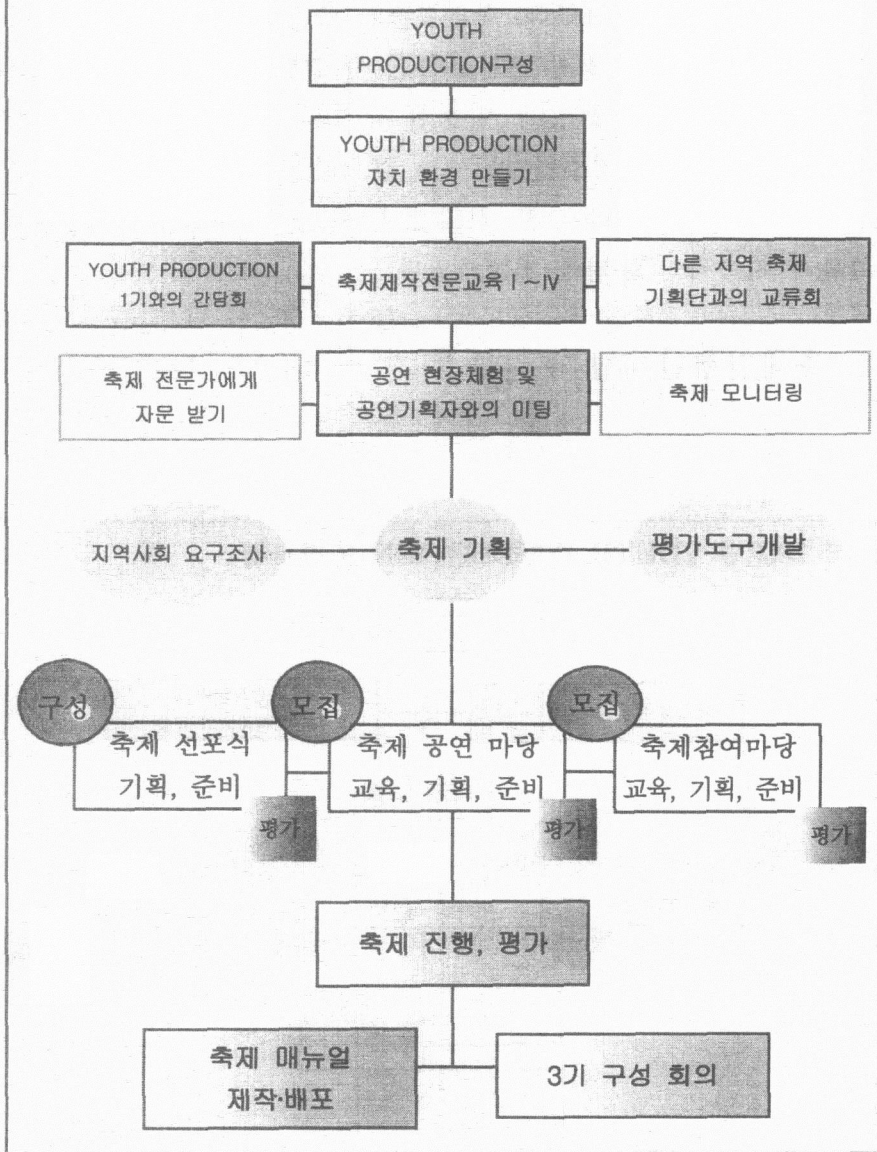
공간과 장비 지원은 청소년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 한 후 지도자에게 요구하도록 하였다. 회의결과는 축제담당지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요청한 사항이 예산이나 기타 환경 등에 미루어 불가능할 경우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청소년들과의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4) 축제진행단계별 추진과정

(1) 진행 단계별 추진과정



○ 2004년 YOUTH PRODUCTION 추진과정



(2) 진 행 단 계 별 활 동 내 용

① 2003년 YOUTH PRODUCTION 추진과정

시 기	2003년 1기 YOUTH PRODUCTION 활동 내용	
6/14	각 학교 CA 담당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6/21	각 학교 CA 대표 청소년들+동아리 대표와의 간담회	
7/12	YOUTH PRODUCTION 구성	
7/27	드림큰 타이거 공연 현장 체험 및 공연 기획자와의 미팅	
7/12	전 매 리 프 로 젝 트	1. 공연 기획의 범주와 기획자의 역할 2. 공연 기획 실재 (실습)
7/19		1.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방법 (공연 감상자 개발, 도우미 자원봉사 구성 방법) 2. 공연 홍보의 중요성, 공연 홍보방법, 공연 마케팅방법 3. 공연 홍보 실습 4. 평가 보고서 제작 방법
7/26		1. 촬영 기법 2. 6mm 카메라 조작법 3. 영상 편집 기술 4. 일반 카메라 찍는 기법
8/15. 16	워크숍 장소 : 안중 창대 교회 잔디밭 및 다목적실 1. 전체 회의 : 각 축제 마당 명칭 정하기, 축제내용 정하기 2. 팀별 회의 1) 전시팀-전시물 디자인 2) 영상팀-공연제작과정영상물 콘티 짜기 3) 기획팀-축제 마당별 세부 계획 짜기 4) 홍보팀-축제 포스터 디자인 및 홍보 방안 모색	
7/26	축제 컨셉 잡기, 축제명 생각해 보기	
8/2	각 학교 동아리 조사 및 공연 관련 자료 찾기	
8/9	공연 슬로건 결정(우리들의 화려한 데뷔전), 축제명(step by step) 결정, YOUTH PRODUCTION 사무실 꾸미기 팀별 역할 분담 워크숍 일정 짜기, 워크숍 역할 분담	
8/18	공연 컨셉 정하기, 축제 내용 모색	

8/20	각 참여마당(let's together) 세부계획 작성
8/23	무대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섭외 담당 나누기
8/24	원 프로덕션으로 출장, 그동안 영상 촬영한 것 편집
8/25	1. 안중고 교감, 교장선생님과의 면담 2. 학생 부장님과의 협조 요청 3. 안중중학교 2, 3학년 교실에서 홍보 4. 안일여중 선생님과 전화면담 포스터 수정, YOUTH PRODUCTION 활동영상 보며 중간 평가
8/27	축제 청소년 참가팀 모집 홍보(안일여중)
	등교시간 이용하여 현화중 앞에서 축제 참가팀 모집 홍보 (팸플릿 나누어 주며 설명) YOUTH PRODUCTION 총감독 진행아래 중·고등학교 대표들(8개학교)로 이루어진 공연추진위원회(이번 계기로 만들어짐) 회의 (안건 : 안중 청소년동아리축제 step by step 선포문 작성 및, 선포식 기획)
8/30	진행사항 중간점검(팀별 보고) 1. 홍보팀 : 포스터 부착 장소 모색 및, 인터넷, 지역사회 홍보 방안 모색 2. 기획팀 : 청소년 공연 참가팀 순서 결정 및 공연 참가팀 관리 일정 짜기 3. 영상팀 : 콘티 제작 및 공연 추진 위원회 회의 촬영 4. 전시팀 : 전시 사진 선택 5. 총감독, 부감독 : 공연추진 위원회 회의 진행
9/06	1. 홍보팀, 기획팀 : 청소년 공연 참가자(exciting) 오디션 진행, 참가자 순서 결정, 참여이벤트(let's together) 기획 지원 2. 영상팀 : 청소년 공연(exciting) 오디션 촬영 3. 전시팀 : 전시물 제작
9/09	1. 이벤트 기획(안중 청소년 동아리 축제 이벤트 기획) 2. 청소년 공연(exciting) 순서 수정
9/10	1. 포스터 부착, 참여 마당(let's together) 예산 편성 let's together 기획, 제작 활동 보조
9/13	1. 포스터 부착 2. step by step 자원봉사 모집, 역할 분담
9/14	1. YOUTH PRODUCTION 공연제작과정 전시물 제작 마무리 2. 포스터 부착

	참여마당(let's together) 기획, 제작 과정 도와줌 1. 기획회의 2. 제작과정(홍보 간판, 진행도구들) 3. 준비물 구입
9/16	각 학교 회장들에게 step by step 선포식 참여하도록 전화 참여마당(let's together) 기획, 제작 과정 도와줌 1. 기획회의 2. 제작과정(홍보 간판, 진행 도구들) 3. 준비물 구입
9/17	참여마당(let's together) 부스 위치 선정 참여마당(let's together) 기획, 제작 과정 도와줌 1. 기획회의 2. 제작과정(홍보 간판, 진행 도구들) 3. 준비물 구입
9/18	공연 참가자(exciting)에게 리허설 참가 확인 전화 인터넷 홍보 마무리 참여마당(let's together) 기획, 제작 과정 도와줌 1. 기획회의 2. 제작과정(홍보 간판, 진행도구들) 3. 준비물 구입
9/19	안중 청소년 동아리 축제 step by step에서 YOUTH PRODUCTION 개개인의 역할 분담 확인 exciting 리허설 진행 참여마당(let's together) 기획, 제작 과정 도와줌 1. 기획회의 2. 제작과정(홍보 간판, 진행도구들) 3. 준비물 구입
9/20	step by step 진행 1. 개회식(선포식) 2. let's together 3. exciting 4. 뒷정리
9/24	영상물 편집
9/28	1. Step by Step 진행 평가 2. YOUTH PRODUCTION 전체 평가
10/6	YOUTH PRODUCTION 참가 청소년 의견조사 통계

② 2004년 YOUTH PRODUCTION 추진과정

시기	2004년 2기 YOUTH PRODUCTION 활동내용
2/1~2/21	YOUTH PRODUCTION 팀원 면접 기획 및 준비
2/21~3/2	YOUTH PRODUCTION 팀원 모집, 홍보지 제작
3/21	YOUTH PRODUCTION 팀원 면접 실행
3/27	YOUTH PRODUCTION 구성, 오리엔테이션 참가
4/3	YOUTH PRODUCTION 동아리 인준식 및 조직 구성
4/10	YOUTH PRODUCTION 안에서 자치 환경 만들기 1 (발성연습, 3분 스피치, 화책만들기, 찬해지는 방법 모색)
4/17	YOUTH PRODUCTION 안에서 자치 환경 만들기 2 (회의 진행법 및 회의 예절 교육, YOUTH PRODUCTION 1기와의 간담회, 다른 지역 축제 자료 수집하기)
5/8	8칸 기획서 작성 방법 교육 및 실습, 안일여고 모니터링 내용 발표하기
5/15	축제 'STEP BY STEP' 뼈대 기획 및 안중고 축제 모니터링 내용 발표
5/22	평택항축제 모니터링 내용 발표, 워크숍 레크리에이션 기획, 참여 마당 및 공연 마당 참가자 모집 홍보 방안 기획
5/24	임원 긴급회의 (안건 : 워크숍 관련)
6/5~6/6	YOUTH PRODUCTION 워크숍
6/9	6월~7월에 이루어질 프로그램 일정 조율하기 (임원회의)
6/10	YOUTH PRODUCTION 활동 규칙 조정
6/11	신한고 한울마당 축제 모니터링
6/12	축제 뼈대 기획하기 (전체 회의를 통해)
6/16	영상교육 및 청소년 기획자와의 교류 기획 및 콘서트 기획, 빠진 인원 충당할 면접 진행
6/19	축제 공연마당 및 참여마당 명칭 정하기, 축제 참여마당, 공연마당 참가팀 홍보 방안 정하기
7/9	축제 공연마당 및 참여마당 참가팀 모집 홍보지 최종 제작
7/10	축제 공연마당 및 참여마당 참가팀 모집 홍보 방법 모색, 콘서트 체험 및 기획자와의 미팅 준비 및 역할 분담, 전문교육 질문 생각하기
7/17	축제 기획에서 제작까지 전문교육
7/17	청소년축제 기획한 안성 청소년 운영 위원회와의 교류회
7/22	활동사진 정리
7/23	콘서트 체험 준비 및 자문을 구할 어른들 찾아보기
7/24	축제 평가하기 전문교육 김경호 콘서트 체험 및 콘서트 기획자와의 교류회

7/26	축제 참가팀 모집 홍보 역할 나누기
7/3	교육 평가지 집계, 활동 평가 지표 작성하기
	축제 마케팅 홍보 전문교육
8/4	축제 참가팀 참가 신청서 만들기
8/6	YOUTH PRODUCTION 중간 평가
8/7	평택 청소년 동아리 모임 준비
8/17	축제 주제 및 개최식, 폐회식 명칭 정하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8/24	YOUTH PRODUCTION 역할나누기
8/28	각 축제 준비 역할 나누기, 포스터 컨셉잡기, 주제에 맞는 참여 마당 다시 기획하기
8/30	포스터 디자인
8/30	축제 초대장 제작
9/4	느껴봐!(공연마당) 일정 짜기, 사회자 선정
	축제 공연팀 무대 연출 교육
	참여 마당팀 행사 기획 전문교육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및 축제 축하 메시지 촬영
9/7	중간 일정 보고 및 평가
9/9	사회자 재구성
9/11	역할 나누어 축제 준비하기 1
9/12	역할 나누어 축제 준비 마무리하기 1
9/15	역할 나누어 축제 준비 마무리하기 2
9/16	축제장 데커레이션 준비, 팀원 역할 분담 세분화
9/17	축제 진행 최종 점검
9/18	축제 진행
9/24	평택 원평 청소년축제 모니터
10/15	평택 청소년 동아리 다모임 참가
10/24	축제 평가하기
11월	YOUTH PRODUCTION과 함께 MAKING YOUTH FESTIVAL 제작 (축제 제작 과정 핸드북)
11/21	부천시 청소년축제 기획단 댁스와의 교류회 및 흥대 유스 클럽 데이 참여

5) 축제진행단계별 내용분석

(1) 기초준비단계

① 청소년축제 제작팀 구성단계

가. 청소년축제 제작팀 구체화하기

청소년축제 제작팀 활동의 개념, 목적, 목표, 중장기 계획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분화하였다.

나. 청소년축제 제작팀 구성

년도	팀구성 방법	팀구성 인원	
		총 인원	총 25명
2003	공개 모집 방법 (원하는 청소년들로 선착순 모집)	남녀 비율	남자 15명, 여자 10명
		학교 배율	고등학교 2학년 : 14명 중학교 3학년 : 2명 중학교 2학년 : 2명 중학교 1학년 : 4명
		학교 수	4학교



년도	팀구성 방법	팀구성 인원	
		총 인원	총 25명
2004	공개 모집 후 면접 (1기 팀원들이 면접기준 정하고, 면접 시행)	남녀 비율	남자 11명, 여자 11명
		학교 배율	고등학교 2학년 : 9명 고등학교 1학년 : 9명 중학교 3학년 : 2명 중학교 2학년 : 4명 중학교 1학년 : 1명
		학교 수	5학교

청소년축제 제작팀 1기 때만 해도 모집 홍보 후 면접을 거치지 않고 기간 내에 원하는 청소년들로 팀이 구성되었다. 청소년

축제 제작팀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청소년들도 많지 않았다. 1기 때는 25명의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참여 동기가 적어 중간에 포기하거나 활동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축제 제작팀 1기와의 오랜 회의 끝에 결국은 면접을 통하여 팀원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양한 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축제 제작팀 안에서 다양한 학교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참고로 다양한 학교 청소년들이 팀원으로 가입 될 수 있도록 함은 선발시 고려의 기준은 되었지만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열성 등을 기준의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팀원 모집에 있어 성별과 연령대를 다양화한 것은 1기 같은 경우 14명 정도가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로서 1기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2기의 선발에 있어서는 1기 선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령대를 다양화하였고, 중학생일 경우 당시에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할 지라도 보고 배운 경험들을 토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기수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다. 청소년축제 제작팀 팀원 면접

팀원 모집 홍보에 필요한 홍보지를 제작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를 위해 YOUTH PRODUCTION의 소개, 모집대상, 모집인원, 모집기간, 면접일시, 면접기준, 면접장소, 문의 등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위의 내용이 담긴 홍보지를 직접 제작하도록 하였다. 인쇄된 홍보지는 학교 각 학급 게시판에 부착되었고, 개별적으로 반 앞에 나가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특별한 홍보 방법으로는 고학년 선배들이 저학년 학급을 직접 돌면서 홍보하는 것이었고, 각 학교 후배들을 눈여겨보면서 팀원으로 적합할 것 같은 팀원들에게는 면담을 통하여 축제 제작팀을 소개하고 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청소년축제 제작팀 모집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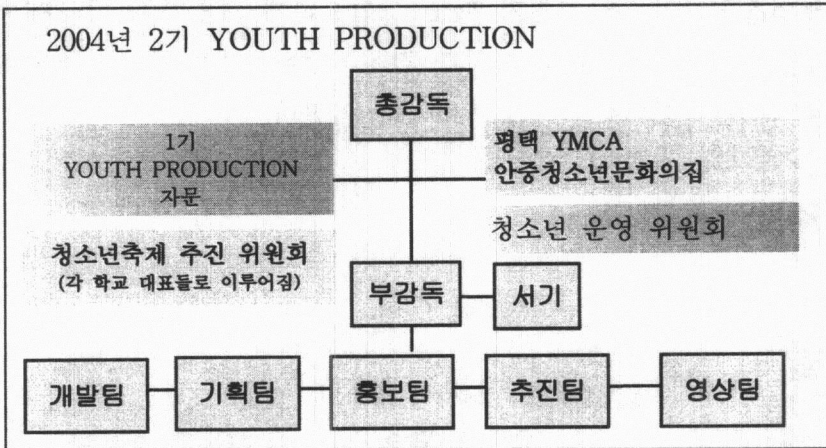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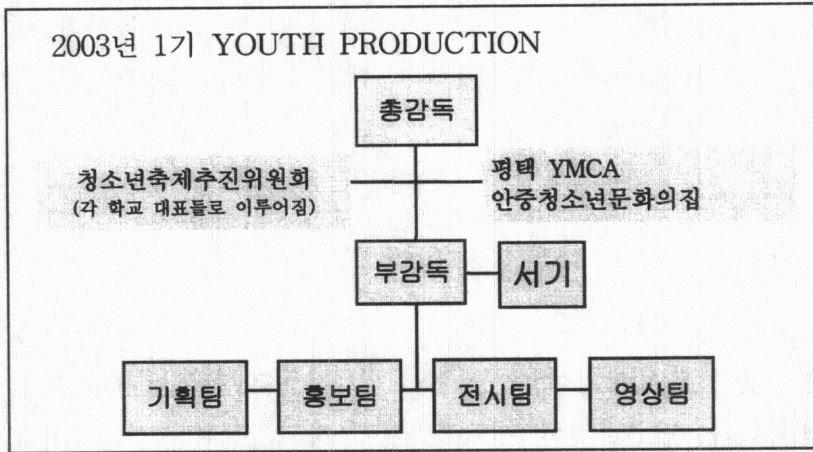
청소년축제 제작팀 팀원들은 회의를 통해 면접 기준을 명시하여 더욱 객관화된 면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기준은 회의를 통해 출석률이 99.9%가 될 수 있을 만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성실한 사람,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그밖에 사교성이 좋은 사람으로 결정하였다.

면접은 YOUTH PRODUCTION 임원 중 몇 명이 보았고, 보다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면접을 진행하기 위하여 면접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가능한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결과 발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형태로 전달하였다.

마. 청소년축제 제작팀 오리엔테이션 및 인준식

청소년축제 제작팀 팀원들이 모여 청소년 현장을 낭독하고 모인 목적을 설명한 후 소개 레크리에이션, 친목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팀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팀원들이 가장 먼저 기획한 행사가 동아리 인준식이다. 날짜, 시간, 진행 방법들을 기획하여 진행되었다.

바. 청소년축제 제작팀 조직 구성



우선 1기 때보다 보완되어 2기가 조직되었다. 청소년축제 제작팀의 총책임을 맡는 총감독, 총감독의 보조 역할을 하는 부감독, 활동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서기, 축제 기획을 도맡아 하는 기획팀,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개발팀, 홍보를 맡은 홍보팀, 영상의 전반을 맡은 영상팀, 축제 준비에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추진팀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축제의 전반적인 자문을 얻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역할: 시설 동아리 및 타 동아리들과 연

계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축제 추진 상황 자문)와 각 학교 대표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역할 : 각 학교로 돌아가 적극적인 홍보활동, 축제선포문, 축하 메시지 전달 등)가 구성되어 YOUTH PRODUCTION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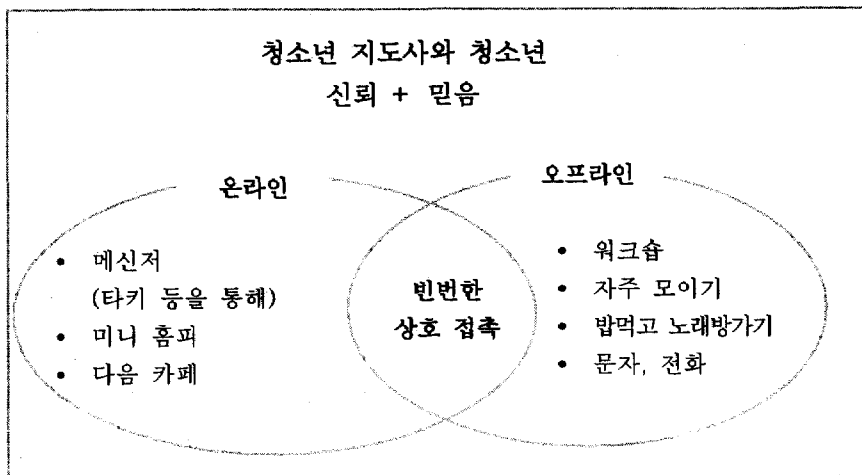
(2) 청소년축제 제작팀 상호신뢰감 형성단계

① 상화신뢰감 형성의 필요성

청소년축제 제작팀이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팀원들간에 서로 낯설어 하고, 창피해 하여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몇몇 소수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뢰감 형성단계가 이루어졌다.

② 신뢰감 형성방법

<그림 III-3> 신뢰감 형성을 위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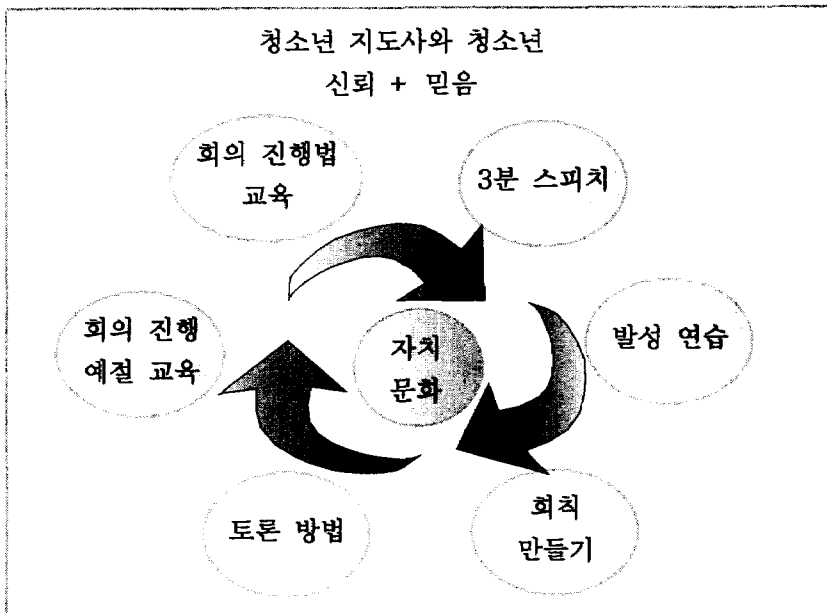
(3) 청소년축제 제작팀 자치문화 형성단계

① 자치문화 형성의 필요성

청소년축제 제작팀 1기 활동을 하며 회의진행시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매우 어색해하며, 주위 눈치를 살피고, 불안해하고 회피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었다. 이로 인하여 회의 진행을 함에 있어, 논리를 내세워 표현을 잘하는 몇몇 청소년들의 의견으로 활동들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축제 제작팀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앞서 청소년축제 제작팀안에서 자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대안이 모색되었다.

② 청소년축제 제작팀 자치문화 형성

<그림 III-4> 축제제작팀 자치문화 형성과정



가장 먼저 실시 된 것이 ‘아’ 소리를 맘껏 질러 보는 것이었다.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마음속에 내제되어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자며 소리를 질러댔다. 발성 및 발음 연습 후에 3분 스피치 훈련, 회의방법 및 토론방법, 토론 예절 교육을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축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에 실습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축제 제작팀 회칙을 만들어 회칙에 근거하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청소년축제 제작팀의 축제제작 교육단계

① 청소년축제 제작팀 전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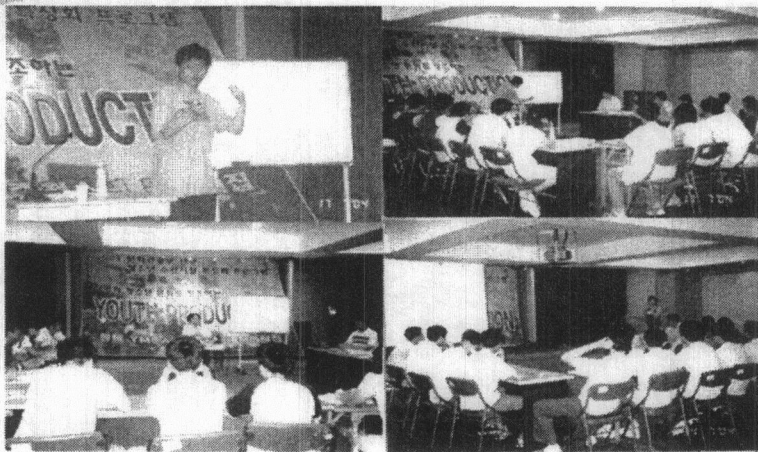
년도	내용	교육 시간	강사	강사 전문성 소개
2003	공연 제작 전문교육	3시간	신영권	PMG KOREA 공연 기획팀 대리
	공연 기획에서 제작까지	3시간	이연수	한국청소년마을 경기도지부 총부이사
	영상 촬영 기법	3시간	박원동	원 프로덕션 대표
2004	축제 기획에서 제작까지	3시간	안이영노	에이스 벤츄라
	축제 평가하기	3시간	김혁진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축제 홍보 및 마케팅 방법	3시간	권연주	한국YMCA전국연맹
	영상 촬영 기법	3시간	박원동	원 프로덕션 대표

축제를 제작하기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였다. 축제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했다. 청소년축제 기획에서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축제에 메시지를 담는 방법, 기획방법, 예산편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축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과 프로그램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산청소년거리문화축제와 홍대 로드클럽 페스티벌 사례를 가지고 축제의 마케팅, 홍보 부분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그밖에도 축제 제작 과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영상물 편집 기술에 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토요일 오후 각 각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교육 후에는 평가를 통하여 다음 교육 시 참고를 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축제 기획 및 진행에 관하여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2004 YOUTH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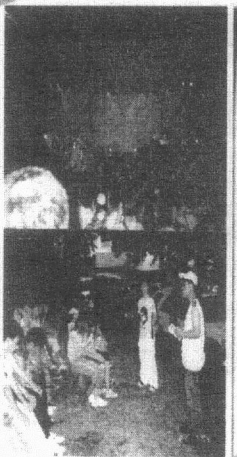
② 타 축제 모니터링 및 축제 기획자와의 만남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축제(안일여고, 안중고, 신한고, 한광여고, 안일여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지역 축제, 안성 청소년축제, 홍대클럽 파티 등을 모니터 하고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행사 전체를 보는 시야가 생기면서 각 축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축제를 기획하는데 고려할 수 있었다.

③ 청소년축제 제작팀 공연 체험 및 공연 기획단과의 미팅

년도	콘서트 명	콘서트 기획자 명	콘서트 기획자와의 미팅 내용
2003	드렁큰 타이거 콘서트	함윤호 (좋은 기획팀 기획자)	콘서트 기획 과정
2004	김경호 콘서트	임철빈 재즈 커뮤니케이션 이사/엔터테인먼트 사업 본부	콘서트 기획에서 제작 과정

2004 YOUTH PRODUCTION



인터넷을 통해 YOUTH PRODUCTION 팀들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콘서트를 찾아가 직접 콘서트를 체험하고 콘서트를 직접 기획한 기획자와의 미팅을 통해 알고 싶었던 정보들을 얻게 되었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만 그만큼 청소년들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도 축제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④ YOUTH PRODUCTION 1기와의 간담회

1기생들의 활동에 관한 영상물을 보면서 총감독의 설명으로 1기 축제 제작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기수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

(5) 축제제작 및 기획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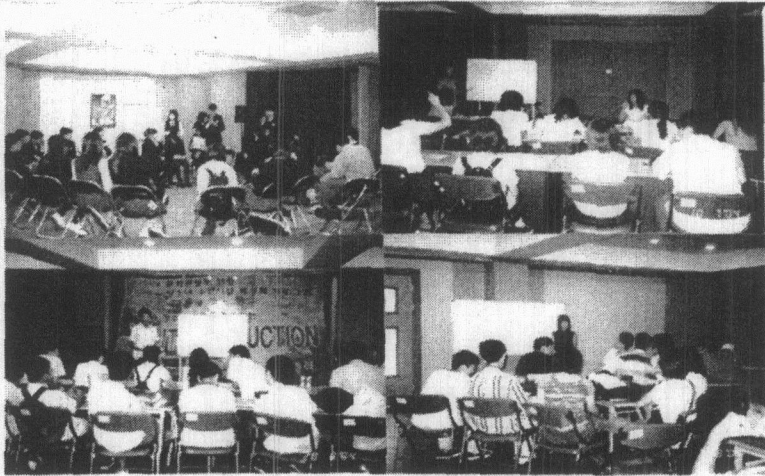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구두를 통해서 수집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8칸 기획서에 써보고, 3분스피치를 통해 아이템을 모으는 작업을 하였다. 취합된 아이템을 가지고 전체 회의를 통해 축제 컨셉 및 주제, 목표를 정하고, 기획팀이 주축이 되어 축제의 전체 흐름을 기획하여, 전체 회의를 통해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했다.

<표 III-8> 2003년과 2004년 청소년축제 기획안

항목/년도	2003	2004
축제명	STEP BY STEP	STEP BY STEP
축제 주제	특별한 주제 없었음. 최초의 청소년축제를 기획하는데 의의를 둠	기성세대의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기성세 대들을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개회식 명/ 내용	Open Story 길놀이 축제추진위원회 축제 선포식/ 환영인사/Youth Production 소개 및 축제 제작과정 설명	개회식 축제추진위원회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환영인사/Youth Production 소개 및 축제 제작 과정 설명
참여마당명/ 내용	Quiz Quiz Let' together 전시회	즐거봐! 기성세대와의 소통 기성세대의 미술 문화 체험

	이동상담 참여 이벤트 예술놀이 게임팀	기성세대 음악문화체험 기성세대 의복문화체험 기성세대의 음식문화체험 기성세대 미용문화 체험 기성세대의 놀이문화체험 축제 제작 과정 전시회
공연마당명/ 내용	Let' exiting 수화공연/댄스/가요/ 밴드 20개팀	느껴봐! 가요/힙합 댄스/브레이크 댄스/락/밴드/가요/마술 등 18개팀
폐회식명/ 내용	To be continue 추첨/ 마무리 인사	폐회식 마무리 인사

2004 YOUTH PRODUCTION



(6) 실행단계(축제제작 및 진행과정의 측면)

① 축제참여자 모집

항목/년도	2003	2004
축제 추진 위원회	15명	14명
축제 참여마당팀	18팀(50명)	18팀(86명)
축제 공연마당팀	20팀(62명)	18팀(71명)
축제 당일 자원봉사자	25명	0명 (2004년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 않음. 청소년들의 단순 참여를 지양하기 위함)

축제 참여마당을 진행할 팀과 축제 공연마당에서 공연할 공연자, 축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기에 앞서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할지의 여부에 대해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홍보지를 제작하여 모집하기 시작했다. 제1회 축제인 경우 지역에 활동하는 동아리가 없고, 축제 인지도도 낮아 초반에는 참여자들을 모으기 힘들었다. YOUTH PRODUCTION 1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다. 총감독은 학교장을 직접 면담하여 축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고, 팀원들은 각 학교 학급에 홍보지를 게시하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다. 또한 참여가 적은 학교들을 찾아가 등하교 시간을 이용하여 비디오카메라와 홍보지를 들고 1:1 홍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축제 참여자들의 신청이 들어 올수 있었다. 이런 노력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제2회 축제 참여자들의 모집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② 축제참여자 전문교육

제1회 축제인 경우는 청소년축제 제작팀 팀원들에게만 전문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축제를 준비하는 참여마당과 공연을 하는 공연팀에게도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면서 축제참여마당 참가팀에게는 행사기획(사업계획서 작성법, 예산 작성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이 제공되었고, 축제공연마당 참가팀에게는 무대연출 전문교육이 제공되었다.

③ 축제 세부계획에 따른 준비작업

가. 축제 세부 계획에 따른 일정표 및 역할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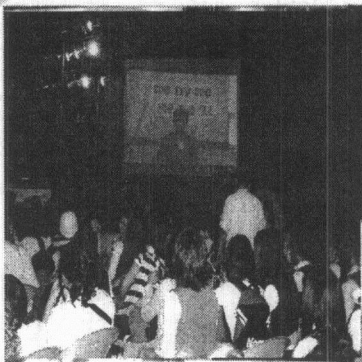
축제 세부 계획에 따라 준비하기에 앞서 세부 일정표 및 역할 분담표, 체크 리스트 등을 작성하였다. 각 활동들을 분류하고 총담당자와 보조자를 배정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활동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서 청소년들 스스로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일정에 맞게 준비할 수 있었으며, 각 팀원 전원에게 알맞은 역할들을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보고하게 하여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준비작업들을 통해 지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나. 축제 세부계획의 조정

개회식, 폐회식, 이벤트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였다. 개회식, 폐회식은 간결하게 조정되었으며, 이벤트들은 참여마당과 공연마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다.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2004 YOUTH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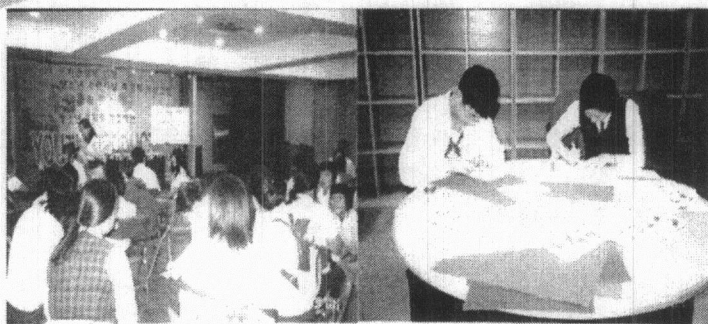


인근 각 학교대표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1회 축제에는 축제선포문을 작성하여 선포식을 진행하였으며, 제2회 축제에서는 축하 메시지와 앞으로의 축제에 대한 기대 및 희망사항과 관련하여 영상물에 담아 개회식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축제 참여마당 준비

축제 참여마당 참가팀 행사 기획에 들어갔다. 팀원들 중에서 참여마당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정하고, 18개의 참여마당 담당자(총 86명)를 정하여 참여 마당팀들이 행사 기획, 예산 지급, 준비 소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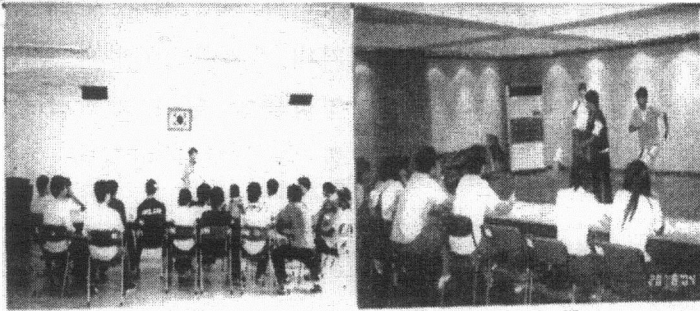
2004 YOUTH PRODUCTION



마. 축제 공연 마당 준비

팀원 중에서 축제 공연마당 담당자들을 정하여 공연 콘티를 작성하고 MR을 수거하여 리허설을 준비하고, 공연팀 18팀(71명)은 세 차례의 리허설을 통하여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축제 공연에 다양한 장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청소년 공연 찬조팀을 섭외하였다.

2004 YOUTH PRODUCTION



바. 축제제작과정 전시회

축제제작과정 전시회를 준비하였다. 축제제작과정을 정리하여 우드락과 캔트지를 이용하여 전시물을 디자인 하고 사진을 현상하여 전시작품을 만들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였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축제를 준비하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축제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축제 사회자

축제 사회자에 따라 축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만큼 사회자의 역할은 크다. 1회 축제 사회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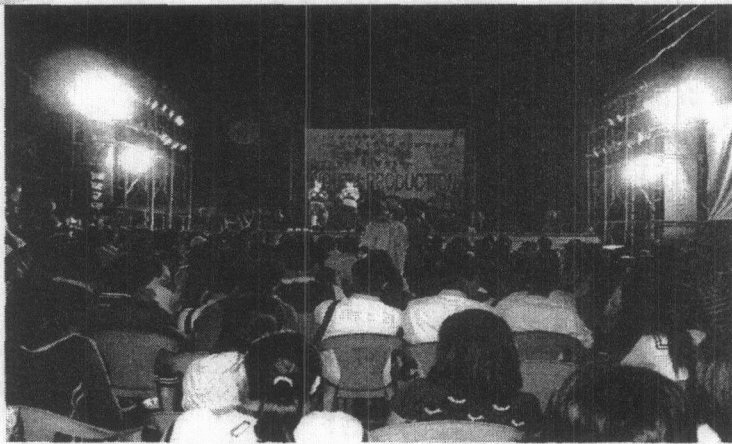
자와 청소년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청소년들이 사회를 보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전체회의를 통하여 사회자를 선정하고 축제 사회 멘트를 정리하여 마이크를 들고 수십 번 연습을 하여 사회를 보았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축제에 청소년들이 사회를 보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며, 참 잘 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실수하면 어쩌나, 축제를 망치면 큰일인데' 이런 걱정들을 하기보다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

④ 축제 홍보

가. 각 학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축제를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학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사회내에 학교와의 연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하여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2004. 청소년 6면서설 특성과 프로그램



YOUTH PRODUCTION 이 제작한 청소년 축제 'STEP BY STEP'

나.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한 홍보

각 학교대표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홍보 및 다양한 역할을 했다.

다. 포스터를 이용한 홍보

포스터에 대한 컨설팅회의를 거쳐 YOUTH PRODUCTION 홍보팀이 주축이 되어 축제 홍보 포스터 내용을 구상하고 포스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포스터 배포 장소 및 장수를 예측하여 인쇄소에 의뢰하였다. 인쇄된 축제 홍보용 포스터는 각 학교의 학급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지역사회 내 모든 상점에 붙여졌다. 특히 비오는 가운데 팀원들이 직접 부착하러 다녔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지만 거리 곳곳에 붙여진 포스터를 보며 뿌듯해 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지역 신문 및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평택 신문, 평택시민 신문 등 지역 신문과 기남방송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마. 기타

축제가 개최되기 2일전부터 축제 일정표를 제작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가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홍보를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어 홍보하였다.

⑤ 시설 및 장비 대여

장비 및 기자재 대여업체에 의뢰하여 참여마당 행사 부스, 의자, 탁자, 공연마당 무대, 조명, 백드림, 발전기, 관람 의자를 대여하였다.

⑥ 축제 실행 전 마무리 준비

청소년축제 제작팀은 축제 당일 역할을 나누고 축제 행사 배치도를 작성하였고, 축제 준비 체크 리스트를 점검하였다. 또한 축제 공연마당, 참여마당 진행자 및 담당자 확인 전화를 하고, 축제 준비 물품 점검, 축제 당일 도시락 주문, 축제 당일 음료 주문, 외부 인사 출석 확인 전화, 순서지 제작 및 인쇄, 영상 촬영 장비 대여, 비디오테이프 및 영상 촬영 준비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였다. YOUTH PRODUCTION팀의 팀원들의 역할이 구체화되어 있어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 하는 모습들이 1기보다 발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6) 축제 세부진행 결과 제시

(1) 2004년도 축제 세부진행 결과 제시

2004년 9월 18일(토) 평택 YMCA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앞마당에서 문화관광부 주최, 평택 YMCA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주관,

평택시의 후원으로 2004년 서부지역 청소년평화축제 ‘Step by Step’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축제제작팀 YOUTH PRODUCTION (25명), 축제추진위원회(15명), 축제공연팀 18팀(71명), 축제참여마당 팀 18팀(86명), 축제참가자 약 700명이 참여하였다.

축제일정으로는 PM 3시~6시까지 참여마당, PM 6시~7시 깜짝이벤트, PM 7시~7시 30분에 개회식, PM 7시30분~9시10분 에 공연마당, PM 9시10분~9시15분 폐회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① 행사주요일정

일시	주요테마	내용	장소
PM 3:00~7:00	즐거봐	▪ 기성세대와의 소통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앞마당 및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용
		▪ 기성세대의 미술문화체험	
		▪ 기성세대 음악문화체험	
		▪ 기성세대 의복문화체험	
		▪ 기성세대의 음식문화체험	
		▪ 기성세대 미용문화체험	
		▪ 기성세대의 놀이문화체험	
	봐! 봐!	▪ 공연제작과정 사진 전시	
PM 7:00~7:30	개막식	▪ 축제 축하 동영상 상영 ▪ 축제 제작과정소개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앞마당 야외무대
PM 7:30~9:10	느껴봐	▪ 노래/댄스/마술/우정출현/찬조	
PM 9:10~9:15	폐막식	▪ 폐막식	

(2) 축제의 세부진행내용 및 평가

① 참여 마당 - 즐겨봐!

청소년들과 공연 감상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단지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오는 낮은 참여 방법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프로그램을 담당할 청소년 자치 모임들의 신청을 받고, 각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실행하였다.

가. 참여마당의 성과분석

참여마당 18개 팀의 청소년 86명이 진행한 참여마당은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소모임을 이루어 초기에 문화행사기획과 전문교육을 받아 진행하였다. 행사기획, 예산작성법 등을 교육받아 작년보다 알차고, 톡톡 튀는 행사들을 엿볼 수 있었다. 연못놀이를 비롯하여 새로운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늘었고, 참여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복고 패션에서와 같이 의복을 직접 만들어 입는 코스프레 형식이 등장하여 다양한 동아리 장르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처음에 행사진행에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모임 청소년들과 회의를 통해 안을 결정하고, 행사들을 다듬어 행사당일에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사를 진행하였다. 결국은 이런 경험들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 개선 및 보완사항

작년에 비해 행사의 내용이나 진행 등이 매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행사 참여자들의 수는 작년보다 적었다. 그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요인으로는 날씨를 들 수 있다. 행사 직전까지 내린 비로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고, 비가 내려 밖으로 나가기 귀찮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송탄에서는 연예인이 참석하는 청소년 행사가 진행중이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송탄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행사에 대한 홍보 부족이다. 제1회 행사에 비해 홍보방법이 다양하지 못했으며, 그 횟수도 적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② 전시 마당 - 봐! 봐!

YOUTH PRODUCTION이 축제제작을 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 축제제작과정 사진전시회를 진행하였다. 공연제작 사진전시회를 통하여 축제 참가자들도 공연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었다.

영역	프로그램명	행사내용	준비사항
봐봐	축제제작사진 전시회	YOUTH PRODUCTION 팀들이 축제를 준비, 기획, 제작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 설명과 함께 전시를 했다.	전시물, 전시물 가이드

가. 축제제작과정 사진전시회의 성과분석

일주일에 걸쳐 제작한 축제제작과정 사진전시회를 통하여 일반 청소년들도 축제제작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YOUTH PRODUCTION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 개선 및 보완 사항

전시물이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다음에는 행사장 한 가운데 전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진전시물을 설명하는 설명도우미를 배치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③ Open Story (개막식)

참가자들이 축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서부 지역의 청소년 문화로 자리 매김 하도록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력을 두었다.

가. 개막식 성과분석

축제 공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축제 공연 관람자들에게 축제 의미와 축제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서부지역 각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의 축제 환영사를 영상으로 담아 보여줌으로써 이 축제가 서부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 개선 및 보완사항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힘들게 준비한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 그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직접적인 축제홍보가 부족했다. 두 번째로 시기적인 문제(추석)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초대장뿐만 아니라 일대일 전화 등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제작한 축제를 홍보하여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공연마당 - 느껴봐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청소년팀들의 신청을 받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연대회 형식의 경쟁위주의 공연이 아닌,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역		장르 및 팀수
느껴봐	1부	밴드 1팀/가요 5팀/댄스2팀 랩 1팀/마술 1팀
	2부	힙합 및 브레이크 댄스 1팀/가요 5팀/댄스 2팀

가. 성과 분석

첫째, 작년 보다 다양한 공연팀이 참여했다. 작년에는 안중지역 청소년 공연팀들만이 참가한 반면, 이번에는 홍보의 폭이 넓어져 평택시에 다양한 학교들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공연팀에게 미리 무대 연출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무대위에서 더욱 세련된 무대매너를 보여주었다.

셋째, 공연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연 관람자 의자를 배치해 더욱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넷째, 공연시 공연 관람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야광봉을 공연 관람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콘서트와 같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 되었다.

나. 개선 및 보완사항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공연 장르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다. 노래와 댄스가 주를 이루는 공연이 되었다. 이는 서부지역에 공연할 만한 동아리들이 없고,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사회자와 공연팀, 음향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

션이 미흡하였다. 공연시 사회자의 멘트 뒤에 바로 공연이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뜸을 들이는 경우가 있었다. 리허설을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사회자와 공연팀, 음향 엔지니어들의 팀워크의 완성도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④ 폐막식 - To be continue

가. 성과분석

청소년들이 제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알릴 수 있었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 개선 및 보완사항

마지막 공연팀이 공연을 마치고 공연 관람자들이 집에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일종의 공연 관람에 대한 매너를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축제때는 강조해야 할 것이다.

(3) 축제기획 및 진행을 통한 성과

① 청소년자치활동의 발판이 되었다.

2003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자치 모임 활성화를 위해 서부지역 청소년축제를 제작 할 수 있었다. 서부지역 청소년축제를 함으로써 서부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서 자신감을 얻고, 건전한 청소년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② 청소년들에 의해 제작된 축제였다.

축제가 가지는 특징은 바로 청소년들에 의해 기획·연출되었고, 청소년들에 의해 축제의 준비, 진행,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청소년축제라는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서 모두가 청소년을 위한 축제는 아니다. 서부 청소년동아리축제 Step By Step은 서부지역의 공연 문화에 관심이 있는 중·고생 25명으로 구성되었고, 공연제작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은 공연 제작팀이 직접 기획하였다. 청소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제를 자치적으로 기획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축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다는 인식을 사회 일각에 심어주었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③ 서부지역의 청소년문화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부지역의 청소년 문화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NO' 라고 대답할 것이다. 축제를 통해서 서부지역 청소년들만의 진정한 문화를 찾아 그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고, 또한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청소년문화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④ 성인과 청소년의 파트너십이 강조된 축제였다.

청소년 문화라고 해서 청소년들만이 주인공은 아니며, 청소년 문화의 울타리 안에 청소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문화의 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만이 문화의 주인공은 아니며, 청소년들은 성인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들 나름의 차별화된 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청소년축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들의 다양한 문화들을 체험해 보고 나아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7) 청소년축제에 대한 문제점, 성과 및 시사점

(1) 문제점

① 지역사회 특성을 담아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제주도 감귤축제라든지, 이천 도자기축제와 같은 지역사회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로 인해 안중지역의 청소년축제가 다른 지역 사회의 청소년축제와 차별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요즘, 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더 이상 특성이 될 수 없으며, 앞으로 지역사회내의 특성을 담아내는 축제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다른 축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저 그림 축제로 전락할 수 있기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전통문화를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2004년 서부지역 청소년축제 Step by Step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자는 취지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소통의 장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전통문화를 현 프로그램들과 접목시켜 기성세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Step by Step이 안중지역 청소년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인가?

위의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처음으로 시도된 청소년들이 기획 및 제작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기성세대가 만든 축제를 닮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본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으로 청소년문화를 상징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원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④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소년들 중에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25명의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축제를 제작하였다. 25명의 청소년들 중 주기적으로 25명에서 20명이 축제를 준비하였다. 주기적으로 참여한 20명의 청소년들. 하지만 참여 단계가 참으로 다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경우 담당 지도자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역할들을 찾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 담당 지도자와 고등학교 2학년 임원들이 결정 내린 역할에만 적극적 참여율을 보인 반면, 어떤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가 있을 때는 주도적인 모습보다는 수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하게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은 거의 내성적인 청소년들이 대다수였다. 친해지기 위해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의 대답은 아주 짧았다. 대답 대신 웃음으로 대신할 때도 많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팀원들이 답답해했다. 중학교 청소년들 또한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회의 시 내성적인 청소년들은 거의 의견을 내지 않았

고,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에 의해 회의가 주도됨을 볼 수 있었고, 팀원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청소년들 스스로 하는 것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란다.

(2) YOUTH PRODUCTION의 성과

① 프로그램의 특성화

청소년문화의집 자체 내부 행사나 입지한 안중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최초의 평택 서부지역의 지역 연합 청소년축제로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자치활동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서 청소년자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에서 청소년축제를 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내부행사로 국한시키지 않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여 사례발표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②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

가. 청소년축제 제작전 자치 환경 조성

축제를 제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어떻게 하면 정말 청소년들 스스로 제작한 축제가 될 것인가? 축제를 제작하기 위한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YOUTH PRODUCTION안에 자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지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도자에게 의지 하지 않고 청소년들 스스로 축제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3분 스피치, 발성법, 회의진행법, 회의 예절 교육 등이 제공되었다.

나. 축제제작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청소년축제의 제작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평택 서부지역의 어떤 곳에서도 제공을 하지 못했던 교육으로 최초의 청소년 축제제작 전문교육으로 축제제작, 축제평가, 축제홍보, 마케팅기법 등이 제공되었다. 또한 축제기획팀에게만 제공되었던 교육의 폭을 넓혀 참여마당팀, 공연마당팀에게도 전문교육이 제공되어 청소년 참여마당팀 같은 경우 행사의 기획에서부터 제작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에 관해 알 수 있었고, 공연마당팀 같은 경우 무대연출을 위한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연팀들이 무대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콘서트 현장체험 및 공연기획자와의 미팅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김경호 콘서트를 직접 체험하고, 콘서트 기획자와의 미팅을 통해 YOUTH PRODUCTION 팀원들은 공연제작의 실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축제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라. 청소년 스스로 회의진행, 활동보고서 작성

YOUTH PRODUCTION 팀원들은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전체회의를 진행할 때에 총감독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직접 사회를 보고, 부감독이 칠판에 회의안건과 내용을 적게 된다. 또한 서기가 전체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전체회의가 끝나면 팀별 회의에 들어가게 된다. 팀장의 진행하에 이루어지며, 회의가 끝나면 팀별 활동을 하게 된다. 팀별 서기가 또한 팀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3주에 한 번씩 전체 회의 때 팀별 활동 보고를 하여 다른 팀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팀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한다. 담당지도자는 지도의 역할보다는 조력자의 역할로,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주는 역할들만 하여 개입을 최소화 하였다.

마. 청소년들 스스로 프로그램 홍보

청소년 지도사의 요구로 홍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 축제를 위한 홍보를 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포스터를 제작하고, 비가 많이 오는 주말에도 나와 지역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으며, 직접 학교를 찾아가 담당 선생님과 프로그램을 설명하였고,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홍보지를 나누어 주며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었다.

바. YOUTH PRODUCTION 팀원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회 제공

즐거봐!(참여마당)에 필요한 행사기획 및 제작에 관련된 전문 교육 및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 행사 진행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참가팀 중 몇 팀은 이번 축제에 참가 후 해체하는 것이 아닌 이번 Step by Step을 통해 작은 동아리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사. 교류의 장으로서의 축제 제공

평택 서부지역은 어쩌면 평택 안에서도 소외된 지역일 것이다. 평택 시내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택 시내에 거주하는 청

소년들이 안중이라는 동네를 찾기로 쉽지 않다. 하지만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왕래가 없던 지역을 왕래하며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과의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아. 축제제작과정 사진전시회 개최

축제제작과정 사진전시를 통해 축제를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축제제작과정 전시물을 제작하기 위해 활동 보고서들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정리하며, 활동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③ 프로그램 운영방식

가. YOUTH PRODUCTION의 자치활동

YOUTH PRODUCTION은 총감독(대표 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03년부터 점차 지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2004는 지도자의 개입이 거의 없었다. YOUTH PRODUCTION 2기의 경우 지도자와 임원이 회의를 한 후 활동계획 및 일정을 작성하고, 활동계획에 따른 각 팀별로 역할을 정하여 총감독의 진행아래 YOUTH PRODUCTION 전체회의가 진행되었고, 지도자에게 회의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생각에 차이를 보일 경우 청소년들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청소년들이 하기에 어렵다고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도자가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모든 활동은 YOUTH PRODUCTION 팀원들이 정한 회칙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나. 다른 기관과의 연계

타 기관에서 개최한 축제들을 모니터링 해보고,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과 미팅을 가져 YOUTH PRODUCTION팀들이 축제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다. 재정 지원

문화관광부와 평택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평택 YMCA 안중청소년문화의집내에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재정을 맡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였다.

④ 주변환경의 활용

평택시에서도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각 지역을 서로 연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의 연계가 없었던 곳에서 다양한 학교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3) 시사점

① 축제 정리 및 평가

축제 정리 후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축제 세부진행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축제에 대한 총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겠다.

② 축제 매뉴얼 작업

YOUTH PRODUCTION 팀원들이 힘을 합하여 축제제작과정을 나누어 작업들을 했다. 잘 쓰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축제제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주력하였고, 축제를 접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접했을 때 축제를 제작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도록 편하고 재미있게 제작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③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활용 방안 제시

처음부터 축제를 하려고 시작했다면 그 부담감이 컸을 것이고, 자칫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안중이라는 동네에 축제를 할 만한 공간과 무대를 비롯한 기자재나 예산이 없었다. 게다가 축제 기획단을 꾸밀만한 전문인력도 없었으며, 축제에 참여할 동아리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조금한 욕구가 지도자에게 희망을 주었고, 희망에서 시작된 지도자의 믿음이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었으며, 이런 청소년들과 지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멋진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고, 그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다.

축제를 처음부터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축제는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발전된 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무언가 부족함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을 통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갈등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다양함을 인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축제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자 교육의 장인 것이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청소년지도자 및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IV. 외국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사례분석

IV

1. 일본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사례분석
2. 영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사례분석

IV. 외국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사례분석

1. 일본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사례분석*

1) 일본 축제의 개념과 이해

(1) 일본 축제의 개념과 역사

축제의 개념에 해당하는 일본식 용어에는 마츠리(祭)라는 표현이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츠리가 사시사철 어느 곳에서나 행해진다. 그들 스스로를 “마츠리의 국민” 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오늘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다” 라고 말할 만큼 일본 국민의 마츠리에 대한 정열과 관심은 대단하다. 마츠리는 우리말로는 흔히 제사 혹은 축제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히라가나로 ‘まつり’ 또는 카타카나로 ‘マツリ’로 표기될 때도 있고, 한자를 사용하여서는 ‘祭’ 혹은 ‘祭り’ ‘お祭り’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미 일본 표기 문자의 하나로 정착되어 버린 로마자를 이용한 ‘matsuri’ 란 표기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마츠리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마츠리의 표기 방법도 달라지며, 표기 방법은 바로 그 내용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마츠리와 관련되어 쓰이는 용어는 제사(祭祀)·제례(祭禮)·제식(祭式)·제의(祭儀)·식전(式典)·의식(儀式)·의례(儀

* 이 부분은 이은주가 집필한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禮)와 제전(祭典)·축전(祝典)·축제(祝祭)·향연(饗宴) 등으로 다양하게 분파되고 있는 것이다.

마츠리는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 인생의 각 마디마다 행해지는 통과의례를 필두로, 각 집(家)에서 한 해를 주기로 행해지는 연중행사들, 어떤 집단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각종 의례 및 행사, 그리고 천황이 행하였던 국가적 단위의 그것에 이르기까지 마츠리가 가지는 범위는 대단히 넓다. 종교 시설과의 관련에서 보면 신사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과 사원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 혹은 양쪽이 혼합된 양상의 것도 모두 마츠리라 불린다.

계절별로도 정월부터 파종과 모심기 철에 걸쳐 행해지는 춘제(春祭), 음력 6월에 행해지는 하제(夏祭), 수확 후에 행해지는 추제(秋祭), 그리고 12월의 동제(冬祭)가 있다. 이것들은 그 생태적 환경에 따라 다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른바 농촌 마츠리는 봄과 가을에, 도시 마츠리는 여름에 많이 행해진다. 전자는 풍작을 기원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짙으며, 후자는 병마(病魔)나 재액(災厄) 퇴치를 기원하는 것이 많다. 겨울 마츠리의 경우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제액(除厄)이나 영력(靈力)을 획득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 것이 많아 도시·농촌 마츠리 모두에 공통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념·축하·선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는데, [xx 상점가 마츠리]라고 하면 그 지역의 상점가가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특별세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역과 범위가 넓은 마츠리이지만, 다른 여러 사회에서 보이는 축제의 본질과 그 패를 달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화적 세계의 재현’ 혹은 ‘신성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통해 신과 공생함을 확인하고 생명과 질서의 재생을 꾀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기 때문이다. 즉 마츠리는 인간이 가진 종교

적 심성에 뿌리를 두고, 삶의 전체의 과정에서 신에 대한 기원과 감사가 그 기본 정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츠리의 동사 원형인 마츠루(奉る, 獻る, 祭る, 祀る)라는 말 자체가 ‘신에게 봉헌하고 제사하다’라는 종교적 행위를 뜻하는 말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변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마츠리의 이미지는 집단적이며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일본의 마츠리는 본래 신화적 세계의 재현, 혹은 신성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의해 신과 공생을 연출하고 생명과 질서의 재생을 꾀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이는 이른바 축제의 본질과 그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즉, 일본의 마츠리 역시 인간의 종교적 심의에 뿌리를 둔 것으로 삶의 과정에서 풍년이나 무병식제에 대한 기원과 감사가 그 기본 정신이었다. 따라서 마츠리라는 단어를 번역된 우리말로 제사 혹은 축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마츠리는 그 포함하는 분야가 다양하여, 마츠리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마츠리의 표기 방법도 달라지곤 한다.

일본 마츠리의 과정을 보면 대개 두 개의 요소 혹은 측면에 의해서 구성된다. 즉, 엄숙함과 경건함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성적(聖的)인 측면과 소란과 난장으로 이어지는 세속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신도(神道)의 제식(祭式)이나 불교의 정진(精進), 회식(會式) 등이 전자의 사례에 속할 것이며, 음주와 가무 등을 통한 집단적 고양에 의한 엑스타시 등은 후자의 예에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례가 중심이 되는 측면은 제사(祭祀)로, 잔치와 향연이 그 중심이 되는 페스티벌적(festive) 측면은 축제(祝祭)로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츠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데, 가령 종교시설과의 관련에서 보면, 신사(神社)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마츠리와 사원(寺院)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마츠리 등으로 구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 행하는 마츠리가 있으며, 이 외에도 집안(家) 차원에서 혹은 의사혈연집단(同族) 차원에서 행해지는 마츠리도 있다. 혹은 전통적 생활양식에 기초하여 계절별로 행해지는 마츠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정월부터 파종과 모심기철에 걸쳐 행해지는 봄 마츠리, 8월에 행해지는 여름 마츠리, 수확 후에 행해지는 가을 마츠리, 그리고 12월의 겨울 마츠리가 그 것이다.

과거에는 마츠리라고 하면 이러한 종교적 측면에 기반을 둔 마츠리 혹은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연중행사 등에 기초한 마츠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문화의 외부자에게는 마츠리라고 하면 종교적인 것 또는 전통적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점점 사회가 변화하고 집단의 규모가 복잡하게 되면서 전통적 마츠리와 무관하게 축제적 성격의 축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전후(戰後)인 5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50, 60년대의 일본 사회는 고도경제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노동력이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역사회는 심각한 과소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로 향한 젊은이들 때문에 침체된 지역사회를 재생시켜 보려는 “무라오코시(村おこし 마을 일으키기)” 라고 불린 지역활성화 정책은 많은 지역사회에 마츠리를 파종시키게 된다.

한편, 정주(亭主)권 구상이란 이름으로 마츠리나 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도시권에의 정주를 구상한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이란 국가정책도 마츠리의 대량생산에 일조하게 된다. 즉, 70, 80년대에 나타난 일본의 현대적 마츠리의 극적인 팽창에는 50, 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부산물로서 지방의 과소화 및 도시

의 집중화라는 현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80년대 후반의 각종 마츠리들은 정부 행정이 만들어 낸 작품들이다. 즉, 국가나 현(縣)의 사업,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것들은 행정적 지원하에 상기 외곽단체들이 활동주체로서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는 현재 과거의 마츠리들과 다른 성격의 마츠리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도시 인구의 증가로 지역사회는 반대로 침체되자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츠리를 국가 정책적으로 대량생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통적 마츠리의 종교와 신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퇴색하였으며 도시는 많은 인구의 유입과 정착으로 인해 현재적 개념의 마츠리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의 마츠리는 일본의 지방자치의 가치 확립과 친목도모, 관광 상품의 개발 등에 좀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역사가 짧은 마츠리의 경우 대부분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며, 도시의 경우 단순 오락적인 것에서 심적 해방감을 주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다 같이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마츠리의 성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마츠리에 열광하고 있으며, 독특한 일본만의 문화로서 전국 각지에서 연령층과 관계없이 다양한 마츠리가 진행, 생성되고 있다.

(2) 일본 마츠리의 기능

마츠리가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가장 최소 구성단위로서의 개인이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

는 점이 마츠리의 시공간은 바로 일상을 벗어난 카오스와 엑스터시의 시공간이다. 이는 바로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것 혹은 하지 못하게 금지된 것들로부터의 해방공간인 셈이다. 이곳에서 개인은 일상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소우주를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집합으로서의 가족 또는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인이 마츠리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 지적된다.

즉, 각 개인이 속한 집단과 사회의 통합과 정체성의 확인 기능을 마츠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 이 경우 마츠리는 그 주체집단에 의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시되는 것은 일치단결된 정신과 힘이다. 가령 가마나 수레로 거리를 누비게 될 때 그 팀의 리더십에 따른 팀워크는 유감없이 발휘되고 확인된다. 이와 함께 부수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각종 예능이나 경기에서도 이들 팀 구성원들의 결속과 의사통일은 집단의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는 매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마츠리의 기능으로서 평소에 쌓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역할도 있다는 점이 곧잘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예전에 권력자들에 의해 마츠리가 이용되어 온 측면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즉 마츠리에는 그 진행을 맡은 주재자를 필요로 했는데 권력자는 이 주재자를 임명한다든지 겸함으로서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마츠리 영역의 확대는 지배권의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츠리가 실제 수행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대립이 그대로 나타나는 일은 많지 않았고 일상에서의 갈등을 재통합한다는 전제 하에서 마츠리는 행해져 왔다. 마츠리에 보이는 지배층에 대한 풍자 또는 대항적 요소들은 마츠리가 가진 이러한 갈등해소와 조직 통합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때문에 집단과 사회의 구조가 복잡화하면 할수록 그만큼 유희적 요소가 들어간 의사적 투쟁 즉, 싸움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형태로 마츠리의 부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마츠리의 역할이나 경비 분담의 방식, 의례공간의 위치나 행차 경로의 결정 방법, 축제의 내용, 경기나 예능의 선택과 진행 상황 등에 마츠리와 그 조직의 내부 구조가 분명하게 반영되는 것은 바로 마츠리가 가진 정치·경제적 측면 때문이다. 그래도 마츠리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 그 자체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성원들에 의한 공동체적 질서유지와 재생산에 순 기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기능들이 줄어들게 되면 일부사람이나 집단 조직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벤트나 쇼 혹은 단순한 향연이나 퍼레이드로 전락해 버리기도 한다.

여러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축제’의 의의와 기능으로 흔히들 ‘일상의 전도’를 지적한다. 축제는 일상을 비일상적 시공간으로 격리하며 세속의 삶을 일정 기간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축제가 끝나고 다시 일상의 질로 전환 될 때까지 지속되게 된다. 일본사회의 마츠리도 바로 이러한 축제의 일반적 속성과 다르지 않음은 앞에서 보아 온 바이다. 일상의 시·공간을 ‘비일상적 시·공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카오스의 해방공간과 거기서 얻게 되는 희열감·도취감이 마츠리의 최대 매력이 된다는 점이 바로 마츠리의 기능과 역할이자 현대적 번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마츠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개인적 측면의 기능, 사회적 측면의 기능, 상업적 측면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적 기능으로 일본 마츠리의 가장 큰 기능 중 한 가지인 개인이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현

대적인 마츠리의 경우, 과거에 도시가 임시적인 삶의 터전에서 영구적인 삶의 터전으로 그 인식이 바뀌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기쁨을 추구하는 기능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것들 혹은 하지 못하게 금지된 것들로 부터의 해방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강렬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마츠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또는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확인과 마츠리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 변화를 통해 지역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능으로 마츠리는 행사 그날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행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사가 끝난 후까지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된다. 오랜 기간 마츠리를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방에 대한 긍지와 함께, 협동을 통한 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을 높여 간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각자가 맡은 분야에 충실해야 굴러가는 수레처럼, 이웃은 한데 뭉쳐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일본인들의 단결된 협동정신의 원천은 어려서부터 일생에 걸쳐 여러 차례 체험하게 되는 마츠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츠리는 이렇게 놀이를 통해 주민간의 협동의식을 고양시키는 가장 일본다운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상업적 기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츠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타지역에서 온 많은 손님들로 인해 숙박업소, 상점 등은 호황을 이루게 되어 지역경제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매년 일본의

마츠리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외국인에게 마츠리는 일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 체험으로 지역적 특색과 함께 역사적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틀에 박힌 단순한 여행에서 벗어나 색다른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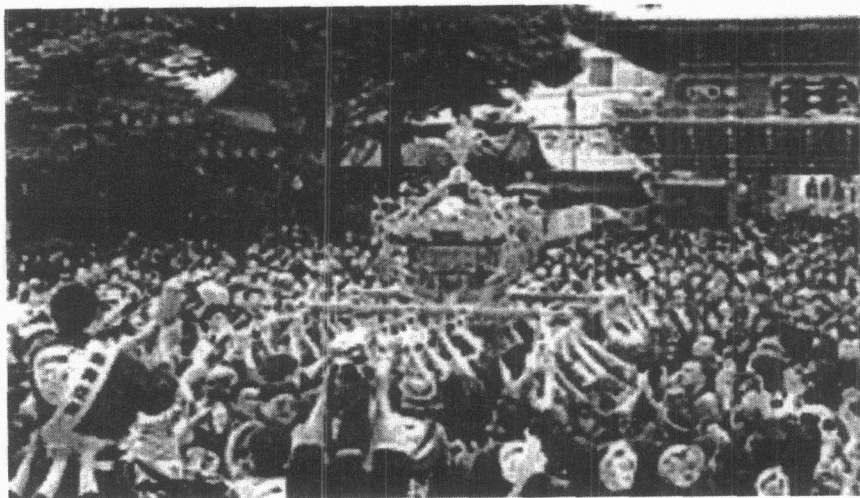
(3) 일본의 대표적 축제

일본의 청소년축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마츠리와 현대적 마츠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일본 축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① 일본의 전통 마츠리

전통적인 마츠리는 우선 마츠리 주체와 관련된 신 혹은 초월적 존재를 불러들이고 영접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마츠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의 치장에서부터 집안, 동네, 거리, 시가지를 꾸미고, 준비한 여러 음식이나 술을 신에게 바치는 의례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일련의 의례과정이 끝나면 신 혹은 신의 상징을 가지고 그 마츠리 집단과 관련된 구역이나 지역에 행차를 하게 된다. 이는 마츠리의 종류와 지역적 특색을 가지지만 대표적인 것이 미코시(神輿)로 불리는 가마다 다시(山車) 또는 야타이(屋臺)라고 불리는 수레의 행렬이다. 이러한 전통적 마츠리를 수행하는 것은 신사나 절의 신관이나 승려, 그리고 총대회(總代會)와 같은 임원조직과 함께 마치구미(町組)나 정내회(町内會)조직 등이 중심이 된다.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기획,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다.

가. 도쿄의 간다(神田) 마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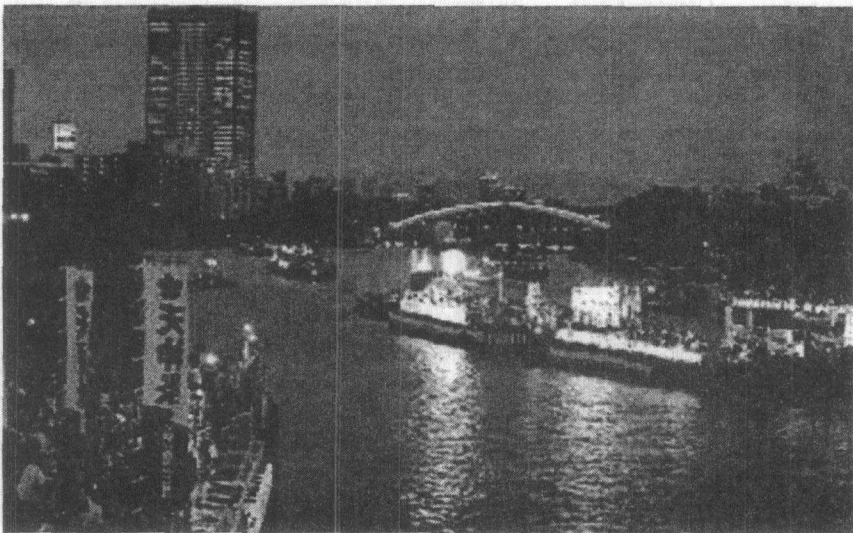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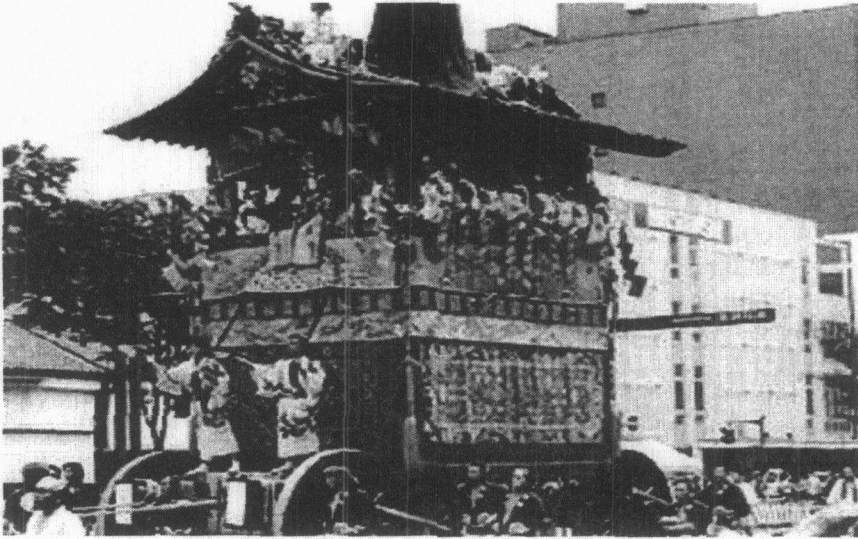


치요다구(千代田區)에 위치한 간다는 헌책방가로 유명한 곳이다. 이 간다의 마츠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벌인 축제가 그 기원이다. 매년 5월 14일에서 15일에 행해진다. 과거에는 히에(日枝)신사의 산노(山王)마츠리, 후카가와(深川)마츠리와 함께 에도의 3대 마츠리의 하나로 불렸을 정도의 에도 시대 마츠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108개의 자치회에서 90개의 미코시(御神輿: 신위를 모시는 가마)를 선보일 정도로 그 규모는 엄청나다. 간다 마츠리는 현대에 들어 주민 뿐 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은행이나 일반 기업들이 참가하여, 마츠리를 지원한다.

나. 오사카의 텐진 마츠리

텐진 마츠리는 물의 도시 오사카(大阪)를 대표하는 마츠리로 1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또한, 일본 3대 마츠리이자 일본 3대 선상 마츠리이기도 하다. 서기 949년에 텐만구(天滿

宮) 신사가 건립이 된 다음 해 6월 1일에 경내 해변에서 가미호
코(창과 도끼 구실을 하는 무기)를 바다에 띄워서 그 가미호코가
표착한 해변에 제사단을 마련하여 시령을 안치하고 목욕재계한
것이 그 기원이다. 매년 7월 24일에서 25일에 행해진다. 하이라



이트는 25일에 있는 여름 대축제와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후나토쿄이다. 후나토쿄는 약 100여척의 화려한 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사이다. 육지에서 뿐만 아니라 강에서 축제를 즐기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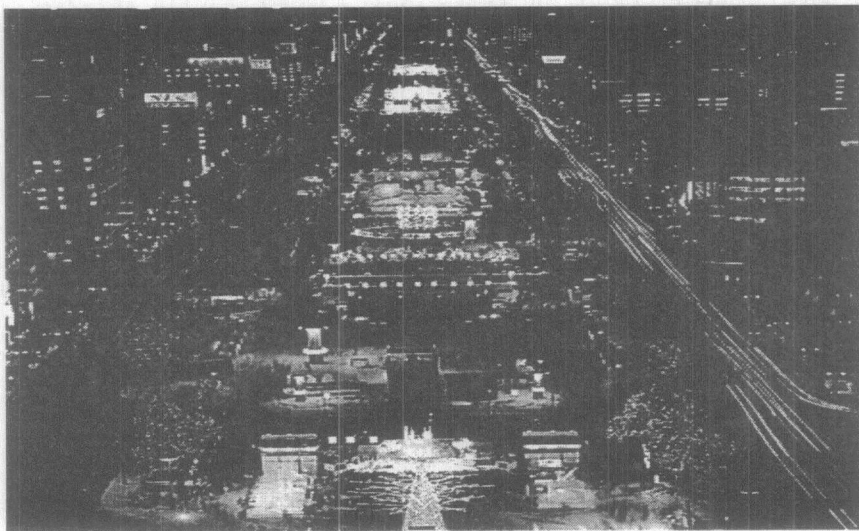
다. 교토의 기온 마츠리

기온 마츠리는 실제로 일본의 최대 마츠리로서 다른 어떤 마츠리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최대의 축제이다. 기온 마츠리는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약 1100년 전에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기원했던 어령회(御靈會)가 그 기원이다.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데, 특히 16일과 17일의 야마보코(山鉾: 2층으로 구성된 가마로 위에 산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 가마처럼 사람이 끌고 가는 차의 일종) 제등과 행차가 유명하다. 야마보코는 높이가 20미터가 넘으며, 그 위에 사람들을 태우고 행차를 하므로 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행진할 수 없다. 또한, 야마보코 위에서는 치고(稚児: 곱게 단장하고 참가하는 어린이)가 북을 치면서 춤을 춘다. 따라서 행사 전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같이 꾸준히 연습을 하여 결속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일본의 현대적 마츠리

신앙적, 종교적 색채를 벗어난 성격의 마츠리들이 현대에 들어 오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마츠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전후 50년대부터 시작하여 70, 8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전통적 마츠리에 비해 현대적 마츠리는 중소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도시의 이름을 앞에 내건 박람회, 페스티벌, 카니발 등을 포함한다. 이들 중에는 1970년

대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행해지면서 내용과 조직 면에서 전통적 행사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또한, 전후(戰後)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관광 진흥적 성격을 가지고 시작한 것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시가지나 광장 또는 공공시설, 가설무대나 운동장과 같은 곳을 중심으로 퍼레이드, 콘테스트, 바자, 쇼, 경기 등을 펼친다. 기획과 운영조직 역시, 전통적 마츠리와는 달리, 지자체, 관광협회, 청년회의소, 상공회의소 등이 중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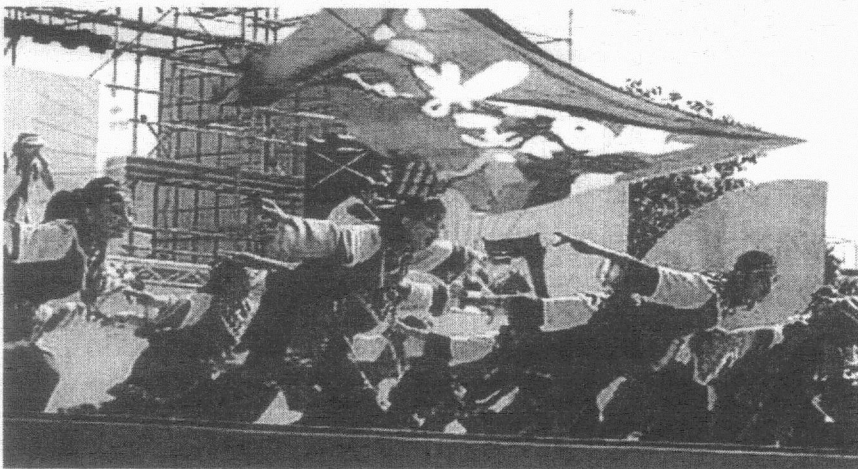
가. 삿포로의 유키마츠리(눈축제 雪祭り)

일본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1950년, 삿포로의 중·고등학생들이 6개의 눈으로 만든 조각상(雪像)을 오오도오리(大通り)공원에 세웠던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눈싸움, 눈 조각상전, 카니발 등이 함께 열려 예상을 넘는 5만명이라는 인원이 몰리면서, 이후 삿포로의 겨울 행사로 지정되었다. 매년 2월 1일에서 11일까지 삿포로의 오오도오리 공원과 마코마나이 두 대회장에서 열린다.

1959년에는 25,0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눈 조각상 제작에 나서기도 했으며, 1972년 동계올림픽이 삿포로에서 개최되면서 지금은 눈과 얼음의 제전으로는 세계제일의 대규모 축제로 꼽히고 있다.

나. 고베의 고베마츠리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하는 고베 마츠리는 그 전통은 짧으나 그 뿌리는 7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경제가 불황이었을 때, 당시 고베 시장(市長)이 국제적인 도시 고베에 있던 미국, 폴란드 관계자로부터 로즈 페스티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미나토 마츠리(항구축제 港祭り)라고 하는 시민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마츠리와 달리 시민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낸 새로운 형식의 마츠리였다. 행사내용은 미나토 여왕의 제관식, 국제대행진 등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전후(戰後)에 다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행해졌다. 또 하나의 뿌리는 고베 카니발이다. 1967년 고베 개항 100주년의 일환으로 행해진 미나토 마츠리 전야제에서 고베 카니발이 행해졌다. 이는 보도관계자의 제안으로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부인단체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모여 개최한 것으로 춤, 노래, 가장 퍼레이드, 예술가 그룹에 의한 벽화, 젊은이들의 청년광장 등 빛, 색, 음악이 모인 축제였다. 이후, 시내의 교통사정 악화로 미나토 마츠리의 행렬이나 꽃전차 실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 1971년에 미나토 마츠리와 고베 카니발을 없애고 고베 마츠리로 만들어 매년 5월에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어린이회나 지역 모임 외에도 외국의 무용단이나 사업체들도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다.

다. 코치시의 요사코이 마츠리

원래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자시키오도리(座敷踊り)라는 춤이었으나, 1950년 새롭게 안무 된 요사코이 춤이 남국코치산업 대박람회에서 선을 보였다. 그 이후, 코치상공회의소와 고치시의 공통 개최로 계속적인 요사코이 마츠리를 매년 8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1954년 요사코이 마츠리 진흥회가 발족되었고 그 해 8월에 제 1회 마츠리가 개최되었다. 현재는 인구 300여만명에 불과한 중소도시에서 축제 기간에는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으로 꽉 차게 된다. 축제의 내용은 200여 참여팀들이 노래에 맞춰 요사코이 춤을 추면된다. 간단한 규칙 외에 각 팀마다 자유가 주어지므로 장기간 새로운 안무를 만들고 연습을 하여 다른 팀들과 춤을 겨루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성공적인 대표적 축제들은 모두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지역의 전 주민과 기업, 상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또한 그 축제를 보기 위해 모여 든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일본이라는 의식을 심어 준다. 현대적 축제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젊은 청년 단체가 중심이 되어 참가하는 퍼레이드가 많으며, 일본만이 아니라 외국의 팀들을 유치하는 등, 일본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인 느낌을 주는 축제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일본의 모든 대표적인 마츠리는 어느 한 연령층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하나가 되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축제와 관련된 일본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일본 청소년축제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일본의 청소년 정책과 축제

일본의 청소년 정책의 대상은 0세에서 24세까지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연령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근로청소년복지법에서는 15세부터 24세까지를,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하고 있다. 우선, 이 기준으로 일본의 청소년 인구 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 현재, 일본의 총 인구는 1억2,743만5천명이며 이 중 청소년(0세-24세) 인구는 3,330만8천명으로 총인구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1,706만6천명 여자는 1,624만2천명이다. 일본의 청소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동경을 중심으로 한 세 현(사이타마현 埼玉縣, 치바현 千葉縣, 카나가와현 神奈川縣)의 청소년 인구가 871만8천명으로 전국 청소년 인구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경, 카나가와, 오사카의 청소년 인구는 200만명을 넘어, 청소년 인구가 전체적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 정책을 이전에는 총무청 청소년 대책본부에서 담당하였으나, 현 내각이 출범이후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내각부에서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부서로는 노동후생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등 14개 부처에 이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부현에 중앙부처의 하위부서인 청소년 관련부처, 청소년문제협의회, 아동복지심의회, 교육위원회가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청소년 사업은 지사 또는 시장의 업무에 속하며 여러 부처의 청소년에 관련된 사무를 조정하고 청소년문제협의회가 현의 지사나 시장 또는 도시, 읍, 소재지의 행정기관에 속해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출한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요한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활동의 장려를 들 수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청소년이 학교 이외에서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공민관(公民館)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좌를 들 수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활동의 촉진,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단체 지도자 연수, 청년 국내연수 등에 문부성이 일부 경비를 원조하는 등 청소년 지도자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둘째, 단체, 그룹활동의 촉진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부모와 교사의 모임(PTA)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조직활동으로서는 어머니 클럽, 어린이회 육성회를 정(町) 단위 또는 그 이하의 소지역 단위로 조직하도록 지원 및 보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촌 청소년 그룹활동 육성, 녹화활동, 근로청소년의 여가시간간의 그룹활동을 위한 근로청소년 홈 설치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활동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

체의 조직은 공통의 흥미나 관심, 지역, 직장중심, 환경이나 생활 조건을 유대로 결성되고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문화활동의 장려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청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예술감상 기회의 제공, 문화활동 장려, 문화재 애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체육·스포츠의 보급, 진흥을 들 수 있다. 학교 체육대회 지원, 지역스포츠 진흥사업, 라디오 체조사업, 지도자 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체력증진을 위한 국민운동을 들 수 있다. 1964년 동경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중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 영양개선, 체육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보급 등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을 추진하는 모체로서 1965년 3월에 “체력증진 국민회의”가 결성되었으며, 매년 10월이 “체력증진 강조의 달”로 제정되어 국민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가 실시되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육성 국민운동을 들 수 있다. 청소년육성 국민운동은 모든 국민이 서로 힘을 합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전개하는 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은 1965년 9월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가 행한 청소년비행대책에 관한 의견제시를 계기로 1965년 11월 정부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결집시킨 운동으로 시작했다.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966년 5월에 사단법인 청소년육성국민회의가 발족했으며, 1967년에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육성 도도부현민(道都府縣民) 회의가 결성되었다. 시정촌(市町村)에는 청소년육성 시정촌민 회의가 결성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청에서는 1966년부터 청

소년 육성국민회의와 각 도도부현에 대해 전면적인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와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민간단체로는 청소년 단체가 37개 있으며 청소년 시설은 대개가 공공시설로 국립 올림픽청소년종합센터, 국립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공민관, 자연공원, 근로청소년회관 등이 있다. 이러한 물적 자원들은 청소년들의 이용도를 높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 시설과 그 시설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다음 일본 청소년축제의 특징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일본 청소년축제의 특성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기획, 참여하는 축제로서는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축제를 들 수 있겠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는 지역이나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학교에서 공공시설을 빌리거나 공동으로 축제를 여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 축제 안에 청소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등도 있으나, 편의상 학교, 지역, 공공시설과 단체라고 하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각각의 대표적인 축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사례들을 통해 일본 청소년축제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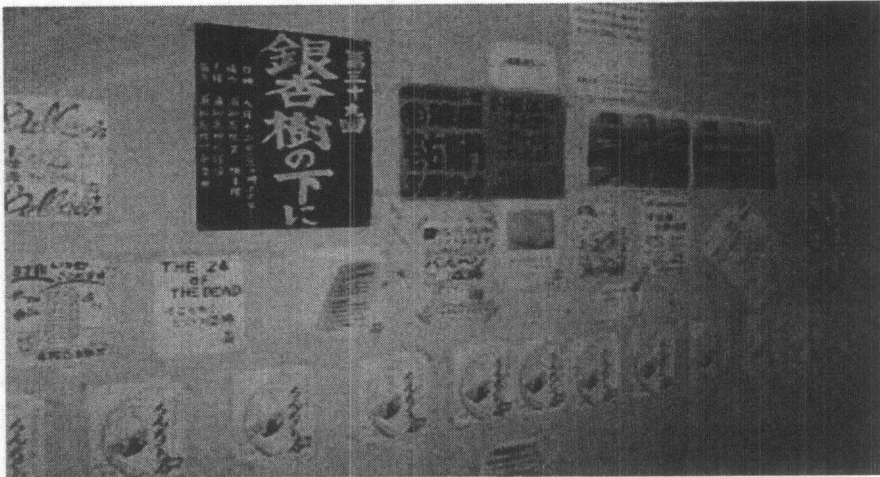
(1) 학교 축제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행하는 축제를 분카사이(文化祭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제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가을에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문부성의 「교육지도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행사」는 의식적 행사, 학예행사, 건강·안전과 체육행사, 여행·집단숙박 행사, 노동·생산과 봉사적 행사의 다섯 가지로 반드시 중·고등학교에서 문화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문화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 문화제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 축제 시기와 목적이 각기 다르다. 보편적으로는 전시, 연극이나 영화, 귀신의 집, 음식 판매, 음악, 댄스 등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① 사례 1. 사이타마현립 우라와 고등학교 「우라코사이」

매년 우라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테마를 공모하여 그 테마에 맞춘 문화제를 한다. 2004년의 테마는 「2/366 이야기」로 정해졌다. 올해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생활의 최대 이벤트인 우라코사이가 성공시키기를 열망하는 우라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행운과 같은 것이다. 이 366일 중 이틀간 문화제를 펼친다는 의미에서 이런 테마를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년 우라코사이에는 주변 학교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문화제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8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온다. 실제 참가 단체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학급의 팀들과 각 동아리, 그리고 유지단체, 동호회, 학생회 등이 참가한다. 2004년에는 네 종류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가. 우라코 최강왕

우라와 고등학교 최강의 남자를 결정하는 이벤트로 달리기, 들

기, 당기기 등의 체력승부와 머리 겨루기를 실시한다. 남자고등학교라는 특징을 살린 이벤트이다.

나. It's 笑 time!!!!

가장 웃기는 사람을 겨루는 이벤트이다.

다. 미스 콘테스트

남자 고등학교에서 미스 콘테스트를 한다는 것에 흥미를 갖고 찾아올 것을 겨냥한 이벤트이다.

라. 엔터테이너 모임

일반 공개 시간에 개최되는 댄스, 각종 공연, 마술 등의 무대로, 학생만이 아니라 동호회나 유지들도 참가한다.

이외에도 특별 기획으로 우라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쓴 시를 전시하며,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강의형식의 발표를 하는 공개강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들과 함께 티셔츠, 리스트 밴드, 핸드폰 고리, 클리어 파일을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벼룩시장을 개최하기도 한다. 실행위원은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두 명 외에도 고문, 선전부장, 특별기획담당, 이벤트담당, 물품담당, 포스터담당, 식품담당, 회계, 홈페이지담당, 정리담당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는 물론 최근 고등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핸드폰 사이트도 제작하여 홍보와 실행위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을 통한 선전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② 사례 2. 치바현립 야쿠엔다이 고등학교 「린도사이」

치바현에 있는 야쿠엔다이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9월에 대규모의 문화제를 연다. 올 2004년으로 42회째를 맞이하는 「린도사이」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문화제라고 한다.

각 학급모임에서는 연극, 귀신의집, 식당을 준비하며, 학교 서클 이외에도 동호회, 유지(有志)단체 등도 참여한다. 역사 깊은 문화제인 만큼 문화위원회도 조직적이어서, 본부, 광고부, 선고(選考)부, 심사부, 식사지도부, 회계부, 회장(會場)부, 후야제(後夜祭)부로 나뉘어져있다. 선고부에서는 클래스 단체, 유지단체를 선발하는 역할을 하며, 식사지도부에서는 위생지도, 조리실 사용지도를 담당한다. 후야제부는 린도사이의 두 번째 종료일에 행해지는 후야제와 문화제 전 날에 행해지는 전일제, 문화제 첫 날 마지막에 실시되는 추첨회 등을 기획 및 운영한다.

전일제에서는 각 단체의 1분 홍보를 하며, 후야제에는 사전에 경음악 동호회 중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세 개의 밴드가 멋지게 장식된 체육관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의 이벤트인 댄스파티로 막을 내리게 된다. 린도사이 홈페이지에는 야쿠코(야쿠엔다이 고등학교의 약자)댄스를 소개하고 있다.

③ 사례 3. 교토부 아야베시의 히가시아야 중학교의 문화제

단순히 즐기는 형식의 문화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도회의 결정이나 학교의 취지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문화제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히가시아야 중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결된 복지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제를 통한 교류를 꾀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히가시아야 중학교는 지역사회의 실현과 과제를 직시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재의 기초를 육성한다

는 목표를 가지고 청각언어장애자 복지 시설인 「이코이노 무라」와 조선초중급학교와 교류를 해왔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회 실행위원회는 2002년에 「친구들도 알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제」라는 제목으로 수화를 사용한 사회, 설명 그리고 OHP에 의한 연극 대본 보조 등, 학생들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들을 살린 축제를 열게 되었다.

그 이후, 「츠나구 (繋ぐ 연결)」이라는 테마로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문화제에는 조선초중급학교의 학생과 이코이 무라의 청소년들을 초대하였으며, 히가시아야 중학교 측에서는 합창, 연극, 인형제 등을 발표했다. 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무용과 중학생들의 민족악기 연주 발표를 선보였다. 그리고 이코이 무라에서 얻은 체험담 교류에 대한 감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와타이코(일본의 전통 악기. 큰 북)를 연주하는 팀을 초청하여 그들의 연주에 조선학교의 민족 악기와 히가시아야 중학교의 북 연주가 어우러진 피날레로 문화제는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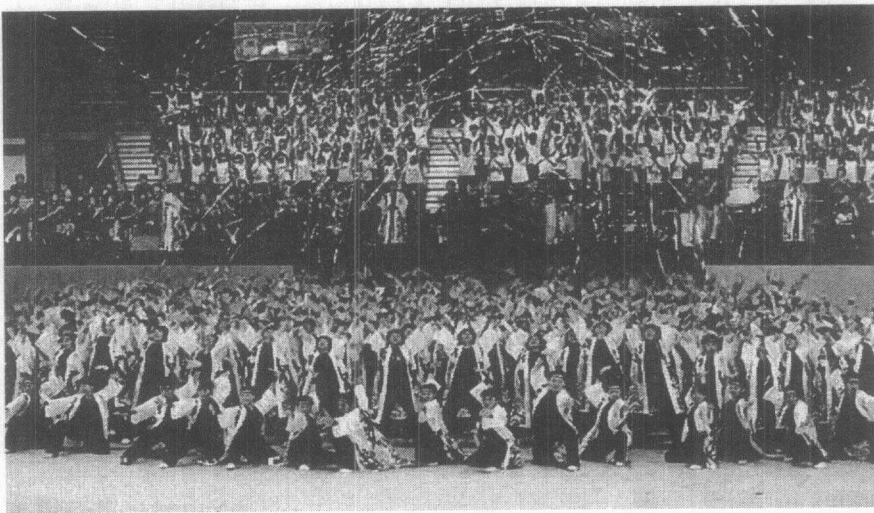
④ 사례 4. 전국 고등학교 종합문화제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고등학교 종합문화제는 전국 고등학교 문화연맹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적 규모의 축제이다. 사단법인 전국고등학교문화연맹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지원과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제28회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는 시코쿠의 토쿠시마에서 열렸다. 5일간에 걸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일본 전국의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였다. 28회 축제는 여러 나라의 예술문화 활동의 발표와 교류를 통해 창작성 풍부한 문화예술활동을 발전시키며, 서로간의 우정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토쿠시마라고 하는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3대 기본 방침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대회의 테마, 포스터, 마스코트, 이미지송 모두가 토쿠시마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하였으며, 축제 기간 동안에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토쿠시마(徳島)의 주민, 행정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가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총합 개회식을 시작으로, 퍼레이드, 합창, 연주대회, 향토예능대회, 마칭밴드대회, 서예, 사진, 장기, 바둑, 웅변대회, 복식문화 전시, 연극, 일본 음악 대회, 차도, 국제교류, 방송대회,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 축제의 결과로써 각 부문별로 문부과학대신 장려상, 문화청장관상, 우량상 등이 수상되어 참가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하였다.



(2) 지역사회기반의 청소년축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일본의 청소년 도시집중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청소년 문제를 보

는 시각도 달라지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의 이용 방법도 달라졌다. 실제로 대도시인 사이타마현(埼玉縣)이 2001년에 실시한 「청소년 의식과 행동 조사」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의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한 응답자가 76.4%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관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9.7%나 되었다. 즉,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서로가 잘 모르며, 서로 어울리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청소년 생활의 중심이 된 지금, 도시에서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지역 사회는 봉사활동과 지역의 축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앞의 조사에서 초등학교생, 중학생 모두 「지역의 축제」참가를 통해 지역활동을 한 경우가 6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계속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의 전통 문화와 마츠리의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간의 교류 뿐만 아니라 인구정착과 전통 문화의 유지를 꾀하고자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시, 농촌에 관계없이, 일본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마츠리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사이다. 종교적 의식이 희박해진 현재 도시의 축제에 있어서도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적 마츠리는 신사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마츠리는 주로 봄 또는 여름, 그리고 가을에 행하여지는데 지역별로 그 시기도 방식도 다르지만, 그 기본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평소에는 신사에 모셔져 있던 신을 미코시(神輿)라고 하는 가마에 태우고 옮겨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특히, 많은 신사의 축제에서 코도모미코시(子供神輿: 아동이 들고 가는 미코

시)를 볼 수 있다.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협동심과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 등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참가하는 지역사회 축제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다.



① 사례 1. 도쿄 토미오카 하치만구(신사)의 코도모미코시렌고토교 마츠리

「코도모미코시렌고토교」라는 것은 아동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미코시를 들고 일정 구간을 거쳐 신사까지 오는 것을 말한다.

도쿄에 있는 토미오카 하치만구에서는 매년 에도(江戸) 삼대 마츠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후카가와 하치만 마츠리」를 개최한다. 「코도모미코시렌고토교」는 작년부터 본 축제 전에 실시된 것으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여러 대의 미코시를 운반하는 행사이다. 2004년에는 모집된 초등학교 학생들이 34대의 미코시를 들고 약 1키로 정도의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 행사는 「후카가와 하치만 마츠리」의 아동 버전이라고 할 수 있



는 것으로, 미래에 「후카가와 하치만 마츠리」에서 미코시를 운반할 어린이들에게 미리 체험해 보고 관심을 갖게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아직 정착된 축제는 아니나, 세대를 거쳐가면서 마츠리를 이어가자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축제라고 할 수 있겠다.

② 사례 2. 센다이의 타나바타(七夕) 마츠리

미야기현에 위치한 일본 동북지역 최대의 도시인 센다이에서 열리는 타나바타(칠월칠석) 마츠리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지역 축제로, 청소년만이 참가하는 축제는 아니지만, 출연 단체의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일본 지역축제가 그러하듯 센다이의 타나바타 마츠리 역시, 300여년전에 시작된 전통 깊은 축제이다. 지금의 타나바타 축제가 열린 것은 1927년 불경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센다이 상인들이 모여 열리기 시작했다. 그 후 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축제는 불꽃놀이를 하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3일간에 걸쳐 펼쳐진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체가 특별한 장식물들로 가득하며,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오리지널 타나바타 춤을 추는 단체에서부터 시작하여, 2004년에는 미야기현 공업고등학교, 히로세 고등학교의 밴드 퍼레이드, 지역의 아동모임, 청소년으로 구성된 힙합 그룹,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몽골 등 해외팀들도 참가하여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 축제는 센다이 타나바타 마츠리 협찬회에서 주최하며, 센다이 상공회의소에서 구체적인 사무를 본다. 즉,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팀들이 참가하나 지금의 타나바타 마츠리의 본래 목적이 상점들이 번영을 기원하는데서 시작한 것처럼 지금도 센다이의 전 지역 상점들이 협동하여 열고 있는 전국적인 마츠리라고 할 수 있겠다.

③ 사례 3. 가와구치시의 청소년 마츠리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가와구치시는 도쿄에서도 가까우며, 인구 48만이 넘는 산업도시이다. 가와구치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많은 청소년 단체와 이들을 연결하는 가와구치 청소년 단체 연락 협의회가 있다. 이 협의회의 가맹단체는 연합 소년단, 아동회 연결협의회, 소년 소녀 합창단 등 20개 단체가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이 가맹단체들과 함께 청소년 마츠리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청소년 마츠리는 매년 여러 청소년 단체의 팀들이 나와 경연을 펼친다. 다이코(일본의 전통 북) 클럽의 북 연주, 시민악단의 관악 연주, 축구 소년단의 축구 경기, 보이 스카우트의 직접 제작한 놀이 코너 등이 펼쳐진다. 즉, 가와



구치 시내의 각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하나의 축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가와구치시에는 그린 센터라고 하는 공연과 운동 등이 모두 가능한 시설도 갖춰져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소년단체 및 시설 주관의 축제

① 사례. 이와테야마 국립 청년의 집 - 텐 파크 페스티벌

이와테야마 국립 청년의 집의 경우, 여러 지역 교육 위원회와 공동 개최로 지난 2004년 9월 이틀 간 텐 파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모집 인원은 2000명으로, 넓고 다양한 시설이 있는 청년의 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변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야외무대에서 각종 단체의 발표, 추첨회, 창작활동, 지역 특산물 판매, 체육관과 탁구장 이용, 레스토랑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이벤트이다.

② 사례. 전국 아이들과 자연체험 페스티벌

2004년 10월에는 후쿠시마에 있는 나스카시 소년 자연의 집에서 전국 「아이들과 자연체험」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틀간에 걸친 이 페스티벌에서는 작가, 대학 학장, 보호자들을 심포지스트로 한 심포지엄, 악단을 초청한 콘서트, 하이킹, 승마 등의 자연체험과 떡, 소바만들기 등의 문화체험, 창작체험, 놀이체험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③ 공민관

공민관은 1946년부터 문부성에서 전국에 공민관을 설치할 것을 장려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특히 공민관은 사회교육법에 따라 일정내의 지역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학술 및 문화 사업을 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각종의 교실강좌, 전시회,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사업을 한다. 2002년 현재 전국에 17,947개관이 있다. 공민관 역시 자체적으로 여름 마츠리, 가을 마츠리 등 일 년에 한두 번 축제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민관에서 기획하는 축제의 경우 그 대상이 청소년에 한정되지 않으며, 음악회, 작품 전시회 등 이벤트 형식인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나 단체에서 공민관의 공간을 빌려 공동으로 이벤트나 축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외에도 아동문화센터, 근로 청소년 복지시설, 유스호스텔, 농촌청소년활동 촉진시설, 청소년의 숲 등의 시설이 있으며, 각 시설별로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4) 일본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시사점

지금까지 전반적인 일본의 축제, 즉 마츠리의 개념과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일본 청소년축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학교 축제

한국처럼 혹독한 대입 전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선 입시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일본의 교육적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치메, 청소년 비행, 부등교(不登校)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그 해결책으로 문부성은 유토리 교육(ゆとり教育, 여유를 갖는 교육)을 내세우고 전국 고등학교 종합문화제와 같은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과 외 시간을 동아리 활동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다양한 동아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 역시 전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본의 학교는 학생들의 이러한 특기를 모아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고 학생들의 소속 의식과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축제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낸다.

학생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학교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출판된 책자들의 수나, 자신이 문화제 연구가라고 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로 부터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제 활동 역시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실시하지 않는 국·공립학교가 많이 있다는 점, 동아리활동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학교공부를 등한시하는 학생과 부모 학교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체험이나 국제

교류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문화제도 많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 문화제가 재미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겠다.

(2) 지역사회 기반형 축제

현재 일본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고도산업화), 지역사회경제구조의 변화(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핵가족화), 커뮤니케이션구조의 변화(정보화),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정부를 비롯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범죄, 비행 등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사회 단결을 통해 지역에 공헌하며, 건전하고 활기찬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도시 지역은 지역 사회 교류를 주목적으로 하며, 농촌 사회는 지역의 전통 계승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도 청소년 중심의 축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지역의 신사나 절, 또는 지역 단체들은 지역의 예술, 문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의 축제 참가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 속의 일본인을 키워 간다는 목적의 축제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주목적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본 지역 축제의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지역의 축제는 역사와도 관련이 되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역의 축제와 접하면서 자라온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얻고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게 된다. 또한, 청소년축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규모의 축제가 일 년 사시사철 행해지고 있다.

문제점으로서 최근 일본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축제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축제에 상업적인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3) 청소년단체 및 시설 주관의 축제

일본의 청소년 시설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퍼져있으며 그 수와 규모에 있어서도 선진국임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공립 시설의 경우 최근에 모두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서 많은 축제와 행사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공민관이나 도서관 같은 마을 가까운 곳의 시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집이나 소년 자연의 집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 한정된 청소년들에게만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2. 영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사례분석*

1) 영국 지역축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

영국에서는 매년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벌어진다. 그중 8월의 에딘버러(Edinburgh) 축제는 영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거리로서, 이미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에딘버러(Edinburgh) 국제 축제나 런던의 노팅힐 카니발(Notthing Hill Carnival)은 영국의 축제를 대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에딘버러(Edinburgh) 국제 축제

* 이 부분은 박선영이 집필한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의 경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축제가 진행되기도 하며, 그 참가자·방문자의 수는 과히 헤아리기 불가능 할 정도이다. 8월의 에딘버러(Edinburgh) 도시는 마치 축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듯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총동원이 되는 축제이다. 런던 노팅힐 카니발(Notthing Hill Carnival)의 경우도 그 인지도가 영국에서는 매우 높은데, 연간 150만의 인구가 참여할 만큼 이 역시 상당히 큰 규모로 행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축제이다.

이처럼 축제가 일상생활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축제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축제가 연중 기획되고 행해지는 영국은 연간 500여건의 축제가 전국의 곳곳에서 하루 단위 혹은 주간 단위로 소그룹별, 지역별, 넓게는 전국적인 축제의 규모를 가지고 축제를 이루어 내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축제는 그 대상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계획되기보다는 전체의 축제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서의 일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청소년축제를 포함한 영국의 축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발전되어왔으며, 그 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한국의 청소년축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축제의 의미와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고, 축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져 왔는지에 관해 그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며, 종류별 축제의 목적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또한 축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되는 지, 운영 주체는 물론, 참가자는 어떤 부류가 되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시사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축제의 역사 및 배경

영국의 축제의 역사는 공식 문헌상 1161년의 Scarborough Fayre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그 역사가 길고, 축제의 모습 또한 그 긴 역사 가운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지녀왔다. 그러던 것이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한 허무주의, 냉소주의의 팽배가 가족중심 생활로의 귀환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가족단위의 문화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되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양적 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되었다.

Scarborough Fayre 다음으로 영국 축제의 중요한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축제는 1713년도의 Three Choirs Festival로서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1789년의 Norfolk and Norwich Festival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오래된 축제들의 출발점은 모두 예술 축제였으나 지금은 모두 종합문화예술축제로 그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의 발달과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축제 역시 한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도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던 축제들도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며 잠시 중단되고 소멸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1945년 이후 다시 회복되어 그 지역의 중요한 축제로서 당당히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영국엔 수많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으니, 앞서 언급한 대로, 영국과 축제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축제들의 역사와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역사에서 오래 살아남고 기억되고 사랑받는 축제일 수록, 조직과 운영 면에서 탁월하고, 재정 면에서도 지역 사회 산업체로부터의 스폰서십이나, 다른 재정기구(지역 정부, 국제로타리협회(National Lottery Council) 등)의 재정적 지원이 수월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축제의 기간과 시기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가가 용이한 학교의 방학을 반영하여 영국의 주요 인기 있는 축제들은, 영국의 학제상 가장 긴 여름 방학이 있는 7월과 8월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축제가 발전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예술협회’와 ‘지역축제운영위원회’의 발전과 성장이 될 것이다. 이 두 시기동안 지역예술협회는 그 지역의 ‘지역개발위원회’와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의 증진과 그에 따른 지역 경제의 부흥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의 축제도 그러하듯이, 영국의 축제 또한 지역의 단합과 결속, 유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과 영국도 축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요시할 만큼 축제의 위상과 권위가 높아졌으며,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축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지방정부들이 축제를 유치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영국의 정책연구소(Policy Studies Institute)의 1992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전통적인 축제가 물론, 지역사회를 유대하고 그 끈을 강화하는 데 한몫을 한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러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의 질적, 양적 진흥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축제를 처음으로 기획하고 의도한 이들이 모두 문화예술에 있어서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이 축제로 인하여 평상시 문화 예술의 혜택에서 제외 되어있던 일반인들에게까지 보급되고, 그것들이 더 개발, 연구 된다는 것도 축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축제의 배경들과 역사적 의미를 학교현장들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지역사회의 축제에 학교가 참가하기 위해서 학교들이 문화 예술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그 예이고, 아트/디자인 과목, 그리고 다른 과목들을 통하여 학교가 축제에 참가 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축제가 가지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배경이 될 것이다. 특히, 2002년 이후 시민교육이 중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초·중학교에서도 권장 교과목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학교와 시민교육과 지역축제를 결합하여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있다.

영국의 축제의 역사 중에 팔목할 만한 또 다른 요소 중의 하나는 유럽국가들의 EU 통합 이후, 특별히 영국에서의 국제적 규모의 축제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축제만큼 지역을 결속하고 통합해 내는데 좋은 것이 있을까? 그러므로 영국내의 축제뿐만 아니라, 유럽내의 축제는 그들의 유럽 연합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영국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국제 축제들은 영국 정부가 EU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를 증명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거의 모든 도시 마다 있는 여름의 도시 축제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영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가 있는 지를 투표하고 선정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가 가능할 만큼 축제의 노하우와 역사가 있는 영국은 그 축제의 전통과 역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을 위한 축제도 더불어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도시의 지역 축제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청소년축제의 역사도 영국 전체의 축제의 역사만큼 길고 종류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양한 축제의 종류와 그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상황에서의 청소년축제가 어

떻게 발전 될 수 있는 지를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축제는 전통적으로 축하(celebration), 안식(relaxation), 회복(recuperation)의 의미가 있었으며, 지역 문화의 재확인(reaffirmation), 재정립에 그 가치를 두어왔다. 영국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축제는 Scarnourough Fayre로서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축제들의 경우는 전문적인 예술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축제로서 현재의 영국의 축제들은 다른 유럽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결속시키는 방안으로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잘 알려진 에딘버러 축제(Edinburgh Festival)의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문화활동으로 알려지고 계승되어오던 작은 축제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예술협회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그 규모의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 눈에 띄일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양적인 팽창을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축제의 시기들을 살펴보면,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주요 축제가 기획, 운영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1980년대에 만들어진 축제들의 경우는 직접적인 문화예술의 발달과 발전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전후 세대의 현대 예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들로, 전통적인 민속축제와 구별되는 현대적인 축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3) 축제의 다양성과 목적

영국 축제의 유형들은 매우 다양한데, 하나의 예술형태만을 담은 획일화된 축제도 있는 반면, 여러 형태의 예술형태들을 복합적으로 담은 축제들이 보편적인 영국의 축제 유형이다. 이러한

축제들은 보통 음악, 무용, 드라마, 영화, 문학, 시, 인형극 등의 형태들을 각기 다른 모습들로 담아내게 되는데, 이러한 축제들을 통하여 전문적인 예술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을 위해 축제를 통해 문화 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중적인 효과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특별히 청소년축제의 경우는 대규모 지역사회의 유명한 축제들과 어우러져 행해지게 되는데, 이런 축제 외에도 주제별, 분야별로, 캠페인의 성격을 띤 축제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IV-1>는 영국정책연구소가 축제 진흥과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조사한 것으로써 그 형태를 통하여 영국 축제의 종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 IV-1> 축제의 기간과 축제의 종류

단위 : %

구분	축제 실시 기간				합계(N)
Type of Festival	2-3일	4-7일	8-14일	2주-1달	
General Arts	6	13	49	32	100(138)
Mixed Music	11	31	31	27	100(29)
Classic Music	11	36	34	19	100(36)
Jazz	42	23	32	3	100(31)
Folk	76	17	4	3	100(70)
Single art form	22	13	36	29	100(45)
합계	26	18	34	22	100(349)

출처 : 영국정책연구소 1992년 보고서.

가장 흔한 축제의 유형은 물론 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 예술 형태의 축제이고, 그 다음의 유형은 음악이면 음악, 드라마면 드라마 등, 한 장르의 예술 형태만을 추구하는 축제이다.

이러한 축제들의 경우가 대부분 성인을 위한 행사와 아동,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나뉘지기도 하며, 가족중심의 행사로 또한 나뉘어 지기도 한다. 영국과 한국의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문화 예술 활동중심의 여가생활이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영국의 전통적인 가족 우선, 가족 중심의 문화 제도와, 주 5일 근무로 인한 충분한 여가 시간,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 중심의 여가 생활과 문화 축제는 앞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하고, 점차 복지 국가로 발돋움 하려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청소년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사회전반에서 소외되어지기 쉬운 계층으로 인식하여, 오히려 청소년정책과 행사들이 그 어느 유럽사회의 경우보다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유럽 및 영국의 청소년 관련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의 행사에 녹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주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청소년축제가 청소년만을 위한 축제로 더 발전되어 나가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가족 중심의 사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할지는 어떤 점에서 보면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이건 가족 전체를 위한 축제이건, 축제의 참가자가 축제의 주인공과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축제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용되고 오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축제의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 누구에게나 축하와 안식, 재창출의 의미를 갖는 축제가 되어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선순위에 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종류와 기원과 목적을 가진 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궁극적 축제의 목적은 모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1년 단위로 운영되어지고 민속축제나 재즈축제의 경우는 2~3년에 한번 꼴로 행해지는 것도 있다.

축제의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삶의 질적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의 제공, 그리고 축제로 더불어 파급되는 경제 효과들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겠고, 이밖에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축제나, 웨일즈의 축제들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축제로 계승하여 그 지역을 결속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또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교육적인 효과인데, 아동과 청소년이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함이다. 그리하여 많은 축제들이 그 축제의 내용 가운데,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건전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과정들을 담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수업의 연장선에서 축제를 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학교 전체가 축제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학년의 일부나 학급의 일부가 축제에 참가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의 축제를 돕기 위한 사전 워크숍들도 미리 기획되어진다. 거의 대부분의 축제에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이 음악인데, 많은 축제들이 지역 학교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이용하여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데, 이것들 역시 사전 워크숍과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영국에서의 축제는 비단 청소년 단체 내에서의 축제 뿐 아니라, 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도 연계되어지는 보다 넓은 유형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단순히 축제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을 보고 배우

고 즐기는 것도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교육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축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청소년들이 미리 기획과 진행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고 투입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축제를 청중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조직자(organizer)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004년 Aberdeen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축제에 개입하고 투입되었을 때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그 기대 이상이며, 이것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축제에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청소년을 위한 축제, 그리고 청소년을 대변할 수 있는 축제,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축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과 접근 통하여 기획된 청소년축제가 다른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매력을 끌고 인기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런던 영화축제의 경우는 축제의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올리기 위하여 사전에 청소년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학습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거나,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한 청소년 활동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영국의 많은 청소년단체들은 학교와 무관하게 독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상황에서처럼,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축제와 학교의 청소년축제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 좋은 사례 중의 하나가 영국의 유명한 청소년단체이자, 자원봉사 단체이고, 시민교육단체인 CSV(Community Service Volunteer)가 청소년

을 위한 축제들을 지역사회와 연합하여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놓고 보면, 청소년 단체가 축제를 주도 했다고는 하지만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청소년축제가 얼마나 많은 교육 관련 기구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연구가 입증하듯, 청소년들의 축제에 대한 참여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지역사회내의 축제에 학교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청소년들이 그 축제의 기획단계부터 행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참여하게 되므로, 여러 면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별히 축제가 주로 일어나는 7월과 8월은 학교의 여름 방학기간에 해당되므로,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시기이다. 한국과 달리 시험기간과 중복되어 축제의 참여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고, 축제의 내용과 유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제의 시기, 즉 많은 참여자가 참가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간이 축제의 성사 여부를 가름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은 명백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국의 교과과정 중에 교차교과과정(cross-curricular)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떤 콘텐츠이냐에 따라서 전 과목에 걸쳐서 그 콘텐츠가 각기 다른 과목별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시행된 시민교육의 경우가 초등학교에선 교차교과과정활동(cross-curricular activity)으로 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각각의 세부 주제에 따라서, 과학, 지리, 언어 등 과목에 들어가서 행해지게 되는 경우가 그 실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축제가 지역 사회 학교와 연관을 맺게 되면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여러 과목의 학습의 일부로 준비되어

지고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축제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하고, 미술, 디자인, 체육, 수학, 공학 등의 과목들을 이용하여 축제의 내용을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기도 한다.

다음은 청소년들에게 유명한 두 가지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축제이다.

① International Live Music Event

영국에서 행해지는 가장 큰 규모의 라이브 뮤직 콘서트이다. 이러한 콘서트를 통하여 수상자는 음반을 취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청소년들이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게 하는 중요한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축제이다. 이 축제에는 P. Diddy나 Whitney Houston처럼 유명한 가수들의 찬조 공연도 있기도 했으니, 이 축제가 가히 얼마만큼의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② Aberdeen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196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열린 이 청소년축제는 음악과 다른 예술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이 발굴되고 길러진다는 점에서 또 의미를 갖는다.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서 예술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 축제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발레학교의 후원과 협조를 받으며, 3주동안 music summer school로 운영 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축제 도중에 일어나는 공연들은 티켓을 미리 구입하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고 인기 있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영국의 교육부가 캠페인 형식으로 권장하고 있는 청소년축제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Recycling, Wild life gardens/

biodiversity, Food awareness, Raising awareness about iss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ducing energy and water consumption in the school and home, Environmental audits, Using 'green' products, Links with overseas schools, Walking to school initiatives, Towards a sustainable school

③ Youth Hockey Festival

옥스포드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스포츠축제로, 영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스포츠축제의 하나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키 축제로 총 101개의 경기 열린다. 이 축제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하키의 기술과 경기방법을 가르쳐 주고, 건강한 취미활동을 하게 하는데 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 하키팀은 모두 이 축제의 예선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축제와 관련된 전문 하키 클럽도 운영되고 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코치와 스태프들이 운영하는 이 클럽 역시 하키를 좋아하고 즐기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④ Youth Hindu Festival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울려 있는 영국은, 역시 청소년 문화와 축제 역시 이런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다양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예가 되는 축제로서 힌두교의 전통 축제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이민자중 가장 많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들은 그들의 전통종교인 힌두교와 힌두문화를 그대로 영국에 옮겨와서 지켜가고 있으며, 이런 문화와 가치 역시 영국에서 살아가는 인도의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요구되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 힌두 청소년축제는 매년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11일에

걸쳐서 런던의 큰 공원에서 행해지게 되는데, 인도 힌두교의 전통과 문화를 이민세대들인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인도인으로서, 힌두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축제의 목적과 기원이 있다. 그러므로 이 축제의 중요 프로그램과 행사는 주로 교육적인 학습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다. 영국내에 이렇게 힌두 청소년축제와 관련된 청소년단체만도 22곳이나 된다는 것은 영국의 청소년축제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반영하는 지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영국 청소년축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청소년축제가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아울러 행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영국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쉽게 눈에 띄이는 것 중의 하나가 축제에 대한 광고이다. 물론 축제에 대한 광고나 홍보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1년전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기획하고 광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청소년축제들이 축제를 위한 축제를 위하여 단기간에 기획되고 행해지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는 주요 대도시마다 대도시 차원의 대규모 청소년축제가 1년 내내 개최된다.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부분 지역정부, 국제로타리기구(National Lottery Council)가 협찬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대도시 축제의 경우는 역시 지역주민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됨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별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는 굳이 런던이나 다른 대도시를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욕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대도시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축제를 열어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모습과 목적을

가진 영국의 청소년축제를 통하여 한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4) 한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소개한 영국 지역사회의 청소년축제에 관한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의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에 대해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축제 예산 규모와 축제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의 축제들에 소요되는 예산과 축제 수입 또한 그 규모가 큰데, 예를 들어 1991년 한해의 총 축제 수입은 176만 파운드로까지 집계되었다. 그 축제의 자금은 지역예술협회로부터 받는 예산이 7백만 파운드 정도이며, 지역 예술운영회로부터 2백만 파운드 정도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6백 80만 파운드 정도는 협찬금이다. 얼핏 보아도, 한국의 청소년축제가 가지는 예산보다 막대한 축제 예산 규모를 가진 영국의 청소년축제와, 국민 축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필귀정 아니겠는가. 축제준비운영위원회, 문화예술발전진흥협회, 지역산업체 등을 통한 축제에 대한 지원은 한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 방안에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자원봉사자를 통한 전문인력의 보충 또한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축제전문가의 계발과 육성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의 대규모 축제들이 많은 전문자원활동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청소년축제가 그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 가운데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도 포함되

는데, 이는 이미 한국의 청소년 사이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보편화
그리고 다양화되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청소년축제에
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소재로 개발 및 보급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자원활동자를 활용하는 것은 자원 봉
사 인력을 얻는 것 이외에 청소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축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다. 축제의 교육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청소년축제는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청소년들
에게 빠듯하고 각박한 교육의 현장에서 빠져나와 잠시 쉴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식이 더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
의 축제가 영국의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안에서 융통성
있게 교육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청소년축제
현실과 비교하여 볼 때 훨씬 더 많은 참가자를 이끌어 내고 청
소년축제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사회속으로 이끌어 내게 하는
좋은 본 보기가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지역사회 내의 축제
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성을 살리되, 더 넓은 지역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이 축제 안에 마련된다면 그것 역
시 축제가 가지는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될 것 이라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축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속되는 청소년축제가
없다' 라는 것이다. 영국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그 축제가 발전하
고 계승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일회성, 단발성, 화제만을 불러일
으키기 위한 청소년축제가 많아질수록 그 축제가 타당성과 정당
성, 역사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영국의 축제들처럼 지속성을 지닌 축제가 개최
될 때 지역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외국과의 교류도 가능한 것이

며, 축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영국의 축제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로, 영국의 축제의 장기성이다. 물론 이런 장기 축제가 가능 한 주요 이유는 영국 사회의 주 5일 근무제도와,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서 기인한다. 어느 교육 현상이나 그러하듯이,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는 사회 전체의 통합,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역시 한국의 청소년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여유로운 입시 제도와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사회의 구조적·정책적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것이지, 이 어느 것 하나 소홀이 여겨질 것은 없다.

여섯 번째로는 청소년축제의 주도가 누구냐에 관한 것이다. 물론 영국도 청소년축제가 국민 축제안에 일부로 운영되어지기는 하나, 그 운영 과정에서 여러 방법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고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한국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많은 여가활동,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전체적인 교육제도가 개편되고 청소년이 중심이 될 때 청소년축제의 활성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그러하듯이 영국의 청소년축제도 청소년이 대거 참여하기는 하나, 역시 청소년이 그 축제를 기획하고 주도 할 수 없다는 점, 물론 청소년기가 가지고 있는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축제를 기획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닐지라도, 그 청소년축제의 필요성이 어디서 비롯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축제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우선 명목상 청소년축제라고는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이며 누가 중심이 되는 축제인가. 어른들의 축제에 구색 갖추기로 끼워져 있는 축제는 아닌지, 혹은 축제라는 미명하에 다른 것들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축제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돕는 기회로까지 넓게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다. 영국의 경우 많은 축제의 스타일과 구성은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져 왔는데, 전 존 메이어 총리의 경우는 그의 재임기간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국제적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영국 축제의 국제화에 공헌하였다. 물론 이렇게 축제가 국가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축제가 가지는 파급효과 때문인데, 이러한 문화예술축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 내 산업 발달 (예를 들어, 교통, 숙박업, 쇼핑물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존 메이어 정부는 축제를 산업부흥의 기회로까지 이용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한, 청소년축제가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도 청소년축제가 가지는 의미있는 점이 될 것이고, 사회 전체가 청소년축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청소년축제는 물론 청소년 운동 전체에 대한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영국의 사례들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축제가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영국의 지역사회의 축제를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이양해 오는 것은, 문화적 토양과 기후가 전혀 다른 한국에 오히려 더 큰 문제점만 남기게 될 것이

고, 다만, 한국적 현실을 토대로 정확한 영국 축제에 관한 인식과 연구가 있게 될 때, 축제의 나라 영국이 한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5) 한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발전 방안

한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축제가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축제로 자리 잡고, 청소년의 건전한 청소년 활동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국의 청소년축제 전문기구와 운영회가 있듯이, 한국의 청소년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일회성, 단발성 청소년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청소년축제기구가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축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알리고, 축제에 대한 교육적인 요구를 담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청소년축제 활성화방안으로는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청소년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축제의 종류 역시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음악과 공연, 춤으로 일관된 축제에서부터 여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양한 축제가 선보이게 될 때 청소년들의 축제 참여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동북아시대를 맞이하고 한국이 그 동북아시대의 주역이 되고자하는 것에 보조를 위해서라도 더욱이 청소년축제가 다양성을 넘어 국제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의 청소년 종교축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점점 증가하는 아시아권 이민자들을 생각할 때, 청소년축제의 다양성과 국제화는 이제 우리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축제 활성화방안을 생각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청소년축제기관, 단체와 공교육기관의 연대라고 할 수 있겠다. 입시제도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공교육제도권의 청소년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협력 없이는 청소년축제는 존재하되,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는 축제만이 이루어지게 될 뿐이다. 이렇게 청소년축제가 공교육제도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입시제도의 변화에서부터 청소년축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청소년축제의 교육적 내용의 확대와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축제가 학교 수업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이상으로 영국의 청소년축제와 그에 따르는 시사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의 청소년 제도와 그 축제가 영국 청소년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듯이, 한국의 청소년축제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선행 조건일 것이다.

V.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문제점 및 한계점
2.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들
3.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 방안
4.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지원방안

V.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문제점 및 한계점

최근 들어 축제란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일상적 용어가 되어버렸고, 청소년축제 또한 청소년들의 일상화된 문화적 표현양식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규격화된 자유로움의 틀안에서만 가능한 학교축제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동아리한마당, 청소년댄스페스티벌, 청소년연극축제, 록페스티벌,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등 소규모·저예산의 자발적 축제에서부터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는 대형 축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다. 올 한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축제만 하더라도 천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정아(2003: 82-83)는 한국사회에서의 축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첫째 관주도형 축제의 남발로 인한 상부하달식 축제 거행의 문제, 둘째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낭비, 셋째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과 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 부족, 넷째 과도한 관광상품화에 따른 진정한 축제정신의 결여, 다섯째 역사적·지역적·전통적 고유성을 담은 축제문화 전수 의지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축제는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공통체적 특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현상으로

서의 문제점 및 한계성은 청소년축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문화성장 과정에서 늘 나쁜 습관처럼 반복되는 오류들이 청소년축제의 성행이라는 유행속에도 숨겨져 있음을 구체적으로 들춰내는 일은 흔치 않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일상처럼 확장되어가는 청소년축제에 대한 점검과 확인은 물론 다양한 대안 제시와 발전방향들을 제안할 수 있는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축제가 열리는 횟수와 형식이 확대되는 만큼 모든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가 확장되고, 자유로운 표현의 능력과 권리가 확장되며, 자발적 청소년문화 또는 세대교감이 가능한 문화적 소통의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주변에서 너무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가는 청소년축제의 질적인 측면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축제가 가지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지적을 위한 고민이 아닌 청소년축제가 가지는 유의미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은 청소년축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제II장의 축제의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인 축제의 의미, 청소년축제의 의미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결국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축제의 의미와 근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에 따라 축제의 내용과 성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축제의 다양한 시각들은 현대사회에서 자본이라는 메커니즘과 더불어 생산적 투자의 의미로서도 발전하게 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축제를 단순히 청소년에게 놀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또는 일상의 연결이 아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서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안

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는 삶의 진정성, 삶의 진정한 과정으로서의 일상, 포기하지 않은 유토피아를 위해 민족이나 지역, 집단은 물론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과정을 위한 축제로서의 시각이 필요하다. 즉, 축제가 청소년들의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나 일상과 연계되지 않은 소비적 축제로서가 아닌 일상과의 즐거운 연결과 세대간의 소통, 그리고 자발적 사회참여, 대안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의미한 가치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지향적 의미로서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자체가 최종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활성화 또는 대안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매개로 지역사회 청소년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Ⅱ장에서 언급된 ‘문화론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축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현장실천을 위한 시각에서 재정리하며,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근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청소년축제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들

- 청소년축제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실험정신 요구 -

청소년축제의 가치는 ‘축제’라는 집단적 행위 자체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 즉,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매개체로서 또는 건강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문화론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축제’는 바로 청소년축제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제시이기도 하다. 때문에 청소년축제를

만들어가고, 청소년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들을 고민하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제시할 전제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시대 지역사회 청소년축제가 담아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근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조직들이 축제에 대한 전제를 찾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합의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축제는 한 사람에 의한 발상과 기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문화와 사고 그리고 시각들이 공유되며 함께 만들어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축제기획의 초기단계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중요한 전제나 단서들의 개념규정과 합의의 과정이다.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축제에 대한 정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정의, 지역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개념정리 또는 축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축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이 공유되는 사전과정이 부족한 경우 보통 축제의 과정과 결과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뭔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다음 작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 부분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뿌리도 내리지 않은 채 많은 가지와 열매를 만드는 것에만 충실한 것과도 같다. 결국 많은 주체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전제와 단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청소년축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1) 청소년축제에 대한 재인식

청소년축제란 무엇인가? 기존의 청소년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축제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들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물론 축제의 정의는 정답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축제의 목적, 지역의 특성, 구성원과 청소년들의 요구와 시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다양한 축제의 정의나 의미 중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축제를 바라보고 정의할 것인가? 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축제의 정의 또는 목적 등을 표준화되거나 획일화된 무대공연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이벤트로 정의하는 것과 대안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주 다른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게 한다. 결국 축제의 시행주체(청소년, 실무자, 네트워크 단체 등)는 다양한 축제의 역사와 의미를 분석해보고, 또한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요구하는 것과 필요한 것, 변화해야 할 것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스스로의 연구와 판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시작은 평상시 놀이거리와 놀이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순한 축제의 형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사회나 개인의 욕구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축제 또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른 발전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고정화된 축제의 정의나 형식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의도, 목적, 상황, 요구 등에 따라 축제의 정의나 형식도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실험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청소년축제가 청소년에게 단순한 놀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세대간의 소통이 가능한 축제, 지역

사회의 제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제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²⁾처럼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축제를 매개로 함께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문화에 대한 재인식

청소년축제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청소년문화에 대한 정의나 시각을 만들어 가는 과정 또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대한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축제의 역사와 정의가 다양한 만큼 청소년 문화에 대한 개념과 정의 또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를 단순한 여가나 놀이, 또는 창조적인 예술활동으로만 생각하는 협의적인 시각보다는 문화가 담고 있는 사회적 유기성, 계급성 그리고 권리의 추구, 행복권의 추구 등 청소년들에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광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청소년축제가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 공공성과 교육적 효과는 물론 청소년의 인권, 노동, 복지 등도 포괄할 수 있는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접근과도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축제의 거의 모든 매개체는 청소년문화와 관계된다. 청소년 개인 또는 집단간의 문화적 표현, 문화적 소통, 문화적 경험, 문화적 상상력과 생산, 문화적 주체성 등과 연관되는 청소년축제는 결국 청소년문화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주체성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을 요구하는 기성집단, 또는 전통적 사고방식만을 고집

2) 제3장에서 제시된 '강북청소년문화축제'의 사례에서는 지역사회청소년축제의 장기적 실천을 근거로 한 단계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가족 등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한 정체성이 압도한 기성의 엄숙주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대중매체 문화가 압도하는 일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기존 의 패러다임, 기존의 방식으로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축제와 문화는 매우 유의미한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통해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문화를 매개로한 관계와 소통도 가능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소년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지역사회와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한 재인식

시공간을 수월하게 넘나드는 디지털화 된 시대(digitalized age)라고 말하는 지금에도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축제라는 쉽지 않은 명제 앞에 지역사회를 전제한 근거 중에는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삶에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고, 그 실천의 토대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들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은 청소년축제나 청소년문화의 재인식의 중요성과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축제와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마당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다양한 비전을 실천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적 공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서의 인식 등이 그것이다.

청소년들의 기본생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학교와 가정은 물론 1차적인 삶의 근거지로서 지역사회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다.

결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사회에서의 문화 활동들을 축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면 다양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문화활동의 거점이 됨은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안에만 갇혀있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들을 지역 내 청소년동아리축제, 학교 CA축제³⁾ 등을 통한 다양한 동아리간의 교류는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또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문화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빈민 지역의 경우 청소년활동관련 시설이나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치단체, 지역언론, 지역주민 등을 자극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을 지역현황조사, 지역 청소년육구조사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축제를 통해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

4)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통한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적 삶과 연관된 지역사회에서의 자발적 참여의 의미는 자신의 특정한 관심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행동하며, 자신과 관련있는 환경체계 즉 교육, 문화, 노동, 인권, 복지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개인과 집단, 사회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축제가 청소년들의 청소년의 문화적 참여⁵⁾를

3) 지역사회 내 각 학교의 CA활동을 지역사회 단체들이 연결되어 지원하고, CA축제로 발전시킨 사례는 (품 청소년문화공동체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http://www.pumdongi.org/dongi/main_03_co.htm)).

4) 이와 관련한 사례로 안면도 중학교의 산길축제를 참고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의 등교길인 숲길을 학교수업과 축제를 통해 변화시킨 사례이다. (문화예술교육허브사이트 / http://arte.ne.kr/new_arte/index.asp).

5)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의 참여는 앞서 제시된 두 가지 종류의 국내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은 물론 청소년선거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 또는 노동과 인권의 문제를 들춰내거나, 교육의 환경 등을 요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매개로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학생두발자유화운동이나 18세 선거연령 낮추기 운동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 공유하는 집단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이슈들과 관련된 축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⁶⁾의 활성화

지역사회 안에는 청소년의 삶과 연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 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등의 자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많은 자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일상과 연계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청소년들의 교육공간과 생활의 공간이 분리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조차 그들의 삶과 일상의 연결이 없이 분절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의 형태와 양은 늘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또는 효율적 복지시스템

사례 중 청소년문화기획집단의 성장과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6) 네트워크에 관한 고민을 하다보면 종종 네트워크(지역연대)를 위해 축제가 필요한 것인가?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네트워크나 축제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지역에서 어떤 목적을 공유하고 합의했는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어느 것이 먼저이던 최종의 목적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을 위한 지역사회 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조건은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중 지역사회에서의 각기 다른 삶과 영역의 일상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활동 또는 문화축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목적과 특성을 가진 집단이나 단체가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유기적인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사업)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단순한 모임과 관계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청소년의 일상과 연관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연계하게 만드는 계기로서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아닌 조금씩 확장되어가고 있는 지역의 사례⁷⁾들로 증명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6)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통한 대안적 지역공동체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가 가지는 최종 목표에는 어쩌면 지금의 지역사회 안에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대안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일 수도 있다. 청소년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속적인 청소년축제의 과정 속에서 최종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가? 는 지역사회의 주체들 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 안

7)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의 대표적 사례는 부천지역의 청소년동아리 (<http://www.dingading.net/>)의 운영사례와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인천송림동축제(http://arte.ne.kr/new_arte/index.asp) 등을 참조.

에 자신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대안적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노력은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가 가지는 최고의 의미와 가치일 수 있다.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며 살아온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삶의 공간과 영역들이 분리되어가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의 실천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로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축제만으로 지역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축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삶을 연결하고, 세대간의 차이를 공유하고, 자발적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와 관계할 수 있는 일상의 문화활동들이 축제라는 매개를 통해 공유되고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⁸⁾

3.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 방안

1)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건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 만들기를 위한 접근은 일반적인 단위 프로그램의 접근과는 달라야 한다. 특히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역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의도를 전제한다면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능력보다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보다 가치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8) 서울 마포구 성미산 축제는 대안적 지역공동체의 실천과 지역사회 축제의 연계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http://www.sungmisan.wo.to/>).

(1) 즐거운 ‘소통’ 속에서 잘 놀 수 있어야 한다.

축제의 기본적 속성에는 집단적 놀이와 유희가 포함되어 있다. 축제의 매력에 ‘즐거움’이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의도가 있다하여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과정들이 없다면 축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만 전락할 수 있다. 즐거운 참여와 과정이 있는 축제를 통해 세상의 모순과 문제를 들춰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이다. 여성의 외형적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즐거운 축제를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를 풀어내는 방식은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정형화된 틀로서가 아닌 즐거운 상상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고,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결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공중과 방송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놀이는 신체를 가진 인간이 세계와 관계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방식이며, 축제 또한 세상과의 소통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복한 축제의 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평적인 또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제의 의도와 계획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며, 축제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도 수 없이 많은 소통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결국 자신과 타인, 집단과 집단, 세대와 세대간의 문화와 의견들이 소통되는 과정 속에 축제가 발전할 수 있으며, 축제의 내용도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세상과 즐거운 소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2) 축제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요구된다.

청소년축제가 교육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 중에는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실천해볼 수 있는 경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미리 준비되고 짜여진 틀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소통 방식을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시작은 작고, 어설프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틀과 형식과 결과에 치중하게 되면 즐거운 과정이 생략됨은 물론 청소년들의 참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청소년축제의 바람직한 모델 중에 '소규모 저예산 축제모델'이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축제는 긴 과정과의 싸움이라고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긴 과정을 끈기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과정을 만들어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선 먼저 축제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험이 시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제 초기의 목적을 지역 내 청소년 동아리들의 교류에 두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 내 열악한 청소년 동아리의 발굴과 지원에 목적을 두고, 또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내 모든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또는 다른 지역 동아리와의 교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하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몇몇 단체로 시작하여, 점점 다양한 내용과 결과가 모여져 더 많은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러한 성장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 참여 주체들의 특성,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단계적·장기적 성장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⁹⁾ 이렇듯 장기적 계획에 의한 축제의 가능성은 목적과 내용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즐거운 놀이에서 시작하여, 청소년의 인권, 학교교육의 문제, 지역사회 환경의 문제, 청소년 시설과 공간 확충을 위한 요구 등 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성장과정 자체가 대안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살아있는 참여의 과정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가 다른 축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에는 살아있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다. 시작과 끝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축제운영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당일 행사의 모습과 결과에 치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축제의 의도와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일상의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는 더욱더 축제 당일의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 당일 행사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행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다.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의 틀 안에서 청소년들과 지역의 단체들이 어떠한 과정을 만들어 갔는가? 하루의 공연이나 참여를 위해서가 아닌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의 참여과정을 만들어 갔는가? 가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중요한 목적과 내용이 될 수 있다.

9) 보통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가 네트워크의 구축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까지는 5년 이상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 자체가 지역과 주체의 성장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와 성과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4) 구성원들의 역할이 공유, 통합되는 축제여야 한다.¹⁰⁾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중 하나가 각 자에 맞는 역할 찾기이다. 축제를 만들어가는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 역할의 배분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축제 기획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이라면, 청소년들에게 축제를 기획하는 역할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 또한 단계별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도 각자에 맞는 역할배분이 필요하다. 축제의 주체가 되는 단체와 조직에 있어서도 각자에 맞는 역할찾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역할분배의 주체는 누가 되는가? 그것조차도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 등 상황에 따른 역할찾기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각자의 맞는 역할을 민주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과정 또한 축제의 성장이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5) 기록, 정리, 평가의 과정도 축제의 중요한 작업이다.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현재를 바라보거나 미래를 조망하는 일은 불가능할 수 있다. 지나온 축제에 대한

10) 청소년축제를 포함한 많은 축제의 운영형태는 보통 축제의 핵심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주관단체(청소년기획조직 포함)가 축제의 실행주체가 되고, 지역의 단체나 조직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이를 지원하는 지원주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혼란이 오는 경우도 많다. 즉 청소년 기획단의 역할, 주관단체의 역할, 지역 네트워크의 역할 등에 대한 혼란이다. 현실적으로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제의 운영과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주관단체가 축제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와의 합의와 공유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일방적인 태도로 축제를 진행하려 했을 때는 많은 단체와 조직 간의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때문에 축제를 만들어가는 많은 주체들의 원활한 역할분배와 축제의 방향설정과 운영을 위한 합의와 공유의 과정은 지역 네트워크 유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기록과 정리는 현재의 시점부터 만들어 가야할 축제의 정체성에 근거가 된다. 축제의 과정과 진행에 대한 기록과 정리는 축제의 객관적인 평가와도 직결되며, 다음 축제의 예측을 위한 최고의 자료가 되기도 한다. 기록과 정리를 통한 평가의 단계도 축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어서 기록에 근거한 정리와 정리에 바탕을 둔 평가로 이어지는 축제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 할 수 있다. 평소 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또한 기록과 정리의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형화된 서류를 남기는 것이 아닌 경험과 능력에 맞는 기록과 정리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축제가 가지는 교육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기획 과정에서의 설계자료, 홍보자료, 회의록, 모니터 보고서 등의 문서기록을 포함하여 사진과 영상 등을 담아낼 수 있다면 축제의 성패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사례로서의 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4.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지원방안

법률이나 제도, 그리고 정책적 지원 등이 축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제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은 지역사회 안에서 축제를 시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고민과 노력의 의해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의 활성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등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과정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함께 만들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제시되는 지원방

안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이론상의 정책제안이 아닌 현장에서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실천적 효과성과 효율성적 접근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안

영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화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아닌 많은 개인과 조직과 단체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환경 그리고 축제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네트워크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가 축제모형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제안하는 축제의 모형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문화축제가기에 지역 네트워크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현장에서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안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실천이 없으면 실현될 수가 없다. 제도나 정책적 지원의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의 의지와 실천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적 지원도 지역사회 안에서 요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축제 활성화에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는 인적·물적 자원의 파악 및 자원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지역자원의 현황을 파악해야 함은 물론 다양한 조직이나 자원들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설득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당장의 사업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축제)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막연한 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그 활용과 연계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진다.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시작은 보통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축제가 지역 네트워크에 좋은 구심이 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용력과 전문적 능력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 간에는 수평적이긴 하나 나름대로의 중심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핵심(단체나 조직 등)을 필요로 한다. 형태에 따라서는 완벽한 역할분배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며, 사업에 따라서는 공동참여의 실행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조직 안에서도 사업에 따른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어 지기도 한다.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자원들에게는 사업방향에 따라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요구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자원들의 요구와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 맞는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체계는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특성 또는 축제의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른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의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지원 또는 축제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센터 등을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첫째, 단일 사업중심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이제까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민간지원재단 등에서는 주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갖는 지원체계의 한계일 수도 있다. 단일 사업과 단일 단체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체계나 네트워크 자체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장에서는 검증된 사례와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문화축제의 양성과 지원이 절실하다. 각 지역별로 많은 사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의 지원에 있어서도 단일조직에서 시행하는 축제보다는 지역 네트워크(컨소시엄 등)를 중심으로 제안된 축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단위 또는 자치단체 청소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실시 및 지역단체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문화 및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 이해, 청소년문화의 이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축제 필요성 등 기본적 소양과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 지역의 공무원과 지역 네트워크 간의 상호 이해와 연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청소년 자치활동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청소년활동과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해당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사회 청소년들 지원할 수 있다면 단순한 예산지원의 차원을 넘어 청소년자치활동 및 문화활동의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단체와 연계한 상시적 컨설팅지원은 물론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일상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문화기획 공모제 실시 등도 자치단체가 청소년 문화활동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내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적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축제가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적 자원을 양성하거나

외부의 전문인력 등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내 청소년들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문화와 축제관련 외부 전문조직이나 개인 등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노력은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지역주민 자체가 축제의 전문가이며,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 본 성인들의 축제에 대한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¹¹⁾ 보통 지역의 청소년과 실무자는 문화기획이나 축제기획의 전문가가 아니며, 지역 내 이와 관련한 전문가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 문화소외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단체나 전문가가 전무한 경우도 많다. 때문에 지역 내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은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결국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단체나 전문집단 등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키워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적 역량을 지닌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계획되고 운영되는 청소년축제라 하여도 이와 연계된 네트워크는 분야나 영역에 따라 반드시 지역적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 특히 문화예술이나 축제기획 등과

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문화, 청소년축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 인적자원 양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분야의 실무자와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품 청소년문화공동체가 주관하고 펴포먼스 반지하, 헤모, h.s 리서치, 사회복지교육원 등의 분야별 전문집단이 네트워크하여 2001년부터 시작한 청소년문화복지 아카데미(www.withyouth.net)의 커리큘럼과 운영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관련된 전문단체나 전문가와의 연계는 지역적 개념을 뛰어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관련 전공자 등의 청년작가나 청년문화기획자와의 연계는 청소년 문화활동과 축제 등에 중요한 네트워크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셋째, 전문적 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의 발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전문인력의 발굴은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강사풀제처럼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넷째, 농·어촌 지역 및 문화소외 지역의 집중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 및 문화소외 지역의 경우에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원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요구 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위한 지원방안

(1) 실천방안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이며 협력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상호간의 책임의식을 전제하며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고리를 찾아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과정은 지역사회활동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형성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지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연계사업에 있어 기존에 인식되어 왔던 역할분담의 개념과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을 위한 관련업체의 위탁, 수련회 또는 CA활동 진행을

위한 관련 청소년 시설의 위탁, 특기적성교육 등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강사 섭외 등과의 개념과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단순한 계약과 위탁의 개념이 아닌 학교교육의 실천을 위한 공유와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의 영역을 참견한다거나 침범한다는 개념이 아닌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개념이 상호 인식되어질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매개체로 학교와 연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신뢰에 기초한 연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당장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공적 책임을 전제로 끊임없는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결국 학교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 주체들의 노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 전제들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과 학교 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만들어 가야한다.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에서 우선 행동과 제안은 늘 학교가 아닌 지역의 몫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의 한계이며, 변하기 힘든 학교의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나 가능성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는 원인도 있다. 결국 지역사회가 먼저 지역의 다양한 시각과 자원의 존재를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험들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의 정규과정과 연관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계사업

12)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CA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지원과 같은 정규과정과 연관된 사업들은 보통 학교가 독자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활동이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학교연계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보다는 지역단체들과 사업을 연결해가며, 학교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의 활동들이 지역사회로 연계되고 결국 지역사회 청소년문화 축제와 같은 외부적 사업으로 연결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¹³⁾가 만들어지는 질 수 있는 것이다.

(2) 정책적 제안

첫째, 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가 사회의 정보를 습득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신뢰를 갖기 위한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노력과 함께 공신력과 지원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회의 정보를 학교에 알리고, 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와 지역자원과의 연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¹⁴⁾이

-
- 12)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사업의 성공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미디어활동과 연결하여 지역내 학교와 연계한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집이 추진했던 '영상에 담아보는 더 큰 세상' 등을 포함하여 강북청소년수련관, 서울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CA연계사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13) 학교와 사회가 신뢰감을 가지면서 만들 수 있는 단서는 문화활동과 관련한 사안뿐만 아니라 상담분야와 같은 다른 영역의 전문적 실천들도 포함된다.
 - 14) 교육부가 2003년부터 시행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의 경우 지정된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외부 전문가가 배치되어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함은 물론 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단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사례가 모든 학교와 사회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를 통한 지역 사회 내 정보안내 및 단체사업에 대한 홍보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학교교사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의 실무자의 연계와 사업공유를 위한 교육연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는 교사와 지역 실무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에는 교사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사와 실무자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이해를 가지며, 실천 가능한 교육실천 전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의 실제적인 구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내용의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연계사업 사례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연구 및 연계사업 매뉴얼 발간,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과의 연계활동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포함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계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모델사례 보급

첫째,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장기적인 목적을 향한 단계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모델개발과 사례보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현장의 요구이기도 하며,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뜻있는 단체들이 발간한 자체보고서나 매뉴얼 등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청소년축제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와 관련한 전문연구서나 다양한 영역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실전 매뉴얼은 전무한 형편이다.

둘째, 지역 현장에서의 노력이나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축제의 개념정리, 청소년 축제의 개념정리와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한 현장성에 근거한 이론과 개념들이 제시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축제의 모형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연구개발과 모델사례의 발굴 과정에는 반드시 전문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념과 이론은 전문 연구자에게만 맡겨지고, 현장 활용을 위한 매뉴얼은 현장 전문가에게만 맡겨진다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실무자는 지역사회와 청소년문화 그리고 청소년축제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현장을 바로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의 연구과정 역시 현장과 이론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실천되었던 청소년축제들이 자체적인 노력과 평가에 의해 제안되고, 또 이러한 결과들을 담아 새로운 모델과 사례들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현장 속으로 재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축제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현장 실무자와 전문 연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양자가 유기적,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각 지역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축제의 다양한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모델을 각 지역사회에 보급하며, 나아가 각 지역사회에서 실시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동우(1999), 기획축제 참가자의 내재적 동기, 내재적 보상 및 후속태도, **관광레저연구** 제11권 제2호, pp. 7-21.
- 고동우(2000), 기획 축제 참가자의 여가 경험: 내재적 동기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제1권 2호, pp. 187-203.
- 고영석 외(2003), **축제와 문화**, 「축제의 이념과 한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권자경(2001), 지역축제의 유형별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82), 송파의 세시풍속에 나타난 문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풍·임동권·정병호(1997), **민속놀이론**, 서울: 민속원.
- 김순안(2003), 한국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일(1993), **청소년문화론**, 「청소년문화의 의미와 성격」,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양주(1995), 일본지역사회의 「마츠리」와 그 사회문화적 역동성, **민족과 문화** 제3호, pp. 79-125.
- 김영모(1988), 한국청소년정책의 과제와 새방향,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장기·권혁순(2001), 현대 지역축제의 성공요인과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9호, pp. 193-206.
- 김한석(2003), 고등학교 축제 발전방향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무병(2000), 문화환경 조성 과 지역축제의 개발, **역사민속학** 제9호, pp. 205-217.

- 민병호·손대현(2000),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pp. 193-211.
- 류정아(2003), **축제인류학**, 서울: 살림.
- 류정아 외(2003), **유럽의 축제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배만규(2002), 지역축제 개최결과의 표준평가속성 개발: 문화관광
부선정 문화관광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17권 제1
호. pp. 175-194.
- 서희석·이동기(2000),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축제,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pp. 261-275.
- 서희석·이동기·김영희(2002), 지역축제에 대한 방문객 인지도:
익산세계아동청소년공연 예술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
치학회보. 제14권 2호.
- 심한기(2002), 지역축제를 매개로 한 문화 네트워크 형성, 청소년
문화포럼, 서울: 청소년문화연구소.
- 양자경(2001), 지역축제의 유형별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연
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국열(2000), 지역축제의 개선점과 각 주체간의 역할에 관한 연
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룡 외(2003), **축제와 문화**, 「또 다른 세계를 비추는 거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상일(1988), **놀이문화와 축제**, 「한국축제의 구조와 본질」, 서
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세섭(1998),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역할 분담에 관
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종 외(2003), **축제와 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영숙 외(1992),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방안 연구, 한국청
소년연구원.

- 이태희(2003), **축제 브랜드 경영론**, 서울: 대왕사.
- 임재해(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서울: 지식산업사.
- 임재해(2001),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비교민속학 제20집**, pp. 151-201.
- 장병권(2000), 지방자치제와 지역축제정책의 방향, **문화관광연구 제2권 제1호**, pp. 31-53.
- 전동평(2002),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웅 외(2000), **지역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현호(2004), **문화이벤트 기획론**, 서울: 대왕사.
- 주지현(2000),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이벤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기·길은배·맹영임(2001), 세계 청소년 문화축제 발전방안 연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米山俊直(1986), **都市と祭りの人類學**, 東京: 河出書房新社.
- <http://br1125.new21.org>
- http://www.paichai.ac.kr/~yjkim/ujc2002/15/15_2/matsuri.htm
- http://www.mext.go.jp/b_menu/shuppan/sonota/990301.htm
- <http://www.cao.go.jp/>
- <http://www.pref.saitama.jp/>
- <http://www.pref.yamagata.jp/sm/seisaku/597700/150729kadai.kenminu.pdf>
- <http://www.kobe-matsuri.com/index.html>
- http://www.kobe-photo.com/htm/maturi_k.html
- <http://www.snowfes.com/>
- <http://www.hokkaido-gas.co.jp/sumai/art/>
- <http://www.harimaya.info/yosakoi.htm>

<http://www.attaka.or.jp/yosakoi00/digest/index4.html#>
http://www.kobe-photo.com/htm/maturi_t.html
<http://www.kandamyoujin.or.jp/400/miyairi.html>
<http://homepage3.nifty.com/kyotosanpo/sanpomiti/gionmaturi/gionmaturi.html>
<http://www.seinen.go.jp/event/>
<http://www.syonen.go.jp/>
www.urakosai.com
<http://www.chiba-c.ed.jp/yakuendai-h/>
http://www.mext.go.jp/a_menu/shougai/houshi/jirei/03062401/007/008.pdf
<http://www.kobunren.or.jp/>
<http://www.28thbunkasai.com>
<http://www.tomiokahachimangu.or.jp/>
<http://www.sendaicci.or.jp/tanabata/>
<http://www.age.jp/~dw/tanabata/tana-all.htm>
http://web.city.kawaguchi.saitama.jp/ka/web_p01.nsf
<http://k-shisui.cool.ne.jp/indexs3.html>
<http://www.cablenet.ne.jp/~suiko/main.htm>

요 약

1. 문제의 제기

청소년분야에서도 최근에 축제가 풍성하게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개최되던 학교축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들에서 청소년축제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발표할 기회 제공을 중요한 청소년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며, 국가 청소년정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청소년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세계청소년문화축제(4회), 한강청소년동아리축제(2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4회), 여수세계청소년축제(4회) 등이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축제로는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우끼자'(우리들 끼의 자리)(2회), 김제시 청소년문화축전, 성북지역 청소년 스스로 문화제 '난리굿', 강북지역의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대전시의 '청소년들의 문화한마당' 등 다양한 지역단위의 축제가 기획·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많은 청소년축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천청소년수

련관의 ‘청소년축제바로세우기’, 안중청소년문화의집의 ‘Youth Production’, 울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거리카페’, 거창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거리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축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와는 기본 취지나 운영상의 특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지역축제가 축제 본연의 기능보다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는 지역경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된다면, 청소년축제는 청소년사업 또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자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축제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규모 행사로 치러지는 다양한 축제 행사가 과연 청소년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벤트 기업에 의한 대규모 기획축제로 운영되는 청소년축제의 의미에 대한 반성이다. 반면에 소규모이지만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축제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청소년보다는 성인 중심의 기획과 운영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단순한 출연자로서 공연에 참가하거나 지나친 경쟁심을 조장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활동의 적극적 표현 양식으로서 청소년축제가 그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단순한 축제의 관객이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축제의 기획·운영·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지도자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축제기획단 운

영 등 철저한 사전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축제가 양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에 비추어 청소년축제를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평가하는 과정을 지원할 매뉴얼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소년축제의 의미를 갖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화에 기초하며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욕구의 적극적 표현양식으로서 청소년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축제의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영역별, 참여주체별 실천방안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도시밀착형 청소년축제와 중소도시 밀착형 청소년축제로 분류하여 축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도시밀착형 청소년축제의 모델로는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이 서울시 강북지역에서 7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강북청소년거리축제 “추락(秋樂)”을 모델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중소도시형 청소년축제의 분석모델로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청소년문화의 집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축제(Youth Production)를 선정하였다. 청소년축제의 진행을 통해 얻어진 성과 및 문제점,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도시밀착형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분석 및 평가

7년간의 축제에 대한 작업을 통해 지역단체 추진위원회와 축제기획단, 자원봉사자, 참가동아리들의 안정적인 축제 준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다양한 시도들과 제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하루에 이루어지는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주제와 장소, 시기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단체들의 사업과 자원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축제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문화활성화를 위한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제가 종래의 문화제, 참여마당, 전시마당 등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다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다양한 문화활동의 시도들이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청소년기획단뿐만 아니라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와 그 외 사람들이 문화기획워크숍, 축제모니터링 등의 문화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일상적으로 마련되어 보다 확대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축제가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체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단체 청소년사업의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회 중심의 자원 지원과 사업공유,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강북지역에서의 축제의 시작은 지역사회의 문화환경의 열악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단체가 모였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면서 근본적인 지역지역 문화환경

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지역단체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치 참여를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한 매개체로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통한 청소년문화의 활성화는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장 기본적이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단체들 역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각자 다른 단체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라는 막연하고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체별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체들의 상황들을 고려한 한계점과 강점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있어야 한다.

지역단체대표자모임이 구성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논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실무자들과 기관을 대상으로 축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 역시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과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추락 동아리 기획모임은 3년을 지속한 결과 비로소 서로 다른 동아리와 청소년들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아리들이 주제표현을 할 줄 모르고, 기획과정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상적인 문화적 자극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지속적인 계기를 마련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자원을 중심으로 문화적 제안과 자극이 필요하다.

2) 중소도시 밀착형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분석 및 평가

청소년축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특성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제주도의 감귤 축제라든지, 이천 도자기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로 인해 안중지역의 청소년축제가 다른 지역사회의 청소년축제와 차별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요즘, 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더 이상 특성이 될 수 없으며, 앞으로 지역사회내의 특성을 담아내는 축제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는 축제로 전락할 수 있기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문화와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2004년 서부지역 청소년축제 Step by Step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자는 취지였으나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90%였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소통의 장이 되기에 부족했다. 전통 문화를 현 프로그램들과 접목시켜 기성세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Step by Step을 안중지역의 청소년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로 보기엔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다. 청소년들이 기획 및 제작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기성세대가 만든 축제를 닮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본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으로 청소년 문화를 상징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원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넷째,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소년들 중에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25명의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축제를 제작하였다. 25명의 청소년들 중 주기적으로 25명에서 20명이 축제를 준비하였다. 주기적으로 참여한 20명의 청소년들. 하지만 참여 단계가 다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경우 담당 지도자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역할들을 찾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 담당 지도자와 고등학교 2학년 임원들이 결정 내린 역할에만 적극적 참여율을 보인 반면 어떤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가 있을 때는 주도적인 모습보다는 수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팀원들의 원활한 작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학교 청소년들 또한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회의진행 시 내성적인 청소년들은 거의 의견을 내지 않았고,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에 의해 회의가 주도됨을 볼 수 있었고, 팀원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청소년들 스스로 하는 것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축제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축제 정리 및 평가의 측면에서 축제 정리 후 청소년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축제세부진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축제에 대한 총평도 이루어졌다.

둘째, 축제의 기획 및 진행, 평가를 위한 매뉴얼 작업이 이루어졌다. YOUTH PRODUCTION 팀원들이 힘을 합하여

축제 제작과정을 나누어 작업했다. 형식보다는 축제의 제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축제를 접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축제제작 매뉴얼을 접했을 때 축제를 기획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편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셋째, 축제사례를 중심으로 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다. 처음부터 “축제”를 하려고 시작했다면 그 부담감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안중이라는 지역은 축제를 진행할 만한 공간, 기자재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축제기획단을 꾸밀만한 전문인력도 없었으며, 축제에 참여할 동아리들도 없었다. 게다가 축제진행을 위한 지역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욕구와 지도자의 지원을 통해 초기적이지만 청소년축제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과 지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고, 그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처음부터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축제는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발전된 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무언가 부족함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의 과정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갈등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다양함을 인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축제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자 교육의 장인 것이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청소년지도자 및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파악 및 자원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축제)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용력과 전문적 능력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 맞는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단일 사업중심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여섯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문화축제의 양성과 지원이 절실하다.

일곱째, 중앙단위 또는 자치단체 청소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실시 및 지역단체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덟째, 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청소년 자치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적 인프라 구축

첫째,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적 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적 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의 발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촌 지역 및 문화적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방안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과 학교 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만들어 가야한다.

셋째, 학교의 정규과정과 연관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사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의 실무자의 연계와 사업공유를 위한 교육연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들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연구 및 연계사업 매뉴얼 발간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연구개발 및 모델 사례 보급

첫째,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장기적인 목적을 향한

단계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모델의 개발과 사례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현장에서의 노력이나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축제의 개념정리, 청소년축제의 개념정리와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한 현장성에 근거한 이론과 개념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축제의 모형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연구개발과 모델 사례의 발굴 과정에는 반드시 전문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념과 이론은 전문 연구자에게만 맡겨지고, 현장 활용을 위한 매뉴얼은 현장 전문가에게만 맡겨진다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실무자는 지역사회와 청소년문화 그리고 청소년축제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현장을 바로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의 연구과정 역시 현장과 이론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실천되었던 청소년축제들이 자체적인 노력과 평가에 의해 제안되고, 또 이러한 결과들을 담아 새로운 모델과 사례들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현장 속으로 재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축제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현장 실무자와 전문 연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양자가 유기적, 협

력적 관계를 통하여 각 지역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축제의 다양한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모델을 각 지역사회에 보급하며, 나아가 각 지역사회에서 실시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